

한은 "작년 금융기관 부실채권 15.6兆 급증" 2

김준 부회장 "SK온, 늦어도 2028년까지 상장" 10

규제 풀고 절차 간소화... 47兆 투자사업 '마중물'

정부, 기업·지역투자 신속 지원
지방도시공사 공사채 한도 상향
지자체 인허가·심사 기간 단축
전력망 등 인프라 조성·적기 공급
설비·건설투자 등 내수진작 기대



혁신 이끈 '유통산업의 별' 28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4 소비자 유통대상'에서 종합대상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한 이수일(앞줄 오른쪽 여섯 번째) 씨제이올리브영 전략지원실장을 비롯한 각 부문 수상자들과 김덕현(뒷줄 가운데) 이투데이 대표이사, 박종원(뒷줄 오른쪽 여덟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유현정(뒷줄 왼쪽 여섯 번째)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국장 등 시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투데이가 주최한 '2024 소비자 유통대상'은 한국 유통산업을 선도하고 소비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한 기업 및 혁신 브랜드를 발굴·시상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관련기사 23~27면 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가 입지·환경규제 혁신, 행정절차 단축 등을 통해 최대 47조2000억원 규모의 기업·지역 투자 프로젝트 신속 가동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지부진한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 내수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이번 대책은 작년 11월 발표한 '맞춤형 애로 해소를 통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1차 투자 활성화 방안)'에 이어 마련된 2차 투자 활성화 대책이다.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확실성 등에 따른 투자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지역 주도의 투자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정부는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신속한 해결을 필요로 하는 18건의 프로젝트 정상가동을 위해 맞춤형 애로 해소를 추진한다. 이들 프로젝트의 투자 규모는 최대 47조2000억원이다. 애로해소방식은 투자를 저해하는 입지·환경 규제 개선, 행정절차 패스트 트랙(Fast Track) 추진, 전력망 등 인프라 조성 등이다.

먼저 입지·환경 규제를 개선해 제수도 와 청주, 울산 등에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방도시공사 공사채 발행 한도(자기자본 부채비율)를 상향 조정(광역시개발공사 300%→350%·기초 도시개발공사 200%→230%)해 나노·반도체 국가산단(2023~2030년) 및 대전·전남 국가산단(2020~2027년)의 조속한 조성을 돕는다.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공유창고인 셀프 스토리지(2023~2030년)에 대해선 올해 상반기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물 용도를 명확히 해 안정적 사업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신속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한다. 이 밖에도 투자심사 기간 단축 등을 통해 카이스트 오송캠퍼스(2025~2029년), 포항 수소환원제철 용지(2025~2041년)의 신속한 조성을 지원한다.

기업의 투자 적기 이행에 반드시 필요한 전력망 구축 등 투자 인프라 조성에도 만전을 기한다. 정부는 기업 전용 전력회선 추가 설치를 통해 광양만 이차전지 산단 내 전력을 적기 공급하고, 새만금·영일만 이차전지 산단의 송전선로 조기 구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인허가도 신속 추진한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한미약품 오너家 형제, 경영권 분쟁 완승... OCI 통합 '없던 일로'

임종윤·종훈 형제 주주제안 5건 가결
나란히 한미사이언스 이사로 등극
소액주주, 주총 표 대결 승패 갈라



한미약품 임종윤(왼쪽)·임종훈 새내이가 28일 경기 화성시 신텍스(SINTEX)에서 열린 '제51기 한미사이언스 정기주주총회'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 통합의 분수령이 될 지주사 한미사이언스의 정기주주총회가 통합에 반대하는 임종윤·종훈 형제의 완승으로 끝났다. 두 형제는 그룹 경영에 전격 복귀하게 됐고, OCI그룹 측은 한미약품그룹과의 통합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13면

28일 경기 화성시 수원과학대학교 신텍스(SINTEX)에서 열린 한미사이언스 제5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펼쳐진 표 대결 결과 임종윤·종훈 형제의 주주제안 5건이 모두 가결됐다. 이에 따라 두 형제는 나란히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 진입한다. 반면 회사 측이 올린 6건은 모두 부결됐다.

이날 주총을 앞두고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을 추진하는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임주현 부회장 모녀와 통합에 반대하는 임종윤·종훈 형제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한미사이언스 측은 임주현 부회장과 아우현 OCI그룹 회장을 포함한 6명의 이사 후보를, 임종윤·종훈 형제 측은 자신들을 포함한 5명의 이사 후보를 각각 안건으로 내며 경영권 쟁탈전을 벌였다.

투표 결과 임종윤·종훈 형제 측은 각각 52% 안팎의 표를 얻었다. 임종윤·종훈 형제 측 우호지분은 개인 최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의 지분을 포함해 40.57%, 송영숙·임주현 모녀 측 우호지분은 가현 문화재단과 임성기재단, 국민연금공단까지 더해 42.66%였다. 2.09%포인트의 근소한 차이였으나, 결국 소액주주들의 민심이 승패를 가른 것으로 평가된다.

임종윤 전 한미약품 사장은 이날 주총 직후 "한미사이언스 주주 모두가 모인 힘

이 이겼다는 것이 큰 위안이 된다"면서 "주주들이 이겼기에 앞으로 주주들이 원하는 회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송영숙·임주현 모녀가 추진하던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은 약 3개월 만에 백지로 돌아갔다. OCI 측은 주총 직후 "주주분들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통합 절차는 중단된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향후 통합 재추진 계획도 없다고 했다.

한편, 이날 주총은 위임장 집계 및 확인 절차에 시간이 걸리면서 예정했던 오전 9시보다 약 3시간 30분 늦은 낮 12시 28분에 시작했다. 송영숙 회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불참했고, 임주현 부회장도 주총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화성=유혜은 기자 euna@

하이브리드차까지... 현대차, 美 전기차 전용공장 생산 '투트랙'

EV 수요 둔화·환경규정 완화 영향
美 대선 후 정책 변화 선제대응 나서
가동 6개월 앞당겨 하반기 시험생산



현대차그룹이 미국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전기차 전용 공장 '현대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출처 HMGMA 페이스북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새 전기자동차 전용공장에서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생산한다. 애초 '현대차·기아 전기차 전차종 생산'을 목적으로 첫 삽을 떴던 '현대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다. 연말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의 전기차 정책 변화를 비롯해 최근 전기차 수요 둔화 등을 고려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7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호세 무뇨스 현대차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COO)는 뉴욕국제오토쇼에서 신형 투싼을 공개하고 "HMGMA에서 전기차

이외에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를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4면

그는 "현대차는 전기차 생산을 늘릴 준비를 하고 있으며, 시장 평가에 따라 일부 기술을 더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이브리드

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의 하이브리드 생산은 증가하고 있다"며 "높은 수요가 있어서 현대차에서도 하이브리드 비중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이브리드는 엔진과 변속기 사이에 전기모터를 맞물려 내연기관에 힘을 보태는 친환경차다. 엔진 가동 범위와 시간을 단축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효과를 낸다. 이날 무뇨스 COO는 일반 하이브리드보다 진보한, 충전이 가능한 PHEV를 더 강조했다.

그는 "하이브리드는 물론 PHEV는 우리에게 전략적인 주제"라며 "PHEV의 개척자 역할을 해왔고, 그런 점을 이용하고 싶다"고 밝혔다.

CNBC는 전기차 전용공장을 표방했던 조지아 공장에서도 하이브리드 모델을 생산하는 것과 관련해 "전기차 전환이 예상보

다 느리게 이뤄지는 만큼, 미국 행정부가 하이브리드와 PHEV에 유리하도록 배기가스 규정을 개정할 와중에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전기차 시장의 수요 둔화로 인해 주요 브랜드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포드는 가격을 낮췄고 제너럴모터스(GM)는 전기픽업 트럭 생산을 45% 수준으로 줄였다.

앞서 현대차는 2022년 10월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서 HMGMA 건설을 시작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미국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노리고 추진한 이번 공장은 예상보다 약 6개월이 큰 올 하반기부터 시험양산을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준형 기자 juni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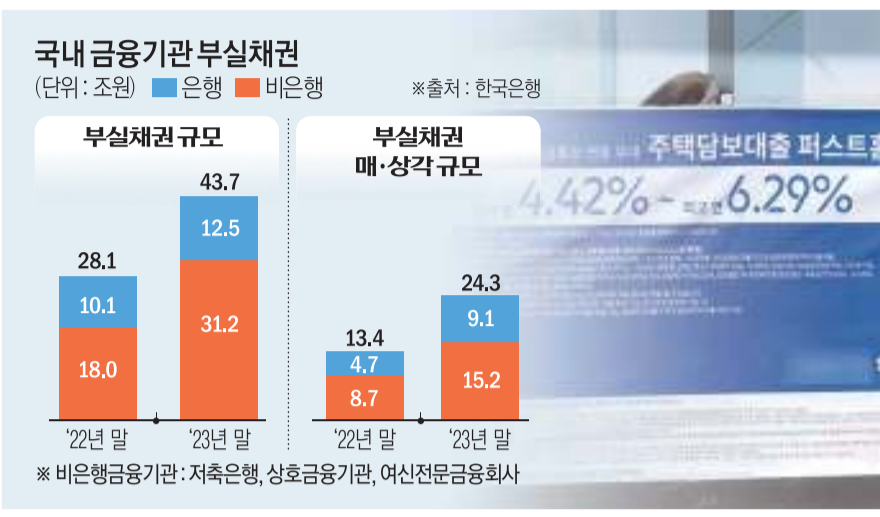
<지난해>

한은 “금융사 부실채권 15.6조 급증… 기업 빚 2780조”

부실채권 은행 24%·비은행 73% ↑
매·상각 규모 2배 늘어난 24.3조

기업 부채 명목 GDP의 1.24배
기업 10곳 중 4곳 이자도 못갚아

“은행, 건전성 지표 선제적 관리
당국, 기업 부채 모니터링해야”



돈을 빌리고도 제때 갚지 못하는 가계·기업 등이 늘면서 국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지난해 15조 원 넘게 불어났다. 기업이 진 빚은 국가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2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안정 보고서’와 ‘2024년 3월 금융안정상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은 2022년 말 28조1000억 원에서 2023년

말 43조7000억 원으로 15조6000억 원 증가했다. 업권별로 은행의 부실채권은 2023년 말 기준 12조5000억 원으로, 전년 말(10조1000억 원)보다 23.8% 늘었다. 여신전문회사, 상호금융, 저축은행을 포함한 비은행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은 같은 기간 18조 원에서 31조2000억 원으로 73.4% 급증했다.

부실채권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 금융

기관들의 부실채권 매·상각 규모도 전년의 약 2배로 확대됐다. 금융기관 전체 부실채권 매·상각 규모는 2023년 24조3000억 원으로, 2022년(13조4000억 원)보다 81.3% 증가했다. 은행은 9조1000억 원, 비은행은 15조2000억 원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각각 93.6%, 74.4% 증가했다.

은행의 경우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상각뿐 아니라 부실채권(NPL) 시장을 통

한 매각에도 적극적이었다. 지난해 은행의 NPL 전문투자회사 등을 통한 부실채권 매각은 4조9000억 원으로, 2022년보다 3조 원 증가했다. 부실채권 대비 매각 비율 역시 2020~2022년 평균 13.8%에서 2023년 22.8%로 높아졌다.

한은은 “금융기관은 적기에 부실채권 매·상각 등을 통해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가 과도하게 악화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NPL 전문투자회사의 담보부 부실채권 선호 현상을 완화함으로써 신용리스크가 증대된 상황에서도 비은행을 포함한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업이 진 빚도 급증해 열 곳 중 네 곳은 영업활동으로 번 돈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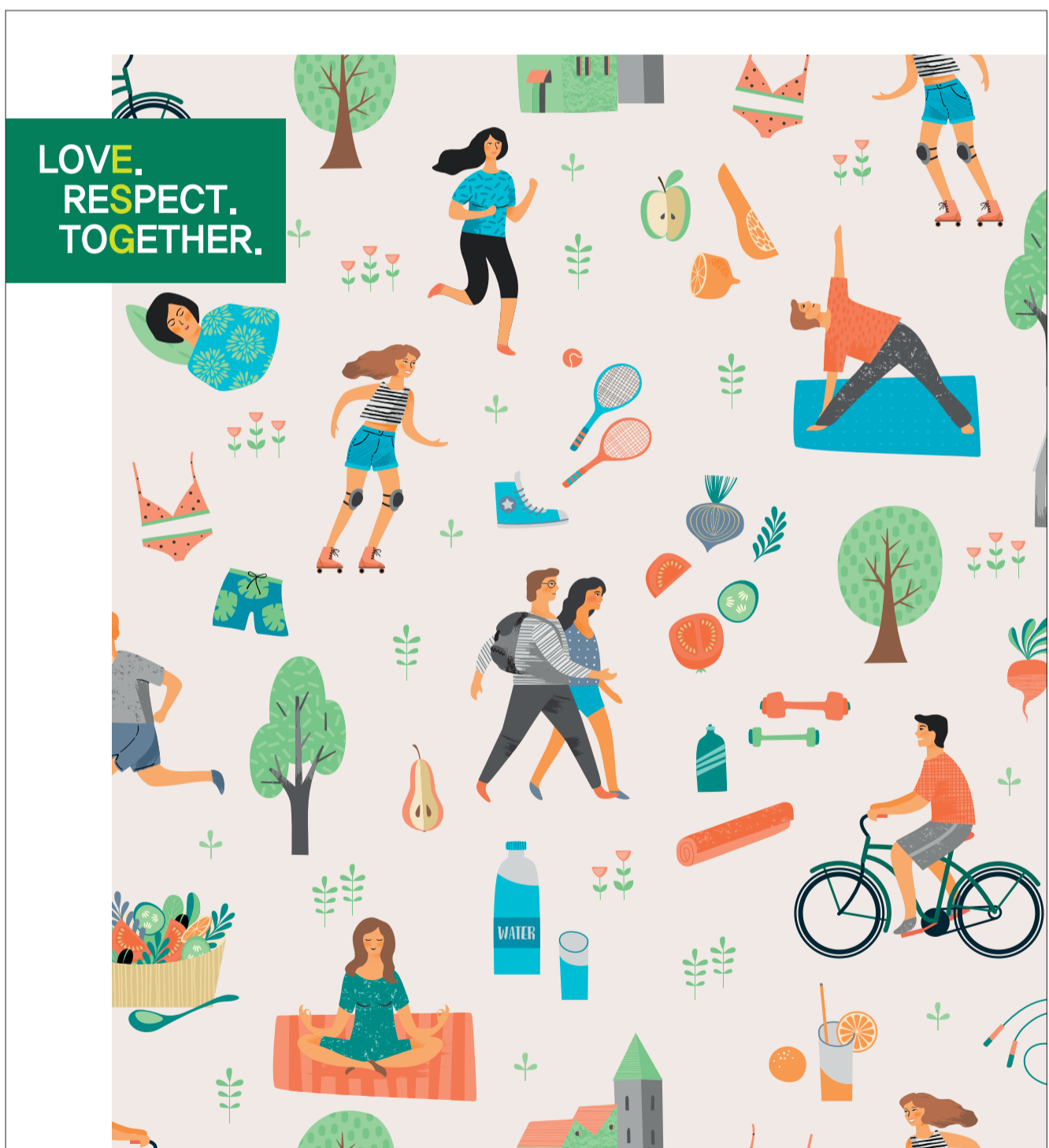
한은은 ‘2024년 3월 금융안정상황’에서 지난해 4분기 민간신용 레버리지(민간신용/명목GDP)가 224.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분기(225.6%) 대비 하락했으나, 여전히 우리나라 국민이 버는 돈에 비해 가계와 기업의 부채가 2.25배로

과도한 수준이란 뜻이다.

기업신용은 2780조1000억 원으로 추정됐다. 명목 GDP 대비 비율은 124.3%로 나타났다. 금리 인상이 본격화 된 2022년 1분기 이후 404조 원이나 증가했다. 2년새 20% 확대된 것이다. 이자비용이 확대되는 시기에 기업 빚이 늘었다는 것은 사실상 빚으로 경영활동을 이어나가는 기업이 증가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작년 3분기 기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미만 기업 비중은 44.4%를 기록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직격탄을 맞은 2020년(40.3%) 때보다도 상황이 좋지 않다. 기업 전체의 이자보상배율도 1.6배로 사실상 우리 기업 대부분이 이자를 내고 나면 남는 이익이 없다.

한은은 “금융당국은 기업부채 관리와 함께 올 2월 가계 부문에 도입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효과를 모니터링하면서 DSR 적용 범위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등 꾸준한 노력이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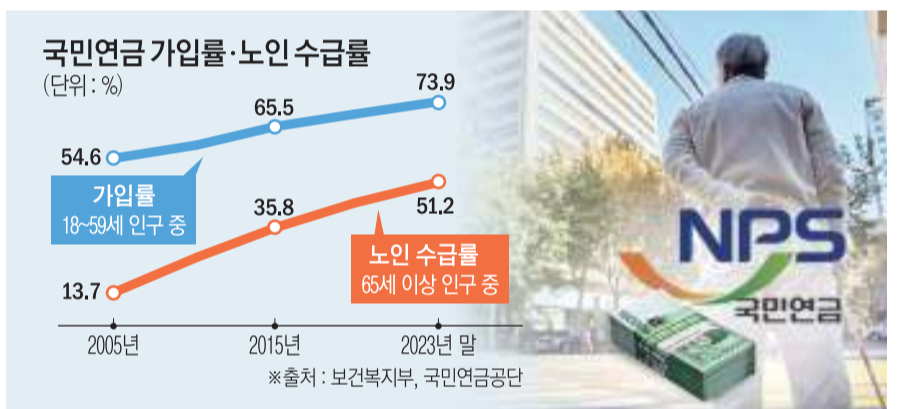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LOVE.
RESPECT.
TOGETHER.

당신 곁에서 새 삶 바라봅니다

사회와 환경의 소중함을 새삼스럽게 다시 바라봅니다
그 소중한 일상이 지속가능해지는 새 삶이 시작되길 바라봅니다
늘 당신 곁에서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새 삶을 만들어갑니다



노인 수급률 첫 50% 넘었다 98만명 연금 104만원 받아

노령연금은 월평균 62만원
200만원 이상 1년새 3배 ↑

65세 이상 노인의 국민연금 수급률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서었다. 200만 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1년 새 3배 이상 늘어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8~59세 가입 대상 인구 중 73.9%(총 2238만 명)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가입률은 전년 대비 0.65%포인트(p) 높아졌으며, 2005년 54.6%를 기록한 이후 계속 상승 중이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총 682만 명으로, 2022년 664만 명 대비 18만 명 늘었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7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도 계속 증가해 약 98만 명이 월 104만 원을 받고 있다. 크레딧 지원으로 가입 기간이 늘어난 사람은 총 57만 명으로 나타났다.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51.2%(498만

명)가 국민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률이 노인 인구의 절반을 넘어선 것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초다.

사정이 어려워 국민연금보험료납부를 중단한 납부예외자와 보험료 장기체납자 등 ‘가입 사각지대’는 372만 명(가입자 대비 16.6%)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395만 명·17.6%) 대비 23만 명(1%p) 감소한 수치다.

연금액을 살펴보면 노령연금은 1인당 월 62만 원으로 전년(58만6000원)보다 3만4000원 늘었다. 노령연금은 2000년 24만 6000원에서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월 200만 원 이상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1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3.3배 늘었다. 수급자 중 최고 연금액은 개인이 266만 원, 부부 합산이 469만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저소득 지역가입자, 예술인, 실업 등으로 보험료 지원을 받은 가입자는 143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6.4%로 집계됐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고 가입자가 63세가 됐을 때부터 매달 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금 수령액이 더 커진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서울 대관람차 완공 1년 당긴다... 제주엔 우주 산업단지

정부, 47兆 투자사업 '마중물'

정부가 서울의 랜드마크로 조성되는 '서울 트윈아이(가칭·대관람차)'를 예정보다 9개월 앞당긴 2028년에 완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제주에는 '우주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청주에는 화장품 공장 신설 투자를 지원한다. 청년 농업인과 농촌형 창업자를 지원해 농촌 인구 소멸에도 대응한다.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 등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서울트윈아이SPC주식회사는 서울마포구 상암 월드컵공원 내 평화공원에 1440명이 동시에 탈 수 있는 지름 180m의 대관람차 '서울 트윈아이'를 짓는 민자사업을 제안해 추진 중이다. 통상 36개월 이상 걸리는 행정절차를 고려할 때 2027년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다.

정부는 서울 트윈아이의 공사 기간을 9개월 이상 줄여 약 27개월로 단축하고, 2026년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완공 목표 시점도 2029년에서 2028년 하반기로 앞당긴다. 정부는 영국 런던아이의 1.5배에 달하는 초대형 관광 랜드마크가 지어지면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주도에는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활용해 서귀포시 하원동의 옛 탐라대학교 부지를 우주산업 클러스터 '하원 테크노캠

런던아이 1.5배 초대형 랜드마크 2026년 착공 2028년 국민 품에

제주 폐교 기회발전특구로 변신 청주 산단 화장품공장 입주 허용

청년농업인·농촌형 창업자 지원 지방 '세컨드홈' 세계 특례 추진

퍼스'로 조성한다. 제주도는 해당 부지를 산업단지로 지정해 개발하려고 했으나, 개발부지 면적(34만㎡)이 제주도의 연평균 수요면적(1만㎡)의 10배를 초과해 어려움을 겪었다.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르면 신규 산단은 연평균 수요면적의 10배 이내에서 면적을 허용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개발 활로를 풀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특례를 활용한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 지정도 산단면적 제한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로 해석한 것이다.

청주에는 화장품 공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화장품 기업인 씨앤씨는 청주 센트럴밸리 산단 대상 업체에 화학제품 제조업이 없어 입주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청주시와 환경청이 협의해 배출 저감시설 설치 등을 전제로 배출 제한을 완화하고 화학제품 제조업을 입주 업체에 추가하기로 했다. 명지의료재단이

충남 내포신도시에 짓는 종합병원 건립 사업의 중앙투자심사기간도 수시투자심사를 통해 3개월에서 40일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인천 송도에 구축 중인 'K-바이오 랩허브'도 지방자치단체 공정을 단축해 당초 계획보다 완공 기한을 최대 15개월(2029년 2월→2027년 11월)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청년농업인과 농촌형 창업자를 대상으로 자금과 보금자리주택을 지원하고 경제 활동을 활성화해 2027년 농촌 청년 인구 비율을 22.0%로 유지하겠다는 계획도 내놴다. 또 농촌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소멸 위험 지역에 '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해 규제 완화 등 혜택을 주고 산지 전용 기준을 완화한다. 농촌에 머무르는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농촌 체류·정주 인프라를 구축하고 소멸 고위험 지역이 확정되면 '세컨드홈'에 대한 세계 특례도 관계부처와 논의하기로 했다.

세종=이혜은 기자 pinvol1973@
세종=김지영 기자 jye@



2028년 완공 예정인 서울 트윈아이 외부 조감도(왼쪽)와 제주 서귀포시 하원동의 옛 탐라대학교 부지에 위치한 KVN 탐라전파전문대의 전파망원경. 사진제공 서울시·게티이미지뱅크

공공주택 공사비 올해 15% 상향 정부 "민간건설사 적정가격 보장"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물가상승분·적정단가 고려해 조정 PF 부실 우려 사업장은 정부 매입

정부가 공공과 민간 부문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겠다고 공언했다. 미분양 주택과 토지 매입 지원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건설업계 위기를 진화하고, 건설업계가 정책 당국에 건의한 내용을 즉각 정책화해 건설업황 조기 반등을 끌어낼 계획이다.

28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적정 공사비 반영'과 '대형공사 지연 최소화', '민간 애로 해소' 등으로 총 15개 세부 대책으로 구성된다.

먼저,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해 공공공사에는 적정 단가와 물가 상승을 고려한 공사비 조정이 진행된다. 일률 적용 중인 직접공사비 산정기준(표준시장단가)을 시공 여건(입지·층수)에 맞게 개선한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투입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도 최대 20% 상향한다.

또 물가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도록 물가 반영 기준 조정을 검토한다. 총사업비용 자율 조정 제도도 활용해 공사가 유찰되면 발주 기관과 민간이 조정 협의를 추진한다. 민간 참여 공공주택의 경우 물

가상승분 등을 고려해 공사비를 전년 대비 15%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민간 공사 분야의 공사비 조정을 위해 선 공사비 분쟁 예방과 신속 조정제도가 시행된다. 정비사업 분쟁 예방을 위해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지원한다. 인허가 기관에 계약서 제출도 규정해 표준계약서 활용도를 높인다.

분쟁 우려 지역에는 전문기단을 우선 파견하고 공사비 검증기간도 기존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 빠르게 조정한다. 이 밖에 일반사업의 경우 건설 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해 공사비 갈등을 조정한다.

건설사업 리스크 완화 대책도 시행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사업장 재구조화를 위해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사 보유토지를 역경매 방식으로 매입한다. 동시에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을 위해 기업구조조정(CR) 리츠세제 지원이 시행된다. CR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사업 리스크를 낮추고, 신규 착공 지원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 대형공사 지연을 막기 위해 터키 등 기술형 입찰로 추진되는 국책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입찰제도 합리화도 시행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주택·건설경기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모니터링하고, 관련 그림자 규제를 발굴해 혁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금융으로 세상을, 새롭게

Shinhan

신한투자증권 앱의 새 이름
신한 SOL증권

투자를 새롭게, 즐거움은 더 크게
새로운 투자의 즐거움, 신한 SOL증권이 함께하겠습니다

IOS AOS

신한 SOL증권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신한투자증권

〈최대주주 할증과세시〉

〈31%〉

상속세 최고세율 60%, G7 평균의 2배... “세제 개편해야”

상의 ‘조세 개선과제’ 건의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이 주요 7개국(G7) 평균에 비해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상속세로 인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상속세제 개편 등 조세제도 개선과제 152건을 담은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상의 건의서에서 “과도한 상속세가 부의 해외 이전, 편법적 탈세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상속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기업투자를 유도하고 민간 소비 여력을 높일 수 있는 세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 2000년 50%로 계속 인상됐다.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최대주주 할증과세’로 실제 상속세율은 세계 1위 수준인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7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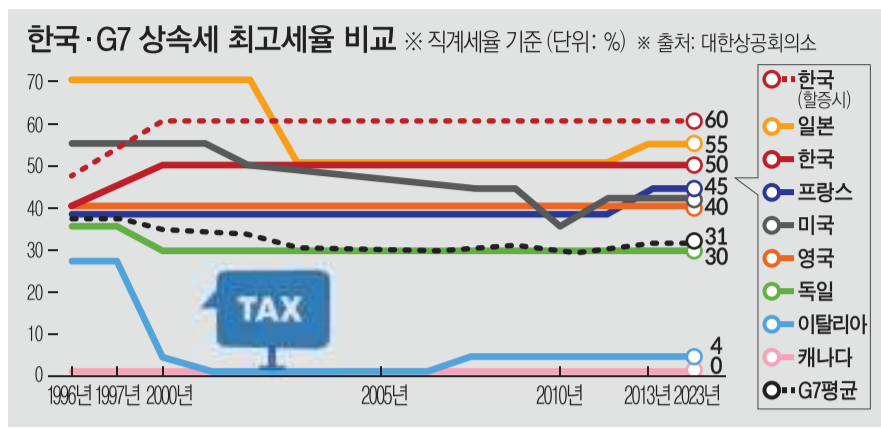
최고세율 2000년 50%로 인상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 부작용 ‘유산세 방식 과세’ 문제 제기 “기업투자 유도·내수 활성화 필요”

G7, 상속세 폐지·최고세율 인하

가의 상속세 최고세율의 평균인 31%에 비해 2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G7 국가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있다. 캐나다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72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했다. 미국은 55%에서 50%, 35%까지 낮췄다가 2012년 40%로 고정했다. 상속세를 처음 도입한 국가인 영국은 최근 상속세 최고세율을 40%에서 20%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상의 상속세의 과세 방식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유산세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상속인 각자가 취득하는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취득세 방식보다 세 부담이 크다고 주장한다.

상속세 제도를 가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국 가운데 20개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유산세 방식을 채택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4개국뿐이다.

상의 관계자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승계를 준비하는 기업에 일반 주주 배당을 늘리는 것보다 대주주 지분이 많은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유인으로 작

용한다”며 “24년째 고정된 상속세 과세표준이 자산 가격 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며 중산층 국민까지 조세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상의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국가전략 기술 세액공제 제도도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은 2022년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을 대상으로 시행돼 현재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까지 7개 산업을 대상으로 확대됐다. 시설투자는 15~25%, 연구개발(R&D) 투자는 30~50% 세액

공제를 하고 있다.

건의서는 최근 미국, 대만, 유럽연합(EU), 일본 등이 전략산업에 중장기 세제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세제지원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면 경제안보와도 직결된 미래산업 주도권을 놓치거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으므로 확실한 교두보를 확보하기까지는 경쟁국 이상의 적극적인 세제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상의는 위축된 민간소비 여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배당 촉진세제 마련을 건의했다. 기업이 배당을 확대하면 가계소득이 늘어나 소비자 지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수원 상의 기업정책팀장은 “과도한 상속세 등 경직적인 세제가 민간 활력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기업은 국가의 최대 납세자이자 국민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천인 만큼 글로벌 스탠더드와 정합성을 높이고 기업투자와 국민소득 증대를 뒷받침하는 조세제도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문정 기자 kangmj@



현대차그룹 관계자들이 27일(현지시간) 뉴욕 오토쇼 현대차 전시관에서 세계 올해의 퍼포먼스카 수상을 기념하며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루크 동커블레 현대차그룹 CDO 겸 COO, 랜디 파커 전무, 이상엽 현대제네시스 글로벌디자인담당 부사장, 장재훈 현대차 사장, 호세 무노스 현대차 글로벌 COO(사장), 올리버시보일 현대차 미국판매법인 제품기획 및 모빌리티 전략담당(상무), 매리저 브랜드 아놀드 현대차기아 미국기술연구소 시니어 디자인. 사진제공 현대차기아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中 알·테·쉬 ‘錢의 공습’에 “건강위협” 서울시 팔 걷었다

중국 ‘C-커머스’ 초저가 제품 유해성 논란에도 정보 ‘깜깜이’ 국제시장 질서 위협 우려도 ‘솔솔’ 市, 단속 등 대책 정부건의 방침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이른바 ‘C-커머스(차이나+전자상거래)’가 무서운 속도로 전세계 시장을 잠식해 가고 있다. 초저가 공습이 몰고 온 파장은 현지 유통·제조업의 고사 수준을 넘어섰다. 제품 관련 ‘깜깜이’ 정보로 국민 건강이 위협에 직면했고, 국제질서 재편과정에서 중국이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본지 취재 결과 서울시는 중국 전자상거래업체의 공격적 한국 시장 영향력 확대에 맞서 대책 검토에 나섰다. 무엇보다 경계를 강화하고 있는 건 제품 유해성이다. 송재호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제품은 개인이 직접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 유해성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누가 어디서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모른다”며 “유해성 검사를 강화해 제품과 생산자 관련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피해를 줄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중국산 유해성 제품 유통 및 단속과 관련해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C-커머스’의 진격은 무서울 정도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온라인 해외 직구 규모는 6조76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약 30%가량 증가했다. 이 가운데 중국 해외 직구 비중 증가 속도는 가파르다. 2022년 28%에서 1년 새 49%로 폭증하더니, 한국 소비자의 국가별 해외 직구 점유율에서 처음으로 미국을 제치고 1위에 올라섰다.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의 시장 공략은 철저히 ‘자본’에 기반하고 있다. 90%에 달하는 할인율과 공격적 마케팅으로 소비자들을 정신 못 차리게 만들고 있다. 올해 초 국내 테무 앱 이용자 수는 570만9000명으로, 약 5개월 만에 10배 급증했다. 앱 신규 설치 건수는 200만 건을 넘어서며 전체 1위를 차지했다.

중국 초저가상품에 한국 소비자가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일단 가장 우려되는 점은 건강 위협이다. 중국 해외 직구 제품들 가운데 니켈·납·구리 등 유해 성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판매가 금지된 것들도 포함돼 있다. 독일 기술검사협회(TUV)가 테무에서 구매한 폴로 셔츠를 검사한 결과 단추 하나에서 유럽 기준치의 40배에 달하는 프탈레이트가소제(DBP)가 검출됐다. DBP는 여성 불임이나 남성 호르몬 및 정자 수 감소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분류된다. 임신 중 노출되면 태아에게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다. 제품 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생산자 관련 정보도 ‘깜깜이’ 수준이다. 서울시가 제품 유해성 검사와 함께 생산자 정보 제공에 공을 들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파급효과를 더 넓게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현희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 연구원은 “중국이 외교 수단 활용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며 “중국 전자상거래업체의 세계 시장 공략을 이커머스 시장 문제로 좁혀서 볼 게 아니라 국가 간 영향력 발휘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접근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해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중국은 ‘중국제조2025’, ‘인터넷플러스전략’, ‘일대일로’ 등 치밀한 전략에 따라 전자상거래 시장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며 “일시적 현상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서울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현대차·기아 ‘쇼... 쇼’ 뉴욕 오토쇼 홀렸다

‘EV9’ 세계 최고 차·전기차 2관왕 ‘아이오닉 5N’ 고성능차에 뽑혀 2021년부터 3년 연속 수상 쾌거 ‘더 기아 K4’ 등 신차 3종 첫 공개



러셀 와거 기아 미국판매법인 마케팅담당(상무)가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제이콥 재비츠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24 뉴욕 국제 오토쇼에서 ‘더 기아 K4’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현대차기아

기아 EV9이 세계 최고 권위의 자동차 상인 ‘세계 올해의 자동차(WCOTY)’에 선정됐다. 현대자동차그룹은 2022년부터 3년 연속 세계 올해의 자동차로 선정되는 쾌거를 안았다.

현대차그룹은 27일(현지시간) ‘2024 월드 카 어워즈’에서 기아의 대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V9이 ‘세계 올해의 자동차’와 ‘세계 올해의 전기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5 N은 ‘세계 올해의 고성능차’를 수상하며 현대차그룹은 총 3개 부문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로써 현대차그룹은 2020년 텔루라이드 수상을 시작으로 5년간 4차례 세계 올해의 자동차를 수상했다. 특히 2022년 아이오닉 5, 2023년 아이오닉 6에 이어 기아 EV9까지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기반 전기차가 3년 연속 세계 올해

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N 브랜드 최초의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 5 N은 2024 월드카 어워즈에서 BMW M2와 BMW XM을 제치고 ‘세계 올해의 고성능차’를 수상했다. 이로써 현대차는 아이오닉 브랜드 모델로 2022년부터 연이어 월드카 어워즈 수상을 이어가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월드카 어워즈에서 아이오닉 5 N이 최고의 고성능차로 인정받아 영광”이라며 “3년 연속 아이오닉 시리즈로 월드카 어워즈를 수상함으로써 현대차가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리더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기아는 이날부터 열린 ‘2024 뉴욕 오토쇼’에서 신차도 선보였다. 현대차는 ‘더 뉴 투싼’을 북미 시장에 처음 공개했으며 2021년 북미 시장 전략 모델로 출시한 픽업트럭 ‘싼타크루즈’의 부분변경 모델도 선보였다. 기아는 K3 후속 모델인 준중형 세단 ‘K4’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기아는 K4를 올해 하반기 북미 시장에 출시할 예정이다. 다만 K4는 준중형 세단 수요가 줄어든 국내 시장에는 출시하지 않는다. 이민재 기자 2mj@

올해도 킬러문항 없다... 의대 증원·무전공 확대 '변수'

2025학년도 수능 계획 발표

초고난도 문제 없애 변별력 유지
국어·수학 영역 '공통+선택과목'
EBS 출제 연계율 50% 수준으로

11월 14일 실시되는 2025학년도 대학 수능능력시험(수능)에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킬러 문항 출제가 배제된다. 올해는 의대 정원이 2000명 늘어나고 무전공 입학 확대 등 다양한 변수가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감안한 적정 난이도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28일 '2025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교육 과정을 벗어난 소위 킬러 문항을 배제하면서 적절한 변별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수능은 지난해와 같은 체제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문·이과 통합수능 기조를 유지하며, 국어·수학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으로 치러진다.

국어에서는 '언어와 매체'가, 수학에서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28일 서울 강남구 개포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는 '미적분'이 점수 받기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해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가운데, 평가원은 이번에도 선택과목별 평균 점수 등은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오 평가원장은 "선택과목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출제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과학탐구는 사회(9과목)·과학(8과목) 구분 없이 17개 과목 중 2개까지 선택할 수 있다.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다. 한국사는 필

수영역이라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된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다.

킬러문항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철저히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난해 수능은 '킬러문항'을 배제하고도 역대급 난도의 '불수능'이라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오 평가원장은 이에 "지난해 일부 과목이 어려웠다는 평가를 면밀히 분석해

적정 난이도를 확보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현장에서는 킬러문항 정의를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6월 킬러문항을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으로, 사교육에서 문제 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으로 정의했다.

임성호 종로학원대표는 "킬러문항 배제 2년 차인데도 킬러문항에 대한 수험생 입

장에서 명확한 정의가 어렵다"며 "현재까지도 2025학년도 전형계획이 대학별로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라 매우 어려운 입시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실제로 올해 대입은 의대 증원과 무전공 입학 확대와 같은 변수가 많아 최상위권 학생을 가려내는 수능의 '변별력' 확보에 대해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재수생 등 'N수생' 유입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에 오 평가원장은 "공교육 과정에서 출제한다 하더라도 문항은 변별을 위해서 어렵게 또는 평이하게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킬러문항과 문항의 난이도는 분리해서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험실당 배치 인원은 최대 24명에서 28명으로 늘어난다. 코로나19 이전 기준으로 환원하는 것이라고 평가원은 설명했다. 상세한 수능 시행 세부 계획은 7월 1일 발표된다. 수능 원서 교부·접수 변경 기간은 8월 22일부터 9월 3일이다. 성적은 12월 6일 통지된다. 평가원은 올해도 두 차례 모의평가를 시행한다. 6월 모평은 6월 4일에, 9월 모평은 9월 4일에 치러진다.

손현경 기자 son89@

판박이 문항 다 잡아낸다... 수능 이의신청에 '사교육 연관성' 추가

교육부 '수능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

6월 모평부터... 출제자 관리 강화
출제진·사교육간 카르텔 근절 총력

대학수능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부터는 문항의 사교육 연관성이 이의신청 심사기준에 포함된다. 교육 당국은 그간 문항 오류 여부에 대해서만 이의심사를 해왔는데, 사교육 문항과 유사성이 제기된

문항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수능과 사교육 간 유사문항 출제를 방지하고, 수능 출제진과 사교육 간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교육부는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현직 교사들이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급료를 받는다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의혹이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로 확인되

면서 해당 방안을 마련해 6월 모의평가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출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의심사 절차를 보완한다.

사교육 문항과 유사성이 제기된 문항에 대해서는 현직교사로 구성된 '수능평가자문위원회'에서 사교육 문항과 수능 문항 간 유사도, 해당 사교육 문항의 영향력 등을 종합 고려해 시험 공정성 저해 여부를 자문한다. 최종적으로 사교육과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문항의 출제자는 인력풀

에서 즉시 배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수능평가자문회는 9월 모의평가부터 도입된다. 출제진에서 사교육업자는 배제한다. 지난해 9월 모의평가 및 수능에 이어 올해 수능 출제진 선정 시에도 소득 관련 증빙을 통해 사교육 영리행위자는 전면 배제한다.

수능 출제 인력풀을 확충하고 검증 및 관리도 체계화한다. 이를 위해 교육청·대학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출제위원 자격을 갖춘 신규 인력을 대상으로 사전

검증을 거쳐 인력풀에 상시 등록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교육 업체에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해 시중 문제지 및 주요 사교육업체 모의고사 등을 제출받고, 향후 발간 예정인 자료에 대해서도 발간 계획을 제출받아 공식 구매한다. 이를 통해 수능 출제본부 입소 전은 물론이고 입소 후 발간된 자료도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 유사성 검증 자료로 활용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도 개선을 통해 수능 출제진과 사교육 간 카르텔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며 "올해도 킬러문항을 배제하는 '공정수능' 원칙을 유지해 수능의 신뢰도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손현경 기자 son89@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지속가능한 食

우리 먹거리는 어디서 어떻게 올까요?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결망을 잇고,
K-푸드 수출시장과 식품산업의 인프라를 만들고,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을 찾아가자.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촌과 어촌,
우리 식탁을 지속가능하게 연결합니다.

지속가능한 씨앗을 뿌리다 지속가능한 그물을 거두다 지속가능한 식탁을 차리다



한동훈(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8일 서울 마포구 망원역 인근에서 함운경(왼쪽), 조정훈 후보와 함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28일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열린 '정권심판·국민승리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강태웅(가운데) 후보, 홍익표 원내대표와 함께 팔을 들어 울리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국민만 보고 찍어달라”

한동훈, 서울서 유세 강행군

새벽 0시 가락시장서 선거운동 시작
“이재명·조국 범죄자 지배 막아달라”
‘부가세 한시 인하’ 고물가 대책 추진

28일 0시를 기해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꼭두새벽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오전·오후 내내 선거유세 강행군을 이어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신촌점 유프레스에서 이용호 서대문갑 후보 등과 함께 집중유세를 했다. 빨간 스웨터 차림으로 등장한 한 위원장은 유세차량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유세차량 앞엔 선거운동원으로 보이는 대여섯 명의 사람들이 ‘범죄자들에게 대한민국을 맡기겠습니까’, ‘조국 심판! 미래로 갑시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이번에도 둘째칸’이란 문구 바로 밑엔 국민의 미래(국민의힘 위성정당) 투표를 독려하는 사진(기호 4번에 도장이 찍힌 이미지)이 함께 인쇄돼 있었다.

한 위원장은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걱정되십니까. 주변에서 몇 석 몇 석 얘기하면 가슴이 뛰는 거. 그건 방관자들의 얘기. 우리는 문밖으로 나서자”라고 외쳤다. 그는 “국민만 보고 찍어달라(다른) 국민들을 만나서 설명하라”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긴다. 저

를 밀어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과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모두 정당명에 ‘국민’을 포함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겨냥해선 “너무나 명확하다. 이재명·조국 대표는 그 속 내를 숨기지 않는다”며 “우리가 이렇게 편이 많은데 너희들이 어쩔래” 하면서 뻔뻔하게 나온다. 뻔뻔한 범죄자들이 지배하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경제개혁, 민생개혁, 정치개혁을 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선 선결조건이 있다. 범죄자들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세 도중 감정이 격해진 한 위원장은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라며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그는 “제가 (법무부) 장관을 할 때, 어떤 국회의원들이 (저한테) ‘왜 이렇게 정치적이냐’고 말했다”며 “저는 ‘당신은 왜 당신 직업을 비하하냐, 정치인이 직업 아니냐’고 말했다”고 일화를 소개했다. 한 위원장은 해당 일을 언급하며 “정치가 중요하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발언이 격해져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정치 자체에는 죄가 없다”며 거친 단어를 내뱉었다.

신촌 유세를 마친 후에는 용산·성동·광진·동대문구 유세 현장을 순차적으로 돌며 여당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동대문 회기역 사거리 유세에서 고물가 대책의 일환으로 일부 가공식품 등의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전했다. 김은재 기자 silverash@

“尹정권 심판열차 출발”

이재명, 용산역 광장 출정식

‘尹정부 심장’ 용산서 심판 목소리
“151석만 하게 해달라” 지지 호소
임종석과 뜨거운 포옹 ‘원팀’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10 총선을 13일 앞둔 28일, 서울 용산에서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정권심판론’으로 공식 선거운동 첫날의 포문을 열었다.

용산은 대통령실이 위치한 데다 민주당이 4년 만에 탈환을 노리는 지역구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 심판 열차가 국민승리란 최종 목적지를 향해 지금 출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7시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오전 10시 서울 용산 출정식을 중성동구, 동작구 등을 돌며 “1당만 하게 해달라. 151석만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용산역 광장에서 열린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정권심판·국민승리’ 출범식에서 이 대표는 “대한민국을 2년도 안 된 짧은 시간에 이렇게 퇴행시킨 장본인이 바로 윤석열 정권”이라며 거듭 정권 심판을 호소했다.

출정식에는 공동 선대위원장인 홍익표 원내대표, 정청래·서영교·장경태 최고위원과 조정식 사

무총장, 서울 용산구 민주당 강태웅 후보 등이 함께 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2년 내내 국민을 속였다”며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배반한 윤석열 정권에게 이제 주권자가, 민주공화국의 주인이 심판할 때가 됐다. 윤석열 정권 심판이 대한민국 정상화와 민생 재건의 출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1당’, ‘151석 확보’를 강조했다. 출정식 후 강태웅 후보 유세차량에 오른 그는 “민주당은 국민의 압도적 심판 의지를 확실하게 실천하는 유용한 도구가 되겠다”며 “반드시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1당을 해야 된다. 간절한 마음으로 읍소하건대 민주당에 딱 151석만 확보하게 해달라”고 외쳤다.

이날 이 대표는 ‘킷오프’(공천 배제)에 반발해 탈당까지 시사했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공동유세에 나서며 ‘원팀’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대표는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에서 열린 전현희 중성동갑 후보 유세 현장에서 임 전 비서실장과 함께 유세 단상에 올랐다.

이 대표는 “존경하는 임 전 실장이 이 자리에 함께 했는데, 우리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드는 데 모두가 힘을 합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전 비서실장은 유세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했다”고만 말했다. 그는 “오늘 양산으로 내려가 부산·경남 접전지역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정영인 기자 oin@

21대 수도권 ‘3%p 격전지’ ... 이번에도 피말리는 승부

지난 21대 총선에서 1위와 2위의 득표율이 3% 포인트(p) 미만인 수도권 내 지역구 10곳이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박빙의 격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도권 지역구 10곳 중 6곳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으며, 3곳은 더불어민주당이, 1곳은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본지가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 결과를 분석한 결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3%p 이내의 초박빙 승부였던 접전지는 서울 2곳, 경기 5곳, 인천 3곳 등 총 10곳이었다. 서울에서는 용산과 광진율이, 경기에서는 성남분당갑·을, 평택갑·을, 그리고 남양주병이, 인천에서는 동구미추홀을, 중구강화옹진, 연수에서 3%p의 근소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다.

이들 지역구는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치열한 격전을 벌이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접전지 10곳 중 용산·광진을·성남 분당갑·분당을·

초접전 10곳 중 6곳이 여론조사 ‘경합’ ‘강태웅-권영세 리턴 매치’ 서울 용산 ‘안철수-이광재 거물대결’ 성남 분당갑 이번 총선도 ‘예측불허’ 박빙승부 예고 오차범위 밖 우위, 국힘 1곳·민주 3곳

인천 동구미추홀을·연수을 등 6곳은 여야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곳(평택갑·평택을·남양주병)은 민주당 후보가, 1곳(인천 중구강화옹진)은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서울 용산구에서 ‘리턴 매치’ 중인 강태웅 민주당 후보와 권영세 국민의힘 후보는 주요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의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 직전 총선에서 2.55%p 차이로 희비가 갈렸

던 서울 광진을에서도 고민정 민주당 후보와 오신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다. 0.72%p 차로 승패가 결정됐던 경기 성남 분당갑 역시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광재 민주당 후보의 접전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또 다른 격전지인 성남 분당을에서는 김병욱 민주당 후보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였다. 성남 분당을은 지난 총선에서 김병욱 후보가 2.84%p(4045표) 차이로 승리한 곳이다.

경기 평택갑·을과 남양주병에서는 접전을 벌였던 직전 총선과 달리 야당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여당 후보를 앞서고 있다. 반면 10곳의 접전지 중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한 지역구는 인천 중구·강화·옹진뿐이다.(기사에 언급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대한 기자 vishalist@

“가짜뉴스·허위선동 엄중 처벌”

정부, 22대 총선 대국민 담화문

정부가 많은 국민이 참여하고 있는 사전투표 제도가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선거사무에 공무원 참여를 대폭 증원했다. 여러 관계기관과 협의해 사전투표 용지가 우편으로 이송되는 모든 구간에 경찰 호송 인력도 배치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운동 기간 개시일인 2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공명선거를 위한 정부의 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이같이 공동 발표했다.

정부는 △허위사실 공표 및 흑색선전 △공품 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 개입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규정했다.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민 선택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와 허위선동, 그리고 후보자 등을 상대로 한 선거 폭력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숨어 있는 배후까지 밝혀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백익경 기자 ekpark@

韓, 세계국채지수 편입 또 불발... “9월엔 문턱 넘을 것”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국

※ 총 25개국, 런던 증권거래소그룹 산하 FTSE 러셀이 관리

북미(3)	미국, 캐나다, 멕시코
유럽(15)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핀란드, 폴란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포르투갈
아시아 등(7)	일본, 호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스라엘, 중국, 뉴질랜드

한국 편입요건 충족 여부 (현재 관찰대상국)

- ✓ 국채 발행잔액: 액면가 기준 500억달러 이상
- ✓ 신용등급: S&P 기준 A- 이상
- 시장접근성: 2단계-외국인 투자 불면 없음 (충족(한국은 1단계-일부 불면 있음))

※ 출처: 기획재정부



FTSE 러셀 “관찰대상국 유지” GDP 10대국 중 韓·印만 아직 정부, 外人투자 제도개선 추진

WGBI 편입시 국내 국채시장에 외국계 자금 600억弗 유입 기대

우리나라의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또다시 불발됐다. 다만 우리 정부의 외국인 투자자 국채시장 접근성 개선 노력은 인정받아 향후 WGBI 편입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WGBI를 관리하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27일(현지시간)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국채지수 관찰대상국(Watch List) 지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WGBI 편입을 유보한다는 의미다.

FTSE 러셀은 국채 발행 규모, 국가신용등급, 시장접근성 등을 따져 통상 3월과 9월 WGBI 편입 여부를 정기적으로 결정한다. FTSE 러셀은 “한국은 2022년 9월 WGBI 편입 고려를 위한 관찰대상국에 올랐다”며 “한국 정부는 국채 투자자들의 국채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계속 진전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연내 WGBI 편입을 목표로 외국인 투자 제도 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 국채시장 접근성에 대한 확신과 투자 매력도 향상을 위해 글로벌 투자자들과의 소통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인 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과 국제통합계좌 구축 추진 △외국 금융기관(RFI)의 한국시장 참여 허용 △외환시장 제도 개선 등 국채시장 접근성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FTSE 러셀은 제도시행과 관련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실무적인 제기 사항 및 의견도 적극 반영하는 등 한국 정부의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 이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가 올해 9월에는 편입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이 나온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0대국가에 WGBI에 편입되지 않은 나라는 한국과 인도뿐이다. 인도 역시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WGBI에는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등 주요 25개국 국채가 편입돼 있으며, 추종 자금은 약 2조5000억 달러(3300조 원대)로 추산된다. 우리나라 국채가 WGBI에 편입되면, 이들 외국계 자금이 국채시장에 유입되고 국채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이와 관련해 FTSE 러셀은 “올해 9월 국가분류까지 한국 채권시장의 긍정적인 개선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리츠증권에 따르면 WGBI 편입 시 국내 국채 시장에 600억 달러(약 80조 원)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스위스는 이번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에서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신용등급 하락으로 2012년 WGBI에서 제외된 포르투갈은 이번에 재편입됐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한 번이라도 자살생각”한 국민 14.7% ‘가정생활·경제적 어려움’이 주된 이유

복지부 ‘2023 자살 실태조사’

2018년 18.5%보다 3.8%p 감소
女 “해본 적 있다” 男보다 3.2%p ↑

10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적 어려움이 자살 생각을 하게 된 가장 주된 이유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3 자살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복지부는 ‘자살 예방·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근거해 5년마다 자살 실태를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2013년, 2018년에 이은 세 번째다. 지난해 8월 25일부터 10월 8일까지 성인 28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살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와 지난해 자살을 시도해 응급실을 방문한 3만 665명을 분석한 통계로 구성돼 있다.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생 한 번이라도 자살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14.7%였다. 2018년 같은 조사의 18.5%와 비교해 5년 새 3.8%포인트(p)

감소했다. 여성의 응답률이 16.3%로 남성의 13.1%보다 높았다.

자살을 생각하게 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44.8%·복수 응답)’, ‘가정생활의 어려움’(42.2%), ‘정서적 어려움(19.2%)’ 순이었다. 자살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 중 41.1%는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었고, 7.9%는 전문가와의 상담 경험이 있었다.

자살 생각이 있지만 상담받지 않은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 같아서’(23.9%),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서’(23.1%),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17.2%) 순이었다.

자살 시도자 성별은 여성이 1만 9870명(64.8%)으로 남성(1만 795명·35.2%)의 약 1.8배였다. 자살 시도자의 연령대는 19~29세 9008명(29.4%), 18세 이하 4280명(14.0%) 등 30세 미만이 약 43%를 차지했다. 30~39세는 4251명(13.9%)이며 청소년과 20~30대가 자살 시도자의 57%에 달한다. 이어 40~49세 4117명(13.4%), 50~59세 3603명(11.7%) 등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홍술족 부르는 ‘酒총회’

28일 한 시민이 롯데마트 김포공항점에서 다음 달 17일까지 진행되는 주류 할인 행사 ‘주주(宙酒)총회’ 코너를 살펴보고 있다. ‘주주총회’는 와인 중심 행사에서 벗어나 위스키, 증류식 소주 등 다양한 주종과 주류용품까지 망라해 1000여종의 상품을 선보인다. 샴페인 ‘마크 에브리 셀렉션 브뤼’는 옐로포인트 적립 시 25%를 할인해주고 오비마 와인으로 유명한 미국 브랜드 ‘덕혼 디코이’는 30% 이상 저렴하게 판매한다. 연합뉴스

“인턴 합격자, 기간내 등록 안하면 수련 불가”

정부, 내달 2일까지 등록 촉구 전공의 유연한 처분엔 ‘협의 중’ 보조수당 100만원 등 ‘당근책’도



정부는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전공의의 경우 4월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을 마쳐야 상반기 중 수련이 가능하다고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분만·응급 등 필수 의료 전공의에게 매월 100만원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등 ‘당근책’도 제시했다.

전병왕(사진)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8일 중수부 브리핑에서 “전공의 여러분께서는 이달 안에 수련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실장은 “특히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은 4월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할 것을 안내한 바 있다”며 “이 기간 안에 임용 등록이 되지 못하면 올해 상반기 인턴 수련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경우 9월부터 시작하는 하반기에 인턴 수련을 시작하거나, 내년 3월에 인턴 수련을 시작해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공의에 대한 ‘유연한 처분’에 관해서는 여전히 당정 협의 중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전 실장은 “유연한 처분의 수준은 당정이 협의 중”이라며 “그안에 복지부가 (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바로 하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처분 대상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조기 복귀를 촉구했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원과 함께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전년도에도 전공의 수련 내실화와 처우 개선 등을 담은 내년 5대 재정사업 발표를 발표했다.

우선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전

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근무시간은 36시간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2026년 2월 시행되지만, 올해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 참여 병원에는 사업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2025년 전공의 정원 배정 등에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1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한 뒤 결과를 평가해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을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전 실장은 “수련 환경 개선은 그동안 의료현안협의체나 여러 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전공의 이탈 이후로는 대화가 어려운 상황이라 관련 논의가 더 구체화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급한 건(주 80시간 근무)보다 36시간 연속근무”라며 “수련이 제대로 되도록 제도가 바뀌고, 의료 인력도 배출되면 이런 문제는 완화되거나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직장인 평균대출 5115만원... 고금리에 첫 감소

29세 이하 대출액 가장 많이 줄어

대출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직장인들의 평균 대출 잔액이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연체율은 4년 만에 올랐다. 특히 29세 이하 근로자들의 연체율이 역대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통계청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기준 임금근로자의 대출 잔액은 평균 5115만 원으로 전년보다 1.7% (87만 원) 줄었다. 임금근로자 평균 대출액이 줄어든 것은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7년 이후 처음이다.

대출 감소엔 금리 상승이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리가 오르면서 신규 대출이 줄고 소액의 대출은 갚았다는

것이다. 실제 임금근로자의 대출 증감액은 5000만 원으로 0.5% (26만 원) 올랐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 신용대출이 1301만 원에서 1222만 원으로 6.0% (79만 원) 감소해 대폭 줄었다. 신용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 반면 주택담보대출은 1965만 원으로 0.6% (12만 원)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29세 이하 근로자의 대출액이 평균 1615만 원으로 4.5% (76만 원) 감소해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이 줄었다. 금리 상승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고 신용대출 비중이 높은 청년층에 영향을 많이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22년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이 강화된 점도 전체 대출 감소의 배경으로 꼽힌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엘런 “中 전기차가 시장 왜곡... 내달 방중 때 논의”

〈美 재무장관〉

“중정부 지원으로 과잉투자·생산
美 기업뿐 아니라 전 세계 피해”
USTR·의회선 관세 인상 검토

미국 정부와 의회가 값싼 중국산 전기자동차가 자국에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재닛 엘런 미국 재무장관이 내달 중국 방문 시 전기차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엘런 장관은 조지아주의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 서니바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중국의 산업 설비 증설이 세계 경제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니바는 저렴한 중국산 제품이 쏟아지면서 2017년 문을 닫았던 업체로, 이번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을 받으면서 공장을 재가동하게 됐다.

엘런 장관은 “과거 철강 등 부문에서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과잉 투자와 생산 현상이 발생했다”며 “현재는 전기차 같은

미국 정부·의회의 중국산 전기차 억제 움직임

※ 출처: 나혼게이자신문

조 바이든 대통령	미국 무역대표부 (USTR)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
국가안보 위협 될 가능성	대중 징벌적 관세 인상하는 쪽으로 재검토	중국 업체가 멕시코서 생산한 자동차에도 100% 관세	관세율 125%로 상향 방안 발의, 1대당 약 2만달러 추가 관세 방안 발의



재닛 엘런 미국 재무장관이 27일(현지시간) 조지아주 노크로스에 있는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 서니바 공장을 방문해 연설하고 있다. 노크로스(미국)/AFP연합뉴스

신산업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가격과 생산 질서를 왜곡해 미국 기업과 노동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유럽에서도 같은 문제에 우려하고 있다”고 강

조했다. 지난해 10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정부 보조금이 중국 업체들에 불공정한 이익을 가져다줬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유럽에서 현재 10% 수준인 수

입차 관세를 25%까지 올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엘런 장관은 “우리는 중국과의 이전 논의에서 과잉 생산 문제를 다뤘다”며 “이번에도 중국 방문 시 해당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무역 보복까지는 가고 싶지 않다”며 “중국이 우리가 우려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설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엘런 장관은 다음 달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지난해 7월에 이어 두 번째 방중이다.

중국산 전기차 유입을 막기 위한 정부와 의회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현재 미국은 중국산 자동차에 27.5%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관세율을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에서도 중국산 자동차 수입 규제와 관련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공화당 소속의 조시 홀리 상원의원은 지난 달 말 중국산 자동차 관세율을 125%까지

올리자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같은 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이달 중국산 자동차 1대당 2만 달러(약 2700만원)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나왔다. 세로드 브라운 상원의원은 7일 “저렴한 중국산 전기차가 유입되면 수천 명의 미국인이 일자리를 잃고 미국 자동차 산업 전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정부에 관세 인상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맞붙는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정책은 미국 시장에 중국산 자동차를 넘겨나게 할 것”이라며 “국가 안보에 위협할 수 있다”고 언급해 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재선에 성공할 경우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가 멕시코에서 생산한 차량에 관세율 100%를 적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전아현 기자 cahyun@

이스라엘, 가자 공격 한걸음 물러섰다

라파 공격 계획 美와 협의하기로
유엔 휴전 요청에도 공습은 계속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 라파 공격에 강경한 태도를 내비쳤던 네타냐후 내타나후 이스라엘 총리가 한 걸음 물러났다. 이곳에서의 공격 계획을 놓고 미국과 협의하기로 했다.

27일(현지시간) 미국 인터넷 매체 약시오스에 따르면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네타냐후 총리실은 라파 관련 회의 일정을 변경하는 데 합의했다”며 “편한 날을 잡기 위해 그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라파에 관한 논의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네타냐후 총리실은 총리가 아직 대표단의 출국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미국과의 재논의를 부정하지는 않았다고 약시오스는 설명했다.

앞서 이스라엘은 2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미국이 ‘즉각적인

휴전’이 포함된 휴전 결의안에 거부표가 아닌 기권표를 던지자 항의 차원에서 대표단의 방미 계획을 철회했다. 결의안은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거부했다면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에 유리한 결의안이 통과된 탓에 하마스가 자신들과의 협상을 거부했다고 반발했다.

이후 미국 정부에선 네타냐후 총리의 결정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취소는 놀랍고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아랍계 미국인을 중심으로 휴전 압박이 거세지는 만큼 언제까지 친 이스라엘 정책만 고수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이스라엘이 다시 테이블에 돌아오면서 휴전에 대한 기대감도 이어가게 됐다.

한편 이스라엘은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한 후에도 가자지구 공습을 이어가고 있다. 고대영 기자 kodae@



日 사람 잡는 건강보조식품 파문

일본 오사카에서 28일 고바야시제약의 연례 주주총회가 열린 가운데 주주들이 회의장에 들어가고 있다. 고바야시제약은 이날 자사의 ‘홍국(붉은 누룩)’ 성분 함유 건강보조식품을 섭취한 뒤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4명으로 늘었으며 입원 중인 환자는 106명이라고 밝혔다. 쌀 등을 발효시켜 만드는 붉은 누룩은 콜레스테롤 분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신장질환을 유발하는 ‘시트리닌’이라는 곰팡이 독소를 생성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를 요한다. 오사카(일본)/AFP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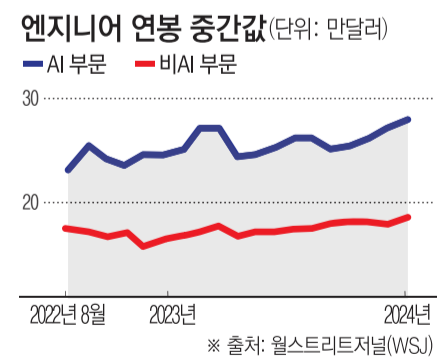
AI 인재 쟁탈전... 아마존, 스타트업 한곳에 40억弗 투자

‘오픈AI 대항마’ 엔스로픽과 협력
IT 출해고에도 AI 부문은 구인난
고액 제안부터 팀 전체 영입 확산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AI) 열풍에 미국 실리콘밸리 인재 싸움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은 ‘오픈AI’의 대항마로 꼽히는 스타트업 엔스로픽에 자사 최대 규모 벤처 투자를 단행했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최근 실리콘밸리에서는 생성형 AI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재를 모시기 위해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연간 수백만 달러의 연봉 패키지와 주식 보상은 물론, 엔지니어링 팀 전체를 영입하겠다는 제안까지 꺼내 들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전문인력을 스



카우트하기 위해 고액의 연봉과 특전을 제공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지만, 이러한 제안들은 상대적으로 몸값이 높다고 여겨 지던 기술업계에서도 두드러지는 수준이라고 WSJ는 전했다.

특히 이러한 AI 인재 영입 전쟁은 최근 다른 기술 분야에서 해고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지면서 더욱 대비되고 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인재 풀은 넓지만, 대규모 언어모델(LLM) 등 AI 관련 전문 인력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

다. 최상위급 AI 인재의 경우 100만 달러 이상의 연봉 패키지를 쉽게 받을 수 있을 정도다.

데이터관리 신생기업 데이터브릭스의 나빈 라오 생성형 AI 부문 수석은 “우리가 추구하는 인재상에 장기적인 변화가 생기고 있다”며 “한쪽에서는 인재가 넘쳐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인재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술 대기업들의 AI 군비 경쟁도 가속하고 있다. 아마존은 지난해 9월 12억 5000만 달러를 투자한 데 이어, 이날 27억 5000만 달러(약 3조 7000억 원)를 추가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 투자액은 40억 달러로 아마존이 한 스타트업에 투자한 금액으로는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2021년 설립된 엔스로픽은 오픈AI의 챗GPT와 경쟁하는 ‘클로드’를 제공하고 있으며 구글도 이 업체에 투자하고 있다. 변효선 기자 hsyun@

미국인 47% “틱톡 금지하거나 매각해야”

바이든, 지지층 미온적 반응에 고민

미국인의 약 절반이 틱톡을 금지하거나 매각하는데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틱톡 강제 매각을 지지해온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지근한 유권자들의 반응에 난감하게 됐다.

27일(현지시간) CNBC방송이 미국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전 국민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0%는 ‘무슨 일이 있어도 틱톡을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다른 27%는 ‘중국 이외의 회사에 판매되지 않는 한 금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체 47%가 틱톡 금지나 매각을 지지한 것이다.

앞서 미 하원은 틱톡 강제 매각 법안을

발의했다.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처분하지 않을 시 틱톡의 앱스토어 등 록을 금지하는 법안으로, 앱스토어 퇴출은 사실상 미국 내 사용금지를 의미한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원의 40%, 공화당원의 60%가 금지나 매각을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금지를 지지하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대하는 것과 사뭇 다른 결과다.

특히 생각보다 틱톡 규제가 저조한 민주당 지지자들의 반응은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에게 더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고 CNBC는 짚었다. 게다가 틱톡을 금지해선 안 된다는 응답률도 30%에 달하는 등 이 문제에 대한 미국 내 의견은 분분한 상황이다. 고대영 기자 kodae@

김준 부회장 “SK온 상장, 늦어도 2028년까지 마무리”

SK이노베이션 정기 주주총회

김준 SK이노베이션 부회장이 늦어도 2028년까지 SK온 기업공개(IPO)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SK온 상장 계획을 묻는 주주 질의에 “외부 투자자를 유치하면서 약속한 IPO 시점이 2027년 말인데 상황에 따라 1~2년 정도는 투자자들과 협의해 상장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늦어도 2028년 이전에는 상장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2026년 이전이라도 시장에서 충분히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면 조속히 IPO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최근 주가가 부진한 것과 관련해 김 부회장은 “주주들의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시장가치 인정받으면 조속상장 주주기대 못미치는 주가 최종 주주가치 제고에 최선 다할 것”

사내이사 선임된 박상규 사장 “소사업 영역 전면적 체질개선”

수준에 있다는 점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 자리에서 최근 사주 전망 소감을 결정한 데 이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사업 성과 확대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주총에서는 박상규 총괄사장과 강동수 전략재무부부장을 사내이사로, 장용호 SK(주) 대표이사를 기타비상무이사로 각각 신규 선임했다. 사외이사는 백복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와 이지은 전



김준 SK이노베이션 부회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제17회 정기주주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대표가 선임됐다.

또 △배당액을 먼저 확정하고 후에 배당 기일을 정하도록 한 정관 일부 개정 △재무제표 승인 △임원 퇴직금 규정 개정 안건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박 총괄사장은 “올해는 점증하는 대외 환경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전체 사업 영역의 전면적인 체질 개선으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겠다”며 “이러한 내실 다지기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총 이후 진행된 ‘주주와의 대화’ 자리에서도 주가 하락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강동수 전략·재무부부장은 “석유나 운할원에서 좋은 현금 흐름을 만들고 있으나 주가 반영이 제대로 안 되고 현실적으로 이차전지(배터리)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전기차 수요가 잠시 주춤한 상태지만 적어도 내년에는

금리 인하와 맞물려 전기차 시장 회복, SK온 수익성 개선, 주가 회복을 기대 중”이라고 설명했다.

SK온의 흑자 전환 시점과 관련해 김경훈 SK온 최고재무책임자(CFO) 부사장은 “2024년 하반기를 타깃(목표)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반기에는 중국과 헝가리 등 신규 공장 가동에 따른 수출 저하와 전기차 수요 둔화 등으로 수익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김 부사장은 “하반기에는 전기차 수요 성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석희 SK온 사장은 “고객 요구에 선제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해 리더십을 강화하고, 미국 합작법인(JV) 공장 가동과 원가 절감 노력을 통해 외형적 성장과 수익성 위주 질적 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viajeporlune@

〈부회장〉

삼성전자 상생협력데이... 한종희 “협력사와 자동화·무인화 미래 대비”

주요 경영진·202개 회원사 참석 동반성장 의지 다지며 소통·협력 혁신 우수 협력회사 34곳 시상

“올해도 경영환경이 녹록치 않지만 품질 관련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정비해 나가고 미래 트렌드를 명확히 파악하여 고객에게 그 가치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니다.”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28일 수원 라마다 호텔에서 협력회사협의회(협성회)회원사들과 함께 ‘2024년

상생협력 데이(DAY)’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부회장은 “앞으로의 제조현장은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의 등장에 따라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의 제조역량을 확보한 기업들이 무한 경쟁력으로 앞서 나가는 시대가 될 것”이라며 “협력회사도 이를 위한 자동화, 무인화 등 미래를 대비하는 해안을 바탕으로 지속성장의 기반을 확보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한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주요 경영진과 함께 김영재 협성회 회장(대덕전자 대

표)을 포함해 202개 회원사 대표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상생협력데이는 삼성과 협력회사간 서로 소통하고 격려하며 동반성장 의지를 다지는 자리다. 2012년부터 협성회 정기총회, 우수 협력회사 포상 등의 내용으로 진행돼 왔다.

김영재 협성회 회장은 “AI혁명의 시대, 변화만이 살길”이라며 “어느 때보다 어려운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 1차 협력회사가 이뤄 온 상생 활동의 결실들이 2~3차 협력회사에도 이어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서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한해 동안 기술·품질 혁신, 생산 혁신, 기술 국산화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혁신 우수기업 26개사 △ESG 우수기업(환경, 준법, 공정 거래) 8개사 등 총 34개 협력회사를 시상했다.

삼성전자에 휴대폰 케이스를 납품하는 ‘인탑스’는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동 조립 공정을 무인 자동화 라인으로 교체했고, 제품 외관 검사에 AI를 활용해 품질을 향상 시키는 등 생산공정 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혁신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을 수상했다.

삼성디스플레이에 폴더블 디스플레이 패널 구동에 필요한 연성회로기판을 납품하는 ‘에스아이플렉스’는 생산 수율에 영향을 주는 오염 물질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개발하며 효율적인 품질 관리가 가능한 자동화 시스템 구축 성과를 인정받아 혁신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휴대폰에 들어가는 주파수 변환 부품을 납품하는 ‘와이솔’과 반도체용 특수 가스를 납품하는 ‘후성’이 ESG 특별상을 수상했다. 송영록 기자 syr@



여의도 LG트윈타워가 1987년 완공 이후 처음인 저층부 공용공간 리모델링을 마치고 내달 1일 새롭게 태어난다. 리모델링 시작 1년 2개월 만에 로비와 아케이드 등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에 해당하는 공용공간을 전면 탈바꿈했다. LG는 저층부 공용공간을 리모델링 후 ‘커넥트윈(Connectwin)’으로 명명했다. 사진은 LG 직원들이 LG트윈타워 저층부 공용공간 ‘커넥트윈’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 사진제공 LG

한·일 경제단체 “저출산·지역소멸 해법 모색”

한경협·日경단련 합동 세미나 개최

대한민국과 일본 대표 경제단체의 싱크 탱크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 모색을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28일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국경연)은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일본경제단체연합회 산하 21세기정책연구소와 함께 ‘저출산과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 한·일 경험과 비교’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경연 원장은 “저출산은 노동력과 구매력 감소,

경제 성장 둔화, 사회 보장 체계의 부담가중으로 이어지며 지역소멸은 국토의 균형 발전 저해, 지역 공동체의 붕괴 등 부정적 영향을 가져온다”고 밝혔다.

마스다미키토 고마자와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 차원의 결혼지원 제도, 양성평등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김용근 포스코 그룹장은 임직원의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한 16개 사내 가족·출산·친화 제도들을 소개했다. 조옥근 롯데그룹 수석은 “아빠에 대한 육아 휴직 등의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동욱 기자 toto@

실적 날개 단 항공업계... 임금 수준 코로나 이전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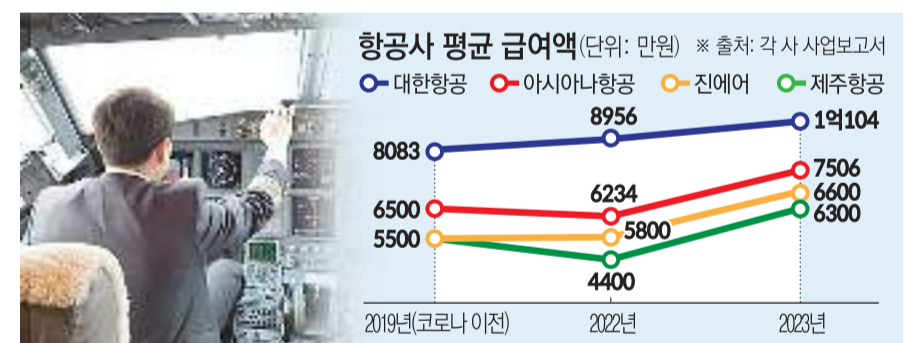
여객 정상화에 대한항공 1억 돌파 임금상승률은 제주항공 43% 최고 6개 상장사 중 에어부산 회복 못해

국내 항공사들의 임직원 평균 연봉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객 수요가 늘어나면서 항공사들의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28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등 주식시장에 상장된 항공사 6곳의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에어부산을 제외한 5개 항공사의 지난해 직원 1인 평균 급여액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사별로 보면 지난해 대한항공의 직원 평균 연봉은 1억104만 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8956만 원에서 12.8% 오르며 항공사 중 최초로 직원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넘었다. 2019년 8083만 원보다 25.4%가량 늘어난 규모다.

대한항공의 직원 평균 연봉 급여액이 증가한 것은 호실적에 따라 성과급 규모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성과급으로 기본급의 300%를 지급했다. 올해에는 기본급의 407%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평균 급여액



도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의 평균 임금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직원 1인 평균 급여액은 7506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4% 늘었다. 2019년 6500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000만 원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아시아나항공의 2023년 임금인상률은 아직 노사 협의 중으로 지난해 임금에 반영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지난해 평균 임금이 전년 대비 20% 이상 늘어난 것은 무급 휴직이 종료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저비용 항공사(LCC)들의 직원 평균 임금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제주항공의 지난해 직원 평균 급여액 상승률은 43.2%로 6개 항공사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평균 연봉은 6300만 원으로 2019년 5500만 원보다 800만 원가량 늘었다.

티웨이항공은 지난해 직원 1인 평균 급

여액이 5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9.0% 늘었다. 2019년 5400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00만 원 늘어난 규모다. 티웨이항공 측은 “2022년에는 일부 휴직 인원이 있었으나 지난해 전 직원 근무가 정상화되면서 평균 임금이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의 자회사 진에어의 지난해 평균 임금은 6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8% 늘었다. 2019년 5500만 원보다는 1100만 원 늘어난 수준이다.

다만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에어부산은 6개 항공사 가운데 유일하게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평균 임금은 5100만 원으로 전년보다는 30.8% 증가했으나 2019년(5900만 원)과 비교하면 여전히 13.6%가량 적다. 에어부산은 2019년 이후 5년째 임금이 동결된 상태다.

강문정 기자 kangmj@

9000억 규모 벤처펀드 선정... “하반기 투자 회복 기대”

중기부 모태펀드 출자 사업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의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 사업 벤처펀드 선정이 끝났다. 12개 분야 9000억 원 규모 벤처펀드는 올해 상반기 내 결성을 추진해 하반기 본격 투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2024년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 사업의 벤처펀드 선정을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출자사업은 4463억 원을 출자해 46개 펀드 8935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선정했다.

이번 벤처펀드는 3개월 내 결성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해 대부분 펀드가 상반기 내 결성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하반기부터 이펀드들이 본격적으로 투자에 나서면서 올해 벤처투자 회복세를 가속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분야별 선정 결과를 보면 신생·소형 벤처캐피털 전용 ‘루키리그’가 10개 펀드, 2113억 원 규모로 선정됐다. 올해 중기부 모태펀드 출자예산 9100억 원의 13%인

올해 상반기 내 결성 추진

출자예산의 13% 루키리그 배정 중점 투자지역도 고르게 안배 ‘지역혁신벤처펀드’ 신규 조성

1220억 원을 루키리그에 배정했다. 루키리그 선정 펀드 투자분야는 △100대 생활업종 관련 제조·판매·유통·서비스 및 이를 지원하는 디지털 인프라·IP·미디어 기업 등 △케어테크 제품·서비스 기업 및 기반기술 보유기업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기업이다.

비수도권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신설된 ‘지역 창업초기’, ‘라이콘’ 분야도 뜨거운 관심 속에 최종 운용사가 선정됐다. 창업기획자, 기술주회사 등이 지역 초기 창업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지역창업초기 펀드’는 8개 펀드, 362억 원 규모로 선정됐다. 특히, 충남, 대전, 전북, 광주·전남, 부산, 울산, 경북, 제주 등 각 펀드의 중점 투

2024년 모태펀드 1차 정시 분야별 선정 결과 (단위: 억원, 개)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분야	최종 선정		펀드 수	주목적 투자분야
	모태출자	결성예정		
루키리그	1220	2113	10	도전적 투자 대상·방식을 자율 제안
지역창업초기	200	362	8	지역 소재 초기 창업기업
라이콘	150	250	5	지역 소재 기업가형 소상공인
지역AC세컨더리	100	185	2	지역 소재 창업기획자 등의 구주 인수
창업초기	800	1437	6	창업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
스케일업·중견도약	500	1250	2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 중소·벤처기업 등
청년창업	390	650	3	청년 창업기업
여성기업	100	200	1	여성기업
재도약	300	500	2	재창업 기업, 사업전환·사업재편 기업 등
임팩트	200	334	2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기업 등
소재부품장비	200	555	2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벤처기업
지역혁신벤처펀드	303	1100	3	지역 소재 혁신기업 등
계	4463	8935	46	

지역이 전반적으로 고르게 안배돼 투자 사각지대 보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이콘 펀드’는 의·식·주 등 생활문화 분야에서 혁신적 사업모델을 창출하고 성장을 지향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출현에 힘입어 소상공인 전용 펀드로는 최초로 신설된 분야로, 5개 펀드, 250억 원 규모로 선정됐다. 이 밖에 스타트업의 성

장단계별 투자 목적인 ‘창업초기 펀드’와 ‘스케일업·중견도약펀드’가 각각 1437억 원, 1250억 원 규모, ‘지역AC세컨더리 펀드’도 185억 원 규모로 선정됐다.

‘청년창업 펀드’ 650억 원, ‘여성기업 펀드’ 200억 원, ‘재도약 펀드’ 500억 원도 선정해 정책적 육성 필요 영역에 마중물을 지속 공급한다. 재무적 성과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임팩트 펀드’ 334억 원, 소재·부품·장비 분야 우수기업에 투자하는 ‘소재부품장비 펀드’ 555억 원도 조성에 전략 분야에 대한 투자를 이어나간다.

‘지역혁신벤처펀드’ 신규 조성 지역으로 부산, 경북·전남(연합), 경남의 3개 모펀드가 선정됐다. ‘지역혁신벤처펀드’는 모태펀드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으로 조성해 지역 소재 혁신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펀드이다. 신규로 선정된 3개 모펀드는 모태펀드가 579억 원을 출자해 약 2100억 원 규모로 결성되며, 모펀드를 통해 약 3000억 원 규모의 자펀드가 결성될 예정이다.

오영주 장관은 “지나해 국내 벤처투자는 분기별 실적이 지속 개선하면서 글로벌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며 “이번 출자사업으로 선정된 9000억 원 규모 벤처펀드가 상반기 내 결성되고 하반기에 본격적인 투자에 나서 이러한 투자 회복세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남호 기자 spdran@



하넥스 신제품 중 캐스케이드 카멜.

사진제공 현대L&C

현대L&C ‘하넥스’ 신제품 출시

(인조대리석 브랜드)

현대L&C가 인조대리석 브랜드 ‘하넥스’의 신제품을 대거 출시하며 제품군 확대에 나선다.

현대백화점그룹 종합 건자재 기업인 현대L&C는 인조대리석 브랜드 하넥스의 신제품 11종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현대L&C에 따르면 하넥스는 MMA(메틸메타아크릴)계 인조대리석으로 자재 간 이음매가 없어 깔끔한 시공이 가능하다. 가공이 쉬워 자연스럽고 곡면을 표현할 수 있다. 출시 이

색상을 적용했다. 밝은 느낌의 ‘캐스케이드푸어 그레이’, 모던한 인테리어에 잘 어울리는 ‘캐스케이드도브 그레이’, 베이지 색상의 ‘캐스케이드 카멜’, 리넨의 멋을 인조대리석으로 재해석한 ‘린넨 화이트’ 4종이다.

‘콘크리트 시리즈’는 인테리어 트렌드인 인더스트리얼 무드를 연출할 수 있는 6개 제품으로 구성된다.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코튼·미스틱·멜린지 콘크리트와 무게감 있는 느낌의 빈티지·클래식·다크 콘크리트 등이다.

총 11종... 상업시설 건축 마감재로 주목 ‘캐스케이드 베인’ 시리즈 인기제품 부상 세계 인테리어 기업·가공사 러브콜 쇄도

후부터 주방 상판뿐만 아니라 병원, 학교, 박물관 등 다양한 상업시설의 건축 마감재로 주목받았다. 무공질 자재로 내오염성과 방수성이 우수하고 위생성이 뛰어나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하넥스 신제품은 크게 △캐스케이드 베인 △콘크리트 △업사이클테라 조라는 3가지 시리즈, 11개 세부 디자인으로 구성된다.

‘캐스케이드 베인 시리즈’는 자연 풍경 속 흐름을 형상화한 하넥스의 베스트셀러 시리즈다. 특히 이번 캐스케이드 베인의 신제품은 나뭇결(vein) 무늬에서 영감을 받은 은은한 패턴에 아이보리와 라이트 그레이

‘D-테라조’는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자투리 하넥스 제품을 다시 분쇄해 만든 ‘리사이클 칩’을 사용해 재생산한 친환경 제품이다. D-테라조는 지난해 테스트 제품이 국내 디즈니 스토어 인테리어에 시범 적용돼 눈길을 끌었다.

현대L&C는 탄탄해진 제품군을 바탕으로 신축 상업시설에 대한 영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미 국내외 많은 백화점, 사옥, 공항 등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위생성 강화로 병원과 약국 등의 문의가 많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지난달엔 미국과 인도의 대형 건자재 박람회에서도 하넥스를 활용한 원형 인포메이션 센터와 곡선 형태 벽면 등을 구현해 글로벌 인테리어 기업과 가공사들로부터 신규 계약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5G 중저가요금 621만명… 年 5300억 통신비 절감 기대”

정부 '통신비 완화' 성과 발표

'7만원 이상' 이용 53%→41%
'무제한요금' 가입자도 15%p ↓
3차례 걸친 요금제 개편 성과

“중저가 단말기·제4이통 지원 등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추가 노력”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의 일환으로 신설된 중저가 요금제에 가입한 인원이 전체 가입자의 19% (621만 명)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속도로 가입자가 계속 늘어난다면 장기적으로 가계통신비가 연간 최대 5300억 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중저가 단말 출시와 제4이통사 및 알뜰폰 지원을 통해 추가적인 가계통신비 인하를 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3만 원대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 등 그동안 통신비 인하 정책 추진내용과 성과를 정리한 '가계통신비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효과 (절감 효과 : 가계통신비 연간 5300억원 절감)

신설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 621만 명 돌파... 5G 전체 가입자의 19%	
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 감소	24 → 18%
4만원대 이하 저가 요금제 가입자 증가	11 → 23%
7만원대 이상 고가 요금제 가입자 감소	53 → 41%
신설 중간 요금제 가입자 증가	11 → 17%

향후 계획 - 단말기 유통법 폐지
- 통신요금 종합정보 포털 고도화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 제4이동통신 지원... 기존 통신사망 공동이용 및 자체망 구축
- 알뜰폰 지원... 도매제공의무제도 상설화

※ 출처: 과기정통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정책성과 및 향후 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정부는 5G요금제를 개편해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체계로 개선하고 국민의 단말 구입비용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부담 완화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요금제 개편에 따라 불필요하게 고가,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했던 이용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제로 변경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1400만 명 이상의 국민에게 연간 5300억 원 수준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7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 이용자 비중은 53%(2022년 6월 기준)에서 올해 2월 41%로 대폭 감소했다. 같은 기간 5만 원

대 요금제 가입자는 같은 기간 24%에서 18%로 줄어들었다.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비중도 46%에서 약 14.7%포인트(p) 감소하는 등 비효율적 통신 과소비에 대폭 개선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3차례에 걸쳐 고가 중심 5G 요금제를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해 4만 원대 중후반이었던 5G 요금 최저구간을 최대 1만 원 낮추고 청년·고령층·알뜰폰·온라인요

금을 신설하며 통신 시장의 요금경쟁을 이끌었다. 특히 3차 요금제 개편에서는 국민 대다수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서비스를 이용 중인 상황에서 5G 요금제가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OTT 할인 혜택을 강화해 OTT 구독료 부담을 경감시켰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OTT 할인 혜택을 추가한 배경에 대해 “서비스 요금이 산업 발전의 거름이 된다 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국민이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기통신사업법상 정부의 책무”라고 설명했다.

단, OTT 요금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가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추진 중인 ‘디지털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고 있으나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요금제 인하에 이어 중저가 단말 출시 및 신규 통신사업자인 스테이지엑스의 시장 진입과 경쟁력 있는 알뜰폰 사업자의 성장 지원 등 경쟁 구조 개선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이동통신사업자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존 통신사망 공동이용, 자체망 구축, 단말 조달·유통 등의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류 실장은 “5월 4일까지 스테이지엑스가 원만하게 기간통신사업자 등록할 수 있도록 상황 관리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저가 단말기를 지속해서 다양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제조사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작년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총 4종의 중저가 단말이 출시됐으며 6월까지 2종이 추가로 출시될 예정이다.

김나리 기자 nari34@

맞 올린 정신아號... 카카오, 경영쇄신·AI혁신 드라이브

카카오가 28일 주주총회·이사회를 열고 '정신아호' 맞을 올렸다. 3개월 넘게 내정자 신분이었던 정신아(사진) 대표가 공식 취임하면서 경영 쇄신과 인공지능(AI) 사업 혁신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내정된 정 대표는 그동안 카카오 쇄신TF장, CA(Corporate Alignment)협의체 공동의장 겸 전략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카카오의 쇄신방향성 설정과 세부 실행 방안 수립에 매진했다.

카카오는 이날 본사인 제주도 소재 카카오 스페이스닷원에서 주총을 열고 정 대표의 사내이사 선임안을 처리했다. 이후 소집된 이사회는 정 대표를 차기 대표이사로 공식 선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

정 대표는 취임과 동시에 △경영쇄신 및 조직안정화 △주가 부양 △인공

지능(AI) 기술 역량 확보 등 해결할 과제가 많다.

카카오는 현재 다양한 사법리스크 등으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놓여있다. 카카오의 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김범수 위원장 역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를 대상으로 분식회계 혐의로 대표이사 해임 권고과 함께 검찰 고발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같은 논란이 이어지자 카카오는 경영쇄신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나, 회전문 인사 논란이 일며 인적쇄신에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금감원의 해임 권고에도 27일 카카오모빌리티는 류금선 대표이사를 재선임했다. 최근 카카오의 최고기술책임자(CTO)에 카카오뱅크 상장 직후 스톡옵

선임안 주총 통과... 임기 2년 차경진·함춘승 새 사외이사에 정신아 “카카오만이 할 수 있는 AI서비스 개발, 성장동력 확보”



션 행사로 거액의 차익을 거둔 임원 중 한 명인 정규돈 전 카카오뱅크 CTO가 내정돼 회사의 쇄신 의지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카카오의 준법·윤리 경영 감시를 위한 외부 기구인 '준법과 신뢰위원회'는 지난 14일 최근 일부 경영진 선임과 관련해 발생한 평판 리스크를 해결할 방안과 앞으로 유사 평판 리스크를 예방하고 관리할 방안의 마련을 권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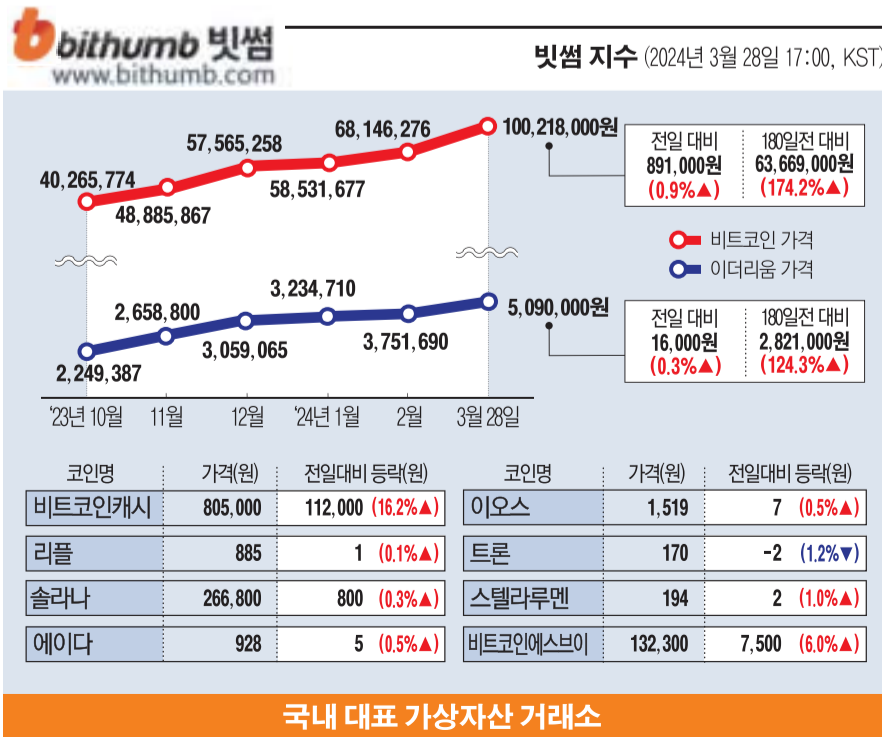
이날 카카오는 새 이사진이 꾸렸다. 정 대표와 권대열 카카오 CA협의체 ESG위원장, 조석영 CA협의체 그룹 준법경영실장이 사내이사로, 차경진 한양대 경영정보시스템전공 교수와 함춘승 피에이엔컴퍼니 사장이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언론계, 법조계, 자문사 출신 등의 이사진으로 위기관리에 집중할 전망이다.

정 대표에게는 AI 중심의 신성장동력 확보도 당면 과제다. 카카오는 올해 자체 초거대 AI 모델인 '코GPT 2.0'을 카카오톡 등 자사의 서비스에 결합해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이상호 전 SK텔레콤 CTO를 최고 AI책임자(CAIO)로 영입했다. 이 CAIO는 SKT AI사업단장, 다음 검색부문장, 다이얼로이드 창업자 겸 대표, 네이버 검색품질팀장 등을 역임했으며 카카오에서 AI 기술 및 서비스 개발 전반을 이끌게 된다.

정 대표는 “사내 외의 기대와 주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이루기 위해 쇄신 작업에 속도를 더하겠다”며 “카카오만이 할 수 있는 AI 기반 서비스 개발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또한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유진 기자 newjean@



B tv 시청 데이터 제공·홈쇼핑 모아보기 지원

SK브로드밴드, 홈쇼핑사와 상생 행보

SK브로드밴드는 B tv 시청데이터 플랫폼 'MIP(Media Insight Platform)'을 운영하고 홈쇼핑 모아보기 채널을 통해 홈쇼핑사의 실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MIP는 홈쇼핑사가 B tv 시청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시청률, 점유율, 시청자수 등 기본 데이터와 채널 시청 중 채널을 이탈하는 비율(Zapping Rate), 진성시청비율(일정 시간 이상 시청으로 채널에 집중한다고 판단하는 비율) 등 프리미엄 데이터까지 포함한다.

요일, 지역, 프로그램 등으로 구분, 개

인정보 비식별화로 제공하는 데이터는 670만 B tv 전체 가입자의 셋톱박스 로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집계해 정확도가 높다. 홈쇼핑사는 MIP 데이터를 참고해 프로그램별 매출 목표와 편성 전략을 수립하고, 프로그램 론칭 시 실시간 인입 고객수를 모니터링하는 데 활용 가능하다.

SKB는 2021년 MIP 서비스 시작 후 홈쇼핑 채널별 시청률 등 12억 건의 데이터를 제공했다. 지난해 4월에는 홈쇼핑사의 피드백과 인공지능(AI) 분석을 적용한 고도화 작업을 완료했다. 이후 MIP 서비스 이용 홈쇼핑 사업자는 증가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 직원이 홈쇼핑 채널의 시청 데이터를 제공하는 B tv 시청데이터 플랫폼 'MIP(Media Insight Platform)'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SK브로드밴드

홈쇼핑 모아보기는 2022년 3월부터 시작했다. B tv 가상채널인 62번과 998번에서 17개 홈쇼핑 채널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SKB는 홈쇼핑 모아보기를 홈쇼핑 포털 서비스로 키우고 있다.

임유진 기자 newjean@

한미 임종윤·종훈 ‘주총 대반전’... “가족간 다시 화합”

형제 완승... OCI 통합 중단

임종윤·종훈 형제가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을 저지하면서 그룹 내 ‘새판짜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두 형제는 가족 간의 화합을 강조하며, 첨예하게 대립했던 송영숙 회장·임주현 부회장을 포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임종윤 전 한미약품 사장은 28일 경기 화성시 수원과학대학교 신텍스에서 열린 한미사이언스제51기 정기주주총회 직후 취재진을 만나 “어머니와 여동생에 대해 이번 일을 계기로 (다른 분들이) 많이 실망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같이 가길 원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을 반대하는 임종윤·종훈 형제와 통합을 추진하는 송영숙·임주현 모녀의 갈등은 주총이

“다함께 얘기할 자리 만들겠다
브랜드 재확립 등 할 일 많아”
투자유치·성장전략 공개 할 듯

입박할수록 최고조에 이르렀다. 특히 송영숙 회장은 “임성기 선대 회장의 꿈을 지켜낼 수 있는 자녀는 오직 임주현뿐”이라며 두 아들을 내쳤다. 그러나 이번 주총에서 완승하며 한미약품그룹의 경영에 전격 복귀한 임종윤·종훈 형제는 가족 간의 화합을 다시 이루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날 임종윤 한미정밀화학 대표는 “앞으로 가족들이 다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라면서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을 테니 가족들의 힘을 합치겠다”라고 말했다. 임 전 사장은 “(승리해서) 기쁘다



28일 경기 화성시 신텍스(SINTEX)에서 열린 제51기 한미사이언스 정기주주총회에 주주들이 참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기보다는 마음이 많이 아프다”라면서 “좋은 제품이 많이 나오는 회사로 빨리 복구하겠다”라고 했다.

임종윤·종훈 형제가 승리하면서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은 완전히 백지화됐다. 대신 두 형제가 앞서 제시한 위

탁개발(CDO)과 임상수탁(CRO)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전망이다.

임종윤 전 사장은 주총에 앞서 100개의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해 한미약품을 5년 안에 순이익 1조원 회사로 만들고 시가총액을 200조 원 규모로 불리겠다는 미래 성장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1조원 이상의 투자유치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더욱 구체적인 성장 전략은 추후 공개된다. 또한, 임종윤·종훈 형제는 이번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던 주주가치 제고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임종윤 전 사장은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아야 한다”라면서 “회사를 복구하기 위해 여러 가지 할 일이 많다. 한미의 브랜드를 다시 확립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화성=유혜은 기자 euna@

대형마트 3사 “먹거리물가 부담 덜어드립니다”

이마트, 필수먹거리 상품 할인

롯데마트, 3주간 행사 품목 늘려

홈플러스, 주요 신선식품 세일

최근 먹거리 물가가 고공 행진하면서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비용 부담이 커진 가운데, 대형마트들이 물가 잡기에 총력을 펼친다. 유통업계는 상품을 대량 매입하거나 비정형 과일 수급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할인 공세를 나섰다.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오렌지, 바나나, 오징어 등 필수 먹거리 10개 상품을 이달 29일부터 5월 2일까지 한 달간 최저가 수준으로 판매한다. 이마트는 2월부터 신 가격정책 ‘가격파격 선언’을 통해 한 달 단위로 40여 개 상품을 상시

대형마트 3사 고물가 대응 할인

이마트

필수 먹거리 10개 상품
최저가 판매
(오렌지·바나나 10% 할인)

emart

롯데마트

멤버십 회원, 치킨·한우 등
최대 50% 할인

LOTTE MART

홈플러스

12브릭스 부사사과·단단
파프리카 30% 할인, 멤버십
회원, ‘농협안심한우 전품목’
최대 50% 할인

Homeplus

최저가 수준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에 더해 고객이 구매에 부담을 많이 느끼는 필수 먹거리를 초저가에 판매해 물가 부담을 덜겠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시세가 많이 오른 국산 과일을 대체하기 위해 오렌지와 바나나 가격을 이전 행사 가격보다 10%가량 할인한다. 정부의 농산물 품목별 납품단가 지원과 수입 과일 할당 관세 적용으로 해외 산지 발굴과 컨테이너 단위의 대량 매입,

자체 가격 투자를 통해 수입 과일 가격을 낮췄다. 일조량 부족과 한파 피해로 시세가 30% 이상 오른 애호박은 개당 1480원에 판매한다.

롯데마트는 롯데슈퍼와 함께 이달 17일까지 3주간 통합 창립 행사 ‘더 큰 세일’을 실시한다. 할인 적용 품목 수를 평상시 진행하는 할인 행사 품목보다 약 50% 늘렸다. 롯데마트·슈퍼 단독 기획 상품인 공구 핫딜 품목도 단일 행사로는 역대 최대 규

※출처: 각 사

모인 총 100여개 품목을 출시했다. 엘포인트 회원일 경우 한우, 치킨, 대게 등 주요 먹거리를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이달 3일까지 일주일간 1등급 한우 전 품목에 대해 행사카드 결제 시 반값에 구매할 수 있다. 델리큰치킨(마리)은 최대 50% 할인해 선보인다.

수산에서는 40톤(t) 규모의 대게 조업 선한척을 통째로 사전 계약해 들여온 ‘할 대게(100g)’를 행사 카드 결제 시 50% 할인해 판매한다. 주요 인기 과일과 채소도 할인가에 내놓는다.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고당도 자이언트 오렌지를 6개 구매 시 개당 1660원에 판매하고 한가득 시금치(400g)와 다다기오이(5입)는 농림축산부 할인쿠폰 20%를 적용해 할인 판매한다.

홈플러스도 이달 3일까지 주요 신선식품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는 ‘긴급물가안정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할인전에 동참한다.

12브릭스(Brix) 유명산지 부사사과(4~7입)와 단단 파프리카는 30% 할인가에 판매한다. 또 지리산 설향딸기와 새벽 딸기(500g)는 각 4990원에 내놓는다. 이어 12브릭스 성주참외(3~5입)는 9990원, 제주은갈치(대)는 2900원, 동태(특)는 마리당 1700원에 판매한다. 아울러 이달 31일까지 행복대란(30구)를 4990원에 선보인다.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은 ‘농협안심한우 전 품목’을 최대 50% 저렴하게 살 수 있다. 29일까지 ‘국내산 애호박’을 1470원에, 29일부터 30일까지는 ‘새벽 수확 양상추’를 1990원에 내놓는다. 오렌지를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는 ‘오렌지 유니버스’도 동시 진행한다.

문현호 기자 m2h@



물[水] 오르다

산업용 수처리 전문기업에서 **종합환경기업**으로
대한민국 대표 환경기업에서 **글로벌 환경기업**으로



초순수 생산



토털 수처리 솔루션



폐수재이용/해수담수화



연구 및 기술개발

‘연체율 비상’ 저축銀, 3개월 주기로 부실채권 매각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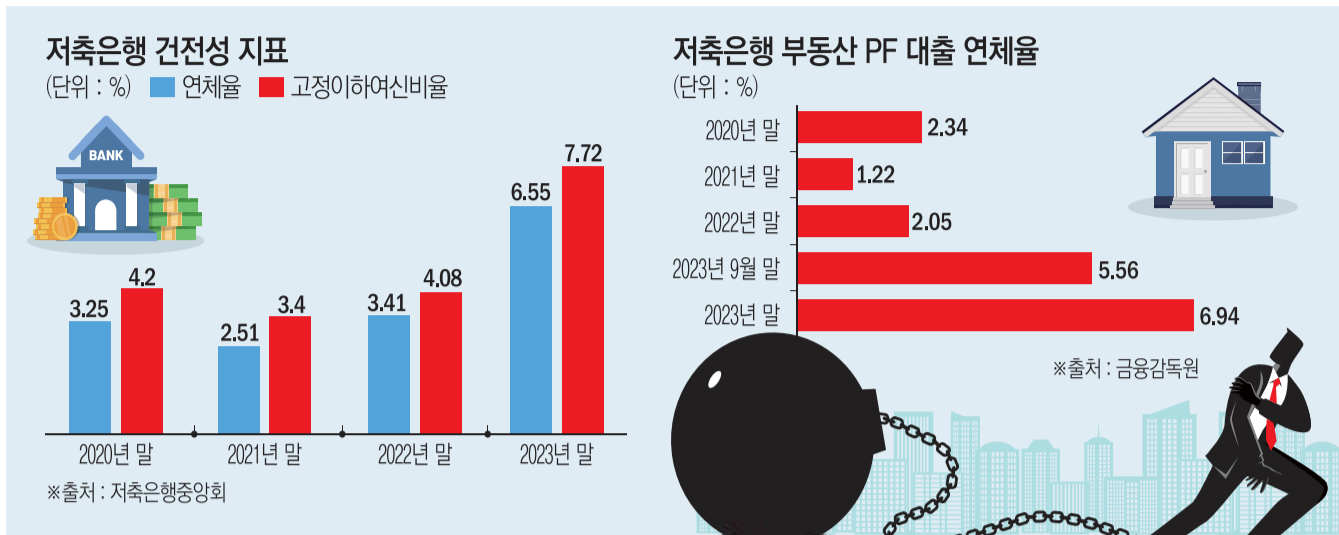
표준규정 개정안 오늘 발표

PF대출 연체율 1년새 3배 경증 이르면 내주부터 경·공매 유도 “정책자금 투입 등 지원안 검토”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경·공매 표준규정 개정안이 29일 나온다.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가 급격히 악화하자, 중앙회가 일부 저축은행의 ‘버티기’를 막고 부실채권을 빠르게 털어내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 모양새다.

28일 금융당국 및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중앙회는 저축은행업계의 부실채권 매각을 주기적으로 지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표준 규정 개정을 완료, 29일 발표하기로 했다. 다음주부터는 개별 저축은행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표준규정 개정의 핵심은 연체채권에 대한 경·공매 주기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79개 저축은행 전체에 적용되는 업무 가이드라인인 표준규정에는 ‘6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에 대해 경·공매 절차를 조속히 시행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주기’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았다. 중앙회는 주기와 관련 규정 내용을 구체화한 이번 표준 규정 개정을 통해 경·공매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중앙회 측에서는 3개월을 적정 주기로 보고 있다. 중앙회 고위 관계자 “개별 저

축은행이 주기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는 예외로 하겠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분기마다 한 번씩은 (경·공매를)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각가격의 경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규정에 구체적인 매각가격 관련 수치, 퍼센트 수준을 명시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하거나 배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공매를 주기적으로 하다 보면 단계적으로 금액이 낮아질 것이고, 공매 가격 인하 수준은 사업장의 상황 등을 고려해 개별 저축은행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경·공매’를 통한 적극적인 연체채권 정리 노력을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이달 21일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저축은행

영업실적 관련 브리핑에서 “저축은행업계에서 생각하는 가격과 시장의 가격 간 격차가 있다”며 “매각 통로 활성화, 경매 절차 개선을 통해 경·공매를 유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급격히 악화된 건전성 지표도 중앙회 움직임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말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6.94%로, 전년 말(2.05%) 보다 3배 이상 상승했다. 중앙회에서 더는 ‘적정가격’을 기다리기 위해 공매가를 시세보다 높게 제시하고 버티는 식의 업계 관행을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배경이다.

표준규정 개정안이 발표되면 다음 달 초부터 79개 저축은행에 공통적으로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저축은행중앙회도) 연체율을 낮추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규정을 통해 (부실채권 매각)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저축은행업계가 먼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면 당국도 정책자금 투입 등 지원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유하영 기자 haha@

<DGB금융지주 회장>

황병우 “가장 지역적인 전국은행 만들 것”

DGB금융지주 신임회장 취임 시중銀 전환 앞둔 대구은행장 겸임 그룹시너지 제고·조직 안정화 도모 “핵심과제 ‘디지털 전환’에 온힘”



시중은행 전환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시중은행 전환까지는 ‘조직 안정성’을 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황 회장은 이날 오후에 열린 취임식에서 “가장 지역적인 전국은행으로서 새 포

지셔닝을 하는 동시에 그룹 시너지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고객과 상품, 채널 각 영역에서 시중은행 전환과 그룹의 역량을 함께 결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영방침으로 ‘도약, 혁신, 상생’을 제시했다. 시중은행 전환이라는 새 시점에 오른 만큼 기존 금융과는 다른 DGB만의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해 도약하겠다고 했다.

혁신의 핵심과제로는 ‘디지털 전환’을 꼽았다. 황 회장은 “디지털화를 위해 적극적인 투자와 업무의 재구조화 등이 필요한 만큼 새로운 IT 회사를 만든다는 각오로 온 힘을 쏟겠다”고 했다.

유하영 기자 haha@



M·MM·X·Z... 현대카드 6종 새로 선보여

‘M 긴급적립 서비스’도 내놔

현대카드의 ‘현대카드M’ ‘현대카드MM’ ‘현대카드X’ ‘현대카드Z’ 패밀리 에디션2 ‘현대카드Z 워크 에디션2’ ‘현대카드Z 플레이’ 등 총 6종의 상품을 새로 선보였다고 28일 밝혔다.

이 상품들은 기본 적립률과 할인율을 높이고, 적립률체계를 단순화한 것이 특징이다.

필요시 포인트 및 캐시백을 먼저 적립·사용할 수 있는 ‘긴급적립’ 서비스도 선보였다. M포인트를 먼저 적립해

사용하고, 이후 결제 때 발생하는 M포인트로 상환하는 ‘M긴급적립’과 먼저 적립 받은 X캐시백으로 할인을 받은 후 이후 결제 때마다 이를 상환하는 ‘X긴급적립’ 서비스 등이 도입됐다.

현대카드M과 현대카드MM은 국내외 모든 가맹점에서 결제한 금액의 1.5%를 M포인트로 적립해준다. 적립 한도는 없으며, 전월 이용금액 50만 원 이상 시 적립된다.

연회비는 현대카드M이 3만 원, 현대카드MM이 7만 원이다.

정상원 기자 jsw@

“보이스피싱 걱정돼요” 신청 한번에 금융거래 차단

‘금융 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도입 고령층 대리신청·비대면 허용 검토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도입된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돼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차단 신청을 하면 은행과 제2금융권의 모든 여신거래가 차단된다. 재창업자 금융거래도 쉬워지고,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한 청년은 신용평점 가점이 부여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신용정보 제도개선회의’를 개최했다.

우선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도입해 보이스피싱 예방에 나선다. 현재 고령자 등 소비자가 보이스피싱을 우려해

신규대출, 카드발급 등의 차단을 요청하더라도 다른 금융회사는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모든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신규대출 등 금융거래의 사전차단 요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상반기 내 신용정보원, 관련 협회, 금융회사 등과 여신거래안심차단 시스템을 구축해서 한 금융회사에 거래 차단 신청이 이뤄지면 이를 신용원에 등록하고 모든 금융사가 신규 여신거래 취급시 차단 등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 등을 위한 대리신청과 비대면 신청 허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폐업 이력이 있는 재창업자의 금융거래도 대폭 개선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하면 회생이나 파산 등 부정적 신용정보의 금융기관 공유를 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재영 기자 lly0403@

씨티銀 작년 순익 2776억 전년보다 90% 이상 증가

한국씨티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27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90% 증가했다.

28일 한국씨티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776억 원으로 전년(1460억 원)보다 90% 늘었다. 총수익은 1조1236억 원으로 전년(9680억 원)보다 16.1%(1556억 원) 증가했다.

유명순 행장은 “수익모델의 전략적 재편 성공과 견조한 성장을 이룬 기업금융 부문의 성과에 힘입어 전년 대비 90% 증가한 2776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했고, 수익성과 비용 효율성 역시 전년 대비 크게 개선됐다”고 말했다.

비이자수익은 외환·파생상품·유가증권 관련 수익의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101.2% 증가했다. 이자수익은 순이자마진이 개선됐으나, 소비자금융 부문의 대출자산 감소 등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

KB금융, 마이데이터통합 플랫폼 구축

<KB고객데이터플랫폼>

금융그룹 첫... 고객 맞춤형 상품 제공

KB금융그룹은 금융그룹 최초로 각 계열사에서 수집된 마이데이터를 통합한 ‘KB고객데이터플랫폼’을 구축했다고 28일 밝혔다.

KB고객데이터플랫폼은 KB국민은행, KB증권, KB손해보험, KB카드, KB캐피탈 등 총 5개 마이데이터사업자의 금융 마이데이터를 계열사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분석 플랫폼이다.

KB금융은 표준화된 분류체계로 통합된 그룹마이데이터와 고도화된 고객분석을 통해 고객별 니즈에 부합하는 맞춤형

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향후 KB금융은 KB고객데이터플랫폼의 분석 모델을 지속 개선해 고객의 실제 니즈와 시장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품 개발 방향성을 정립하고, 이를 통해 고객의 신뢰에 기반한 차별화된 상품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KB고객데이터플랫폼의 고객 데이터는 개인정보 안전장치를 마련해 면밀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고객 동의에 기반해 데이터를 제공하고 개인신용정보를 비식별화 처리하고 있으며, 접근가능한 사용자 권한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재영 기자 lly0403@



세상에겐
내일의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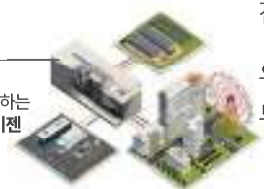


두산에겐
오늘의 기술.

두산퓨얼셀

수소, 전기,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두산의 트라이젠

수소연료전지 기술을 활용해
수소, 전기,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3중 에너지 생산 모델, 트라이젠



인류를 위한 에너지가 지구까지 생각할 순 없을까?
환경을 걱정하는 에너지가 효율까지 생각할 순 없을까?

두산은 지금,
수소연료전지의 원천기술로 수소에너지의 효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전기차, 수소차의 복합충전 및 지역난방을 동시에 해결하는 트라이젠 기술로,
친환경 수소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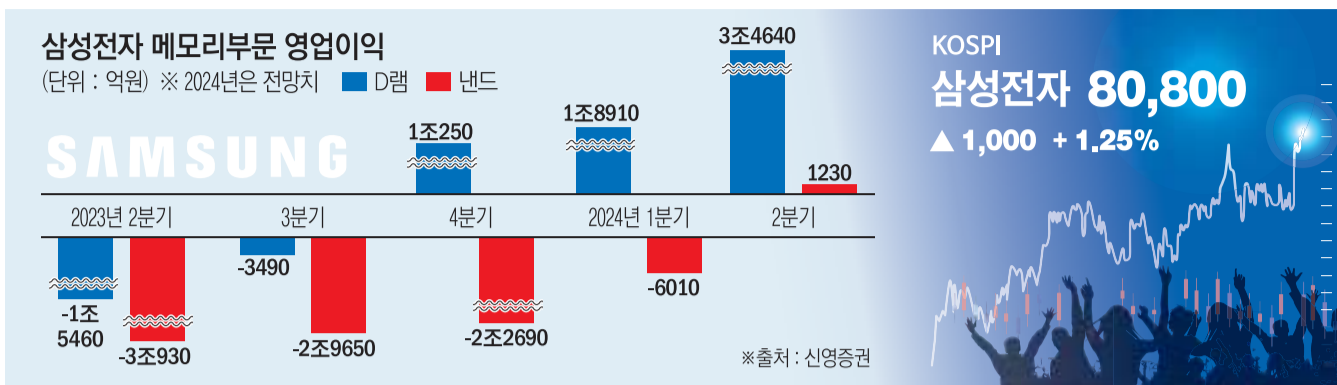
우리가 먼 미래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두산에선 이미 현재의 비즈니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산은 지금, 내일을 준비합니다

DOOSAN

‘8만전자’ 회복한 삼성전자… HBM3E·AI폰 ‘승부수’

작년 메모리부문 매출 36% 급감 SK하이닉스에 HBM주도권 뺏겼지만 주가 2년3개월만에 8만800원 찍어 ‘10만전자’ 장밋빛 전망 흐름타고 메모리 개발 집중… 시장 선점나서



10년 전인 2014년 8월, 삼성그룹 사장은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삼성 수호 사장단 회의’에서 김한열 흥익대 교수의 ‘가치혁신과 지속성장전략’ 강연을 들었다. 김 교수는 새로운 기술을 열등한 기술로 무시해 몰락의 길을 걸었던 ‘범선시대’와 필름업체 ‘코닥’을 사례로 제시했다. 증기선의 기술과 비즈니스를 열등하다고 판단했던 범선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필름업체 강자 코닥은 디지털카메라 등장에도 아날로그 필름을 고집하다 무너졌다. 그로부터 10년,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이라는 게임체인저에 직면했다. ‘범선의 오판’을 겪은 코닥 사례를 공부한 삼성이 이번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 살아남을지 시장은 주목하고 있다. ‘10만전자’ (주가 10만원)를 외치는 증권가는 삼성전자의 미래를 장밋빛으로 본다. ◇물거지는 삼성 위기관=최근들어 삼성전자 위기관을 말하는 이들이 많아졌

다. 핵심사업인 반도체에서부터 불거졌다. 삼성전자의 메모리부문 지난해 매출액은 44조1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 급감했다. 영업이익은 -12조 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최근 들어서는 AI 시대 필수반도체인 고대역폭메모리(HBM)가 발목을 잡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HBM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SK하이닉스가 50%를 차지하고 있고, 이어 삼성전자 40%, 마이크론 10% 순이다. 4세대인 HBM3로 보면 SK하이닉스가 90%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한다. HBM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도 같았다. 엔비디아에 HBM3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올해 들어 26% 치솟았다. 반면, HBM에서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는 삼성전자는 올해 주가 상승률이 3%대다. 삼성전자가 소액주

주들도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이달 열린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은 저조한 주가, 지난해 반도체 실적 부진, HBM 시장 대응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박상욱 신영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 주가의 디스카운트 요인인 HBM과 파운드리 사업부 부진 해소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마트폰 사업도 위태롭다. 삼성전자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폰 점유율은 21.7%에서 19.7%로 낮아졌다. 시장조사업체 DSCC는 삼성전자가 폴더블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화웨이에게 내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내놨다. 다른 사업 부문도 여유롭진 않다.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 패널의 지난해 글로벌 점유율은 56.7%에서 50.7%로, 디지털 콕핏은 17.9%에서 16.5%로 줄었다.

◇반전 노리는 HBM3E·AI폰=이 같은 우려에도 28일 삼성전자 주가는 외국인 매수세에 8만800원에 마감했다. ‘8만전자’ (주가 8만 원)는 증가 기준 2021년 12월 28일(8만300원) 이후 2년 3개월 만이다. 글로벌 큰 손들이 삼성전자의 미래를 장밋빛으로 본다는 얘기가. 업계는 삼성이 HBM 시장에서 경쟁사와 격차를 좁혀나갈 것으로 본다. 그 야심작이 2월 발표한 36GB(7기가바이트) HBM3E(5세대 HBM) 12단(H) D램이다. 엔비디아의 젠슨황 최고경영자(CEO)가 “삼성전자의 HBM3E 제품을 테스트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삼성전자의 주가도 급등했다. 김영건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좁혀진 경쟁사와의 넷다이(Net die, 웨이퍼당 생산 칩 숫자) 격차를 다시 벌리기 위해 설계조직을 변경하는 등 구조적 변화

를 추구하고 있어 기술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증권가에 따르면 DS(반도체) 부문은 올해 1분기 흑자전환이 예상된다. D램은 1분기 영업이익이 2조 원에 육박하며 흑자전환할 것으로 보이고, 낸드는 600억 원대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폭을 줄인 뒤 2분기부터 흑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DX(디바이스경험) 부문도 갤럭시S24 시리즈 출시 효과가 기대된다. 삼성전자는 1분기 신제품 출시 효과로 스마트폰 출하량과 평균판매가격(ASP)이 각각 14%, 30%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온디바이스 AI폰 갤럭시S24 시리즈는 지난해 북미 시장에서만 300만 대 이상 팔렸다. 2016년 출시한 ‘갤럭시S7’ 이후 역대 최고 성적이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 생생형 AI 스마트폰의 출하량은 올해 1억 대를 시작으로 연평균 83% 성장해 2027년에는 5억2200만대에 이를 전망이다. 주가 전망도 밝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삼성전자의 평균 목표주가는 3개월 전 9만1917원에서 최근 9만5625원으로 높아졌다. DB금융투자·메리츠증권·SK증권·하나증권 등은 목표주가 10만 원을 제시했다. 미래에셋증권은 가장 높은 10만5000원을 제시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테슬라 등돌린 서학개미 ‘엔비디아’에 꽂혔다

AI 반도체 밸리로 주가 고공행진 이달들어 순매수 1위 ‘최애주’ 등극 테슬라 주가 급락에 매수 제동걸려 직장인 김 모(34) 씨는 이달 초 750만 원의 손실을 감수하고 보유하고 있던 테슬라 주식을 팔았다. 테슬라 주가가 중국·유럽 시장에서의 판매 부진과 독일 베를린 인근 공장의 생산 차질 등 겹겹이 당분간 오르지 않을 것 같아서다. 윤씨는 손실을 만회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달 초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에 4000만 원을 투자했다. 김씨는 “달리는 말에 울타리”라는 증시 격언이 있다. 주가가 잠시 흔들리더라도 한 번쯤 더 위로 강하게 될 것 같아 과감하게 매수했다”고 말했다. 서학 개미(해외 주식 투자자)들이 ‘엔비디아’에 꽂혔다. AI 반도체 밸리를 이끄

는 엔비디아의 주가는 과열 우려 속에서도 상승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반면 최근 몇 년간 열렬한 러브콜을 보냈던 ‘테슬라’에 대한 사랑은 급격히 식었다. 28일 한국예탁결제원 정보데이터시스템(세이브로)에 따르면, 올해 들어 26일까지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시장에서 가장 많이 산 주식은 테슬라였다. 매수액은 8억3073만 달러였다. 이어 엔비디아가 7억8256억 달러였다. 그러나 이달 들어 분위기는 판 판이다. 엔비디아가 순매수 1위(3억4490만 달러)로 서학개미의 ‘최애주(최고 애정하는 주식)’ 자리를 꿰찼다. 테슬라는 1억6619만 달러로 순매수 4위로 밀려나는 수모를 겪고 있다. 서학 개미 장바구니에서 테슬라의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 보관 금액 1위는 테슬라(103억6328만 달러)지만, 엔비디아(91억4972만 달러)가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다. 격차는 12억 달러 수준이다. 박상민 기자 si2020@

서학개미의 애정이 식어간 건 부진한 주가 탓이다. 연초만 해도 248.48달러였던 테슬라 주가는 27일(현지시간) 179.83달러로 떨어졌다. 지난해 말 보다 28% 가량 급락한 상태다. 테슬라에 대해 투자의견을 제시한 월가 애널리스트 50명 가운데 18명(36%)만 주식을 사라는 ‘매수’의 견을 냈다. 매도 의견을 낸 증권사 중 하나인 웰스파고는 테슬라를 “성장 없는 성장 기업”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엔비디아의 현재 주가는 902.50달러로 올해 82%가량 급등했다. 김세환 KB증권 연구원은 “장기 이익 수준에 비해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면서 “영업이익률은 61.6%로 매우 높고, 매출원가가 전년 동기 대비 140% 증가했음에도 매출총이익률은 증가하고 있다. 향후 24개월 매출 증가율도 46%로 이를 반영한 기업가치도 반도체 산업보다 낫다”고 분석했다.

68주년 한양證 “영광의 트로피, 노력의 산물”

임직원들 창립맞이 명동 본점 방문 한양증권은 전날 창립 68주년을 맞아 임직원들과 함께 ‘68주년 기념식’을 진행한 후, 서울 중구 명동 본점을 방문했다고 28일 밝혔다. 임재택 한양증권 대표와 25명의 임직원은 역사적 장소를 방문해 설립자의 창업이념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자부심과 소속감을 느꼈다. 명동에는 한양증권 최초의 설립 본점이 위치해 있다. 1956년 한양증권은 대한민국 9호 증권사로 시장에 입성했다. 한국경제의 토대가 형성되기 전이자, 앞날도 장담할 수 없던 이 시기에 백남 김연준 박사는 교육보국의 기치에 뿌리를 두고 한양학원을 설립했다. 한양증권은 창립 이후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왔다. 처음의 사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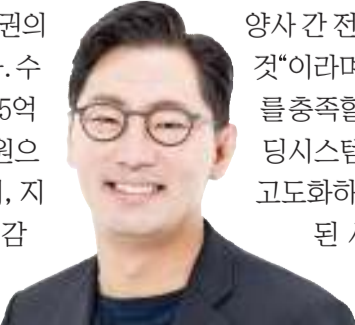
과 지배구조를 68년째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다. 임 대표는 설립 당시의 역사를 돌아보는 현장에서 “세월의 격을 넘어 한양증권이 명동에서 창업의 깃발을 높이 세울 때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짐을 느낀다”며 “역사를 잇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68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도전과 역경, 시련을 이겨낸 뒤에 얻어진 치열한 노력의 산물이자 영광의 트로피와도 같다”고 말했다. 임 대표는 68주년 기념사를 통해 △끊임없는 혁신 △뛰어난 조직문화 △명확한 비전 △강한 팀워크 △선택과 집중 △위기 관리 능력 △우수한 인력풀을 바탕으로 초장수·초일류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희인 기자 hihello@

카카오페이증권 신호철號, 핀테크 증권사 도약에 쏠리는

젊은 리더십 분위기 쇄신 기대감 새 수장을 맞은 카카오페이증권이 그간의 약재를 극복하고 국내 핵심 핀테크 증권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증권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8일 금융투자협회 공시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증권은 전날 제1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신호철(사진) 신임 대표 선임 건을 승인했다. 신 대표의 임기는 2년이다. 이번 주총을 통해 신 대표 체제가 새로 출범하면서 카카오페이증권이 분위기 쇄신에 활발히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장 신 대표가 풀어야 할 과제는 실적 개선이다. 카카오페이증권은 2020년 출범 후 4년 내내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당기순손실(517억 원) 또한 전년 대비 7% 넘게 증가했다. 실제 카카오페이증권의 수수료 수익은 감소세다. 수수료 수익은 2021년 635억 원에서 2022년 397억 원으로 37% 넘게 급감한 뒤, 지난해에도 392억 원으로 감소했다. 이에 무료 수수료를

앞세운 주식거래 플랫폼 위력이 국내에 진출하면 고객 유출을 막고 수수료 수익 급감을 막을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카카오페이증권 관계자는 “신 대표가 시버트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양사 간 전략적 협업은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다양한 사용자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도록 모바일 트레이딩시스템(MTS)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증권 사업에 차별화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민지 기자 handmin@



신한투자證, 내달 중 ‘책무구조도’ 도입

업계 첫 추진… 체계 혁신 앞장 신한투자증권은 금융사고 예방과 제도의 조기 정착을 목표로 선도적인 ‘책무구조도’ 도입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신한투자증권은 업계에서 가장 먼저 2023년 9월 책무구조도 컨설팅에 착수하고 1월 준법경영부를 신설했다. 4월 중으로 회계 및 법무법인의 자문을 통해 책무구조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연말까지 시스템 구축과 파일럿 운영을 시작해 제도의 조기 정착과 내부통제 체계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책무구조도뿐 아니라 전

사 부서장 내부통제 업무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임원의 내부통제 이행 조치 활동을 더욱 명확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3월부터 시행된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임직원 아이디어 공모전 ‘신한 바른 목소리 공모전’을 통해 인식 변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남궁태형 신한투자증권 준법감시인은 “최근 사모펀드 및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등으로 모든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고 있다”라며 “신한투자증권은 이번 선도적인 책무구조도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박민규 기자 pmk8989@

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 건설업계 '새 먹거리' 기대감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00만
실버타운·시니어주택 수요 늘어
신규개발 포화시장에 대안 부상
롯데건설 'VL 르웨스트' 성과
한미글로벌 '심포니아' 가세
현대·대우건설도 전략사업으로

노인 인구 1000만 시대가 다가오면서 실버타운과 시니어 주택(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 이에 정부가 '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을 추진하자 건설사들은 새로운 먹거리로 보고 사업 준비에 나서고 있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현재 임대형만 가능한 노인복지주택을 내년부터 분양형도 가능하도록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건설사들이 사업성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연내 1000만 명을 돌파해 2025년경 '초고령사

회(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의 20% 이상)'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고려해 2015년 폐지됐던 분양형 실버타운을 재도입해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건설업계에선 두 팔 벌려 환영하는 분위기다. 현재 국내 주택사업은 정비사업을 제외하면 신규 개발이 어려워 포화상태로 평가된다. 여기에 원자재, 인건비 상승으로 주택건축부문 원가율은 90% 수준으로 치솟아 수익성을 확보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실버타운과 시니어주택이 미래 먹거리로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관련 사업에 뛰어들 건설사 중 두각을 나타낸 곳은 롯데건설이다. 롯데건설은 하이엔드 시니어 계층을 타겟으로 서울 강서구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 내 시니어 레지던스 'VL 르웨스트'와 프리미엄 실버타운인 광진구 능동 '더 클래식 500' 등을 공급해 성과를 내고 있다.

VL르웨스트는 총 810실(15~49평) 규모로, 배우 노주현씨가 계약한 사실이 알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 스위트 조감도. 사진제공 대우건설

려져 화제가 된 바 있다. 연계 의료재단은 이대서울병원, 보바스병원 등이며, 롯데호텔이 운영 지원하는 'VL'을 통해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증금 7억 원과 월 400만 원에 달하는 생활비를 지불해야 함에도 지난해 청약에서 최고 20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롯데건설은 그룹 산하에 있는 롯데호텔, 롯데쇼핑 등과 전략적 제휴가 가능해 의료, 쇼핑, 유통 등을 연계해 복합 개발하는 실버타운 사업에서 유리한 구조를 갖췄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정부 발표와 맞물려 시니어 사업을 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니어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월 생활비는 300만 원 이하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건설은 이지자산운용과 함께 '은평 편익5 시니어레지던스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이사업은 은평구 진관동 일대에 시니어아파트를 포함한 복합시설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현대건설은 이사업의 지분 29.9%(2023년 3분기 말 기준)를 보유 중이다. 지난해 12월 건축허가를 취득해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밖에 대우건설도 경기 의왕시의왕백운밸리 일원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 스위트'를 선보였다. 올해 주택사업본부 전략 과제 역시 시니어 상품 개발로 선정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기존 실버타운 및 시니어주택은 임대형으로만 가능해 사업성이 높지 않았는데, 최근 정부가 실버타운 활성화 방안 대책으로 일반분양을 허용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러 건설사가 관심을 보이고 준비에 돌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리 기자 tru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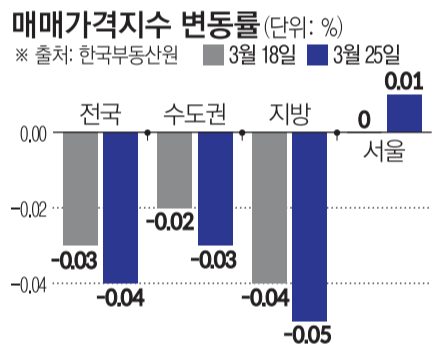
서울 아파트값 17주 만에 올랐다

지난주 보합 이어 0.01% 상승
전국·수도권·지방은 낙폭 늘려

서울 아파트값이 17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서울 지역은 지난주 보합 전환에 이어 이번 주 상승을 기록하는 등 매매시장에 온기가 확산하고 있다. 반면,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과 지방은 서울과 달리 아파트값 내림세가 확대됐다. 전셋값은 전국에서 지난주와 같은 수준의 오름세를 이어갔다.

2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3월 넷째 주(25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1% 상승을 기록했다. 지난주 보합에서 0.01%포인트(p) 올라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12월 4일 -0.01% 하락을 시작했지만, 지난주 보합에 이어 이번 주 상승을 기록했다.

반면, 전국 아파트값 변동률은 -0.04%로 집계됐다. 지난주 -0.03% 대비 0.01%포인트(p) 추가 낙폭 확대를 기록한 것이다. 이에 전국 아파트값 내림세는 이번 주



까지 18주 연속 이어졌다. 서울 내 지역별로는 대부분 지역은 지난주에 이어 상승세를 보였다.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 가운데 서초구와 강남구는 이번주 보합을 기록했고, 송파구는 0.05% 상승을 나타냈다. 다만, 강동구는 지난주 0.02% 대비 0.04%p 내린 -0.02%로 하락 전환했다.

용산구와 광진구는 0.04%로 강세를 이어갔고, 마포구는 이번주 0.12%로 지난주 보합에서 급등했다. 반면, 강북구는 -0.03%, 도봉구는 -0.04%, 노원구는 -0.02%로 지난주에 이어 약세를 이어갔다. 부동산원은 "서울 아파트값은 거래 희망가격 격차가 해소되지 않아 관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선호단지 위주로 급매 소진 후 매수 문기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상승 전환했다"고 말했다.

수도권에선 인천은 이번 주 -0.01%로 지난주와 같은 수준을 하락을 지속했다. 경기도는 -0.06%로 지난주보다 0.03%p 하락했다. 인천에선 중구(0.05%)와 연수구(0.01%)는 상승 전환했다. 하지만, 계양구(-0.03%)와 동구(-0.03%), 남동구(-0.02%)는 구축 위주로 내렸다.

경기도는 고양 덕양구(0.11%)와 여주시(0.10%) 등이 상승했다. 반면, 파주시(-0.24%)와 안양 동안구(-0.23%), 성남 중원구(-0.18%) 등은 약세를 기록했다.

전국 전셋값은 지난주와 같은 수준인 0.02%로 나타났다. 서울 역시 지난주와 같은 0.07% 상승을 기록했다. 지방은 -0.04%로 전주 대비 0.02%p 추가 하락했다.

부동산원은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은 매수대기자가 전세수요로 전환하며 역세권과 신축 등 정주여건이 양호한 단지 중심으로 상승거래가 이뤄지면서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3기 신도시 주택 오늘 첫 착공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1285가구
9월 분양, 2026년 12월 입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가운데 '인천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가 29일 주택건설공사에 착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수도권 3기 신도시 중 가장 빠른 속도다.

이번에 착공한 주택물량은 인천계양지구 전체 28개 주택블록 중 2021년 7월 사전청약을 실시한 A2블록과 A3블록의 2개 블록 1285가구다.

인천계양지구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굴현동, 동양동, 박촌동 등 일원에 총면적 333만㎡의 규모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주택을 포함한 공공주택 9000가구 등 주택 1만 7000가구를 건설해 인구 약 4만 1700명이 입주하게 된다.

A2블록은 공공분양으로 747가구가 건설되고 A3블록은 신혼희망타운(분양주택·행복주택)으로 538가구가 건설되며 이중 분양주택은 359가구다. 이번에 착공한 A2·A3블록은 3기 신도시 중 첫 주자라는 상징성이 큰 만큼 2026년 12월 입주 목표로

인천계양지구 위치도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분양은 9월에 실시한다.

특히 입주 초기에 기반시설이 부족해 신도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국토부는 주택건설에 맞춰 교통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제공할 계획이다. 상업용지도 차질 없이 공급해 자족이 가능한 도시로 조성한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예상 물량이 제때에 공급되도록 주택 착공에 속도를 내고 이번 정부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적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지은 기자 hje@

현대건설, 서울시와 손잡고 스타트업 발굴

오픈 이노베이션 공모전 개최
총 11개 분야... 내달 19일까지

현대건설이 혁신 스타트업 발굴·육성을 위해 서울시 중소기업 지원기관인 서울경제진흥원과 '2024 현대건설x서울 스타트업 오픈 이노베이션'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공모전은 건설 산업 내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진행되는 개방형 기술혁신 프로그램으로 현대건설 협업부서와 협업 PoC를 진행하는 '협업 트랙'과 초기 스타트업 대

한 육성·사업화를 지원하는 '육성 트랙'으로 구분해 선발한다.

협업 트랙은 △스마트 건설기술 △스마트 헬스케어 △미래 주거 △스마트 안전 △현업 니즈 해결 등 5개 분야를 모집하고 육성 트랙은 △스타팅 블록(건설혁신 기술, ESG 아이디어)을 포함해 총 6개 분야다. 접수 기간은 다음 달 19일까지다.

현대건설은 스타트업의 안정적인 성장 기회 제공과 동반성장 생태계 확대를 위해 올해 선발된 기업에 민·관·학 협력에 기반한 후속 지원을 할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성균관대, 한양대와 창업 기회 발굴·



육성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으며 민관협력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 등 창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창업지원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은 실질적인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 혜택이 대폭 확대됐다"며 "상생 협력, 지속 가능한 건설혁신, 미래성장산업 분야의 스타트업 발굴을 위해 오픈 이노베이션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보규 기자 jbk@·사진제공 현대건설

건설업계 "정부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환영"

건설협회 요구사항 대부분 수용

대한건설협회는 정부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발표와 관련해 "조속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력을 환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협회는 이날 입장문 내고 "이번 정책은 지난 1월 10일 정부의 건설경기 보완방안 후속 조치로 그동안 업계가 협회를 통해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했던 요구사항들이 상당 부분 수용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

했다. 협회는 또 "지난해부터 협회에서 집중적으로 지적한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와 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 부담금 완화 등은 건설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은 "건설업계는 이번 정부 지원 방안 시행을 계기로 민생경제가 신속히 회복되는데 일조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더 나은 주거환경과 안전하고 편리한 인프라를 공급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아침 거르는 청소년 늘었다... 과음하는 중학생도 증가

교육부·질병청 건강조사

41% 5일 이상 아침 안 먹어
과일 섭취율 ↓ ... 식습관 악화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으로
우울감·스트레스는 낮아져

아침 식사를 거르고 탄산음료 등 단맛 음료 섭취는 늘어나는 등 청소년들의 생활 지표가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술 마시는 청소년은 전반적으로 줄었지만 과음하는 중학생은 크게 늘었다.

28일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실시한 '학생 건강검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교육부의 학생 건강검사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중 표본으로 선정된 1009개교에서 실시한 신체발달 상황, 건강검진 결과에 대해 분석한 자료다. 질병관리청 주관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전국 800개 표

본학교의 중·고등학생 약 6만 명을 대상으로 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 건강행태 현황을 파악했다.

이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의 아침식사 결식률은 높아지고 과일 섭취율은 낮아지는 등 식습관이 전반적으로 나빠졌다.

지난해 주 5일 이상 아침 식사를 거르는 비율은 41.1%로 전년 대비 2.1%포인트(p) 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의 결식률은 39.7%(2.3%p ↑), 여학생은 42.6%(1.9%p ↑)였다. 하루 1회 이상 과일을 섭취하는 비율은 16.0%로 전년보다 1.2%p 줄었다.

패스트푸드를 일주일에 3번 이상 섭취하는 비율은 여학생은 24.4%로 전년 대비 1.1%p 줄었지만, 남학생은 29.2%로 0.2%p 더 늘었다. 탄산·과즙음료, 가당 우유 등 단맛이 나는 음료를 주 3회 이상 섭취하는 비율은 64.9%(1.3%p ↑)였다.

코로나19 이후 일상이 회복되면서 중·고등학생들의 우울감과 스트레스는 낮아

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우울감 경험률은 26.0%로 전년 대비 2.7%p 줄었다. 스트레스 인지율은 37.3%로 4.0%p 줄었으며, 최근 7일간 잠을 충분히 잤다고 생각하는 비율인 주관적 수면충족률은 26.0%로 3.8%p 증가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로 하향되고 온전한 일상 회복을 하면서 청소년 정신건강도 다시 좋아진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중·고생의 현재음주율(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의 술을 마셨다고 응답한 비율)은 11.1%로 전년 대비 1.9%p 감소했지만, 술을 마시는 학생들의 평균 음주량은 더 늘었다.

1회 평균 음주량이 중증도(남자 소주 5잔, 여자 소주 3잔 이상)인 위험음주율은 전체 44.8%로 전년 대비 1.9%p 늘어났다. 남학생(41.3%, 0.9%p ↑)과 여학생(50.1%, 3.5%p ↑) 모두 증가했다. 특히 중학생(남 21.6%→24.7%, 여 38.5%

→44.6%)의 위험음주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현재음주율은 강원 지역이 14.2%로 가장 높았고, 세종지역이 8.3%로 가장 낮았다.

지난해 과체중·비만 학생의 비율은 29.6%(0.9%p ↓)이었으며, 읍·면 지역의 과체중·비만 학생 비율은 34.4%로도 시 지역(28.7%)보다 5.7%p 높았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동안 우리 학생들의 건강관리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학교를 중심으로 신체활동 기회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 결과 과체중과 비만 학생의 비율이 감소하는 등 각종 건강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일부 지표는 여전히 시도 간 차이가 있었다"며 "제2차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2024~2028)을 내실있게 추진해 학생 한 명 한 명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유정 기자 oiljung@

현재 "이동관·손준성·이정섭 탄핵안 철회 후 재발의 적법"

與 권한쟁의심판 청구 각하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감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현재는 28일 윤재옥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현재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됐다고 하더라도 본회의에 상정돼 실제 논의의 대상이 되기 전에는 본회의 동의 없이 탄핵소추안을 철회할 수 있다"며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국회법 제90조 제2항의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소추안 철회 동의 여부에 대해 심의·표결할 권한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권한의 침해 가능성이 없어 수리행위를 다투는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적법하게 발의된 재발의 탄핵소추안은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9일이 위원장과 두 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회에 보고한 뒤 하루 만에 철회했다. 당시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 '방송3법' 필리버스터를 포기하고 본회의를 조기 종료시켰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철회 요구를 수리했다. 국회사무처도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이 정식 의제로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해 11월 13일 김 의장이 탄핵소추안 철회 요구를 수리한 행위가 자신들의 심의·표결 권한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회법 90조(의안·동의의 철회) 2항에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후 민주당이 재발의 탄핵안은 지난해 11월 30일 본회의에 보고됐고, 이 위원장이 탄핵안 처리 전 사퇴하면서 두 감사에 대한 탄핵안만 12월 1일 국회를 통과했다. 현재는 두 감사의 탄핵 심판 절차를 이미 진행 중이다. 김이현 기자 spes@

서울버스 정상운행 임금인상 극적 합의

인상률 4.48%에 타결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12년만에 멈췄던 서울 버스 운행이 즉각 정상화됐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협상 타결에 따른 노조의 파업 철회로 서울 시내버스 전 노선은 이날 오후 3시를 기점으로 정상 운영을 시작했다.

노사는 임금 인상률 4.48%, 명절수당 65만 원으로 올해 임금 인상안을 합의했다. 이날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약식브리핑을 열고 "올해 노사 간 합의를 이뤄낸 임금 인상안은 대구, 부산 등 다른 지역과 동일 수준"이라며 "버스는 명절같은 특수 시기에도 다니는 것을 고려해 명절수당도 신설됐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 타결로 버스 기사들의 임금이 오르면서 서울시의 재정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는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업체의 적자 등을 보전해주는 대신 취약지역 노선을 유지하는 등 공공성을 유지하는 준공영제를 적용하고 있다.

윤 실장은 "임금이 1% 오를 때마다 약 110억~120억원의 추가 재정부담금이 발생하게 된다"라며 "노사 간 협력을 강화해 경영 혁신, 부대사업 수익 창출 등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다만 버스는 지난해 기본요금을 300원을 인상한 바가 있으므로 바로 요금 인상으로 도출되긴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노사는 전날 12시간 마라톤협상을 이어갔다. 하지만 노사는 자정이 지난 때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조가 이날 오전 4시 첫차부터 파업에 들어가면서 서울 시내버스(7382대)의 97.6%에 해당하는 7210대가 운행을 멈췄다. 12년만의 버스 파업으로 시민들은 빗속 출근길에 큰 불편을 겪었다. 김재빈 기자 chaebi@



다시 달리는 서울 버스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이 노조의 총파업 돌입 11시간여 만에 타결된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버스종합환승센터에서 시내버스가 정상 운행되고 있다.

서울시, 민간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 첫 도입

"市 탄소배출 건물이 70% 차지"
내달부터 시행... 탄소중립 첫발
연면적 3000㎡ 비주거 건물 대상

서울시가 건물 탄소중립을 위해 민간 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을 평가하는 제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 건물 온실가스 발생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에너지 낭비를 줄여 건물 탄소중립 달성 계획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서울시는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를 4월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소유주 스스로 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확인하는 제도로, 자율 신고 대상은 연면적 3000㎡ 이상 비주거 민간 건물이다. 민간건물의 에너지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건 서울시가 처음이다. 도심 탄소 배출 주범으로 꼽히는 건물의 온실가스

'다이어트'를 위해 칼을 빼든 것이다. 주요국 도시들은 건물 에너지사용량 평가를 통한 탄소배출 저감 노력에 이미 뛰어들었다. 뉴욕이 대표적이다. 랜드마크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정문에는 'Energy Star(에너지스타)'라고 적힌 하늘색 표지판이 걸려 있다. 에너지스타는 1992년 미국 환경보호국(EPA)와 에너지부(DOE)가 운영하기 시작한 에너지절감 프로그램으로, 각 주의 기후·건축 양식·에너지 사용패턴 등을 고려해 건물 에너지사용량을 평가한다. 뉴욕시는 연면적 약 2300㎡ 이상 모든 건물에 에너지스타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건물주는 매년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해야 한다. 결과 등급표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당국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는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등급을 부여하고, 법률상 패널티가 없다는 점에서 미국 사례와는 차이가 있다. 건축물 소유주

가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하면 서울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평가표에 따라 A~E등급(5단계)을 매긴다. 미국처럼 강력한 규제책은 아니지만, 민간 건물의 온실가스 발생량을 파악하는 첫발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서울시는 강조했다.

시는 제도 확산을 위해 민간 건물을 다수 보유·관리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협회 및 부동산자산운용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하위 등급을 받은 건물을 대상으로 무료 진단 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2022년 서울시의 잠정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건물 분야에서 발생하는 비중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올해부터 시행될 서울시의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를 필두로 전국에 건물 온실가스 다이어트 열풍이 확산돼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영 기자 ojung2@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24-087호

무연고 사망자 공고

「정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처리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본인인 유골을 인수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3월 29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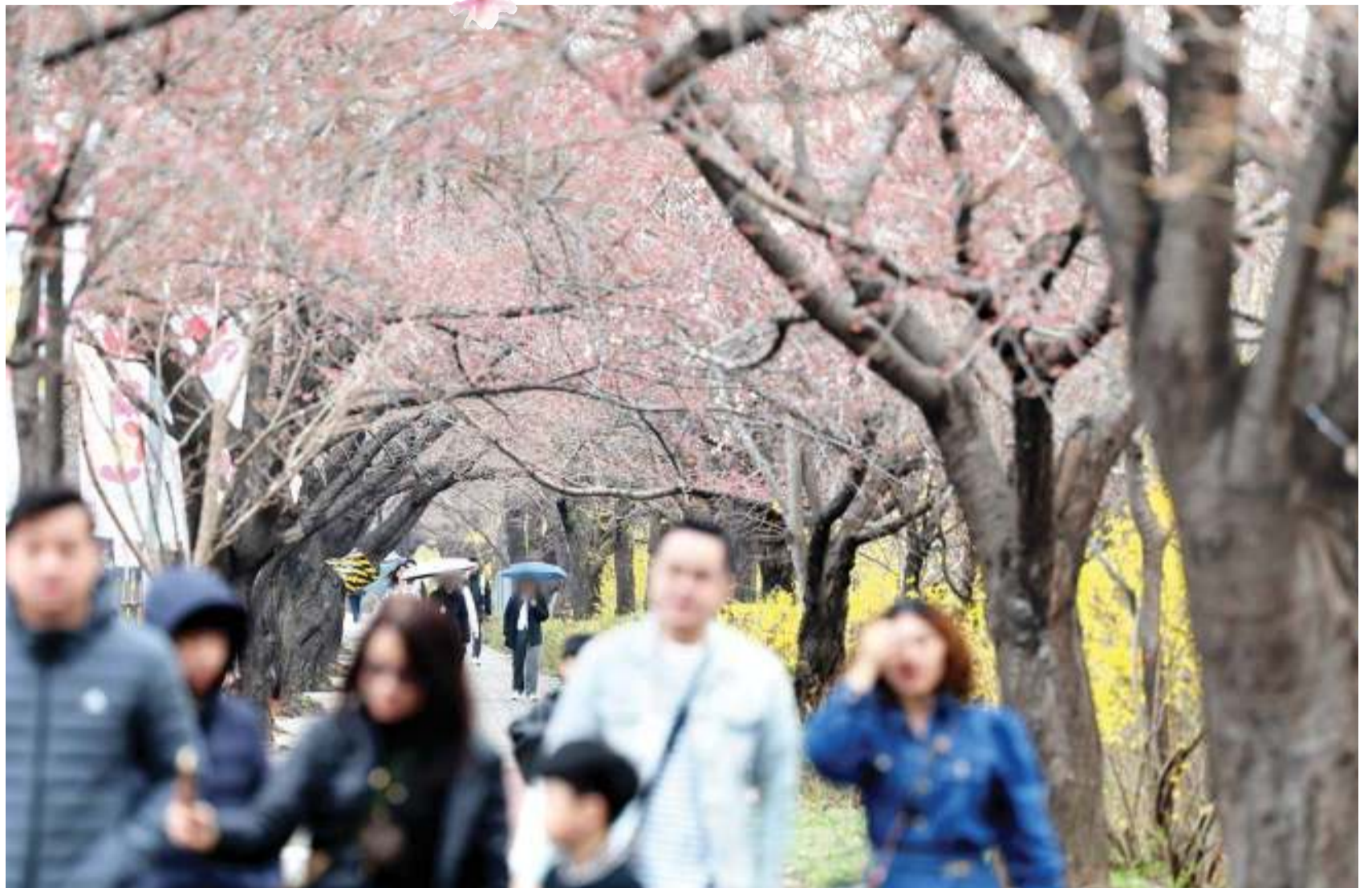
성명	주소	성별	생년월일	사망(발견) 일시	사망 원인	사망(발견) 장소	비고
김연진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11길 57 902호 811호	남	460924-1*****	2024. 3. 18. 01:20 분경	병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35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35	화장 후 분안

2. 발생장소 및 발견 경위
사망자는 2024. 3. 18. 의료기관에서 사망했으며, 시신을 인수 할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어 광명장에 진행함.

3. 공고기간: 2024. 3. 29. ~ 2024. 4. 28.
4. 봉안장소: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예운로 509-20. 무연고 추모의 집 (☎ 031-943-1930)
5. 봉안기간: 5년
6. 연락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생활보조과(☎ 2600-6427)

냉온탕 날씨에 '벚꽃 없는 X 축제'... 이상기후의 역습

평년대비 일조량 부족하고 기온 낮아
진해군항제 개막일 개화율 10% 그쳐
영랑호 벚꽃축제는 내달 추가 개최로
지구온난화에 과일나무 개화 빨라져
지난해 사과꽃 된서리... 가격 급등
獨연구팀 "이상기온 인플레 불러" 경고



여의도벚꽃축제 개막을 하루 앞둔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서로에서 시민들이 꽃망울이 맺힌 벚꽃길을 걷고 있다. 지난해보다 개막을 열새 앞당긴 축제와 달리 한 민간 기상업체는 이상기온 영향으로 올해 서울의 벚꽃 개화 시기를 예년 대비 일주일 정도 늦어진 내달 3일경으로 예상했다.

봄을 알리는 벚꽃이 늦어지고 있다. 당초 벚꽃을 포함한 봄꽃이 일찍 피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행사 시기를 조율했던 지자체들은 난감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종잡을 수 없는 개화 시기가 과일값 등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28일 경남 창원시와 군항제위원회 등에 따르면 '제62회 진해군항제' 벚꽃 개화율은 이날 오전 기준 50~60% 수준이다. 행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꽃이 핀 나무가 절반밖에 안 되는 셈이다. 행사 전야 제였던 22일과 개막일인 23일 개화율은 5~10% 수준에 불과했다.

무려 36만 그루의 벚꽃을 자랑하는 창원시 진해구는 군항제 기간에만 400만 명이 찾는 국내 대표 벚꽃명소다. 진해군항제는 통상 매년 4월 1일 개막했는데, 2019년엔 개막일이 하루 빨라졌고 지난해에는 3월 24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4월 3일까지 열렸다.

올해는 온화한 겨울 탓에 꽃이 빨리 필 것으로 예상, 축제 일정을 더 앞당겨 역대 가장 이른 지난달 23일 막을 열었다. 그러나 정작 개막일에 활짝 핀 벚꽃을 찾아보긴 어려워 '벚꽃 없는 벚꽃축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도통 피지 않는 벚꽃에 전국 각지에서 개막일을 미루거나 행사를 두 번 여는 등 계획을 변경하고 있다. 강원 속초시는 30~31일 개최되는 '2024 영랑호 벚꽃축제'를 당초 계획대로 진행한 뒤 다음 달 6~7일 한 번 더 축제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올해 벚꽃 개화 시기는 평년보다 1~7일가량 이른 3월 말 정도로 예상됐다. 지자체들도 올해 축제 시기를 지난해보다 앞당겨 일정을 짰는데, 막상 벚꽃은 지난해보다 늦게 개화하면서 예상을 빚나갔다. 이상기후로 인해 벚꽃 개화 시기를 예측하는 게 더 어려워진 것이다.

반기성 케이웨더 예보센터장은 "벚꽃은 특히 장기적인 날씨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꽃이) 필 때 기온이나 일조량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올해는 평년보다 일조량과 기온이 낮다 보니 개화가 늦어지는 것"이라며 "기후변화로 결국 벚꽃이 피는 시기는 빨라질 것이다. 문제는 '그때그때 그해 3월의 기온이 어떻게 되느냐'다. 전반적으로 기온은 상승하는 가운데 기후변화의 진동은 커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잡을 수 없게 된 벚꽃 개화 시기는 과일 농가에도 고민거리다. 통상 농장 근처에서 벚꽃이 핀 뒤 10~15일이 지나면 사과꽃이 피는데, 벚꽃처럼 사과꽃이 빨리 피면 된서리를 맞아 열매 맺기에 실패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벚꽃이 이르게 피면서 보통 4월 말에

피는 사과꽃이 4월 초~중순부터 피기 시작했고, 여기에 뒤늦게 찾아온 꽃샘추위에 기록적인 폭우가 더해지면서 사과 농가가 시름을 앓았다. 사과 생산량 저하는 곧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고, 제수용 사과 가격이 50~100% 뛰어들면서 명절 밥상 물가까지 끌어올렸다.

날씨가 작황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점차 심화하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가 곧 식량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조명한 연구 결과도 있다. 막시밀리안 코츠 독일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 연구원을 비롯한 연구팀이 21일(현지시간)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지구 & 환경'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은 고소득, 저소득 국가 모두

두에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

연구팀은 1991~2020년 121개국의 월별 소비자물가지수와 날씨 데이터를 분석했고, 여기에 2030~2060년 날씨로 인한 인플레이션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 물리적 기후 모델의 예측 결과를 결합했다. 그 결과 10년 뒤인 2035년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최대 3.2%포인트 상승하고 식량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전체 물가 상승률은 최대 1.2%포인트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코츠 연구원은 "세계 경제는 기후변화 및 극한 날씨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녹색기술을 기반으로 대응해 나간다면 물가를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장유진 기자 yxxj@

100세 시대 맞아... '잘 늙어가는 법' 담은 웰에이징 도서 인기

은퇴 이후 삶·죽음에 대한 심리적 접근
지난해 출간 도서 64종 전년비 54% ↑
노화 관련서 40~60대 구매 비중 83%

최근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화를 주제로 한 도서가 꾸준히 주목받고 있다. 건강한 나이들을 뜻하는 '웰에이징(Well-aging)'부터 은퇴 이후의 삶, 노년과 죽음에 대한 심리적 접근까지 이전에 비해 다채로운 주제를 담은 책들이 지속적으로 출간되고 있다.

28일 예스24 집계 결과 지난해 노화·나이들·웰에이징 등 관련 도서 출간 종수는 64종으로 전년 42종 대비 약 52% 늘어났다. 연간 판매량도 2021년과 2022년에 꺾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해에 53.8%로 반등했다.

노화 관련서 구매자 비중은 40~50세대가 절반 이상(62.3%)을 차지했다. 60대 이상은 20.7%로 나타났다. 이들은 100세 시대를 맞아 이전 세대에 비해 더욱 적극적으로 '웰에이징'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노화 관련서 베스트셀러 1위는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2위는 '느리게 나이



마시 코트렐 홀-엘리자베스 엑스트롬 공저 '살아가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왼쪽부터), 대만 할머니 의사 류슈즈의 '나답게 나이 드는 즐거움', 윤지원 저 '니체처럼 사랑하고 세네카처럼 현명하게', 프랑스 작가 파스칼 브뤼크네르의 '아직 오지 않은 날들을 위하여', 아틀 가원디의 '어떻게 죽을 것인가'.

드는 습관'이었다. 두 권 모두 '유 퀴즈 온 더 블럭', '세바시' 등에 출연하며 화제를 모은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정희원 교수의 책이다.

정 교수는 노화 방지를 위해 '연대'를 강조한다. 그는 "현실적으로 돈과 시간 여유가 있는 사람이 강한 연대를 만들기 용이하다.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은 가속노화를 겪어도 의지할 데를 찾거나 내재역량 관리를 위해 자원을 투자하기도 더욱 어려워진다"고 지적한다.

이어 "이 메커니즘을 따라 '절망사'가 발생한다"라며 "능력과 건강, 노년기 삶이 심각하게 양극화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상황이 어려울수록 강한 사회적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올해에는 1분기에만 총 16종의 노화 관련서 신간들이 출간됐다. '살아가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는 내셔널 크리스토퍼상을 수상한 노년학자와 생물학자의 심층 취재를 통해 황혼을 삶의 절정기로 만든 노장들의 비밀을 생생히 옮겼다.

대만 중년들에게 가장 닮고 싶은 노년의 롤모델로 손꼽히는 할머니 의사 류슈즈의 '나답게 나이 드는 즐거움'은 중년이 된 이들에게 건강 및 인생

조언을 전한다. '니체처럼 사랑하고 세네카처럼 현명하게'는 인생에서 꼭 만나야 할 철학자의 30가지 말들을 담았다.

노년·죽음 관련 인문서 분야에서는 노년을 먼저 경험한 저자가 다양한 조언을 전하는 책들이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노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죽음을 탐구하고 이를 통해 삶의 열망을 다시금 불러일으키는 책들이 상위권에 오른 것이다.

프랑스 작가 파스칼 브뤼크네르의 '아직 오지 않은 날들을 위하여'는 유려한 사유를 통해 '나이들'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제안한다. 아틀 가원디의 '어떻게 죽을 것인가'는 죽음 앞에 선 인간의 존엄과 의학의 한계를 고백하며 '인간다운 죽음'에 대한 화두를 던진다.

한 출판 관계자는 "대학 교육을 받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을 보유한 세대가 노년층으로 진입하면서 이들의 관심사를 소재로 출판되는 책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건강이나 노화"라며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마인드 정립부터 실질적인 노후 대비 상품 활용 방법까지 다양한 책들이 출간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석주 기자 ssp@

딸 잃은 아버지가 찍은 '세월호' ... 엔딩 없는 그날의 기록



송석주의
컷

다큐 영화 '바람의 세월'

“그게 소설이든 시든, 어떤 젊은이가 갑자기 책상에 앉아서 뭔가를 쓰기 시작한다면, 지금 그의 내면에서 불길이 일어났다는 뜻이다. 불은 결코 홀로 타오르는 법이 없다. 그러니 그 불은 바깥 어딘가에서 그의 내면으로 번졌으리라.”

김연수작가는 책 '작가란 무엇인가' 한국어판 서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작가는 주제를 '젊은이'로 설정했지만, 사실 무언가를 쓰고자 하는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다. 기자가 만났던 작가들은 대개 말을 하고 싶어서 글을 쓴다고 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말을 붙잡고 싶어서 글을 쓴다. 감정을 눈으로 확인하고, 독자들과 공유하고 싶기 때문이다.

영화도 마찬가지다. 영화는 이미지를 붙잡아 은막 위에 새기는 예술이다. 관객들은 극장에서 감독이 붙잡은 이미지를

세월호 침몰한 사고지점 표시한
쉽없이 흔들려도 가라앉지 않는
'노란 부표' 움직임 카메라가 담아



“언젠가 아이들 다시 만나는 날
진실 밝히고 손잡아줄 수 있길”

누군가와 함께 본다. 그런 점에서 감독도 작가다. 작가가 펜을 들듯이, 감독은 카메라를 든다. 영화평론가 알렉산드르 아스트릭은 이를 '카메라 만년필설(Camera-stylo)'이라는 단어로 설명했다.

영화 '바람의 세월'은 세월호참사 피해자의 아버지 문종택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참사 이후 10년간 여러 세월호 소재 영화들이 만들어졌지만, 유가족이 직접 만든 영화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미디어 활동가 김환태 감독의 도움을 받아 이



영화 '바람의 세월' 스틸컷.

사진제공 시네마달

번 영화를 완성했다.

이 영화의 가장 인상적인 순간은 배가 좌우로 흔들리며 항해하듯이, 카메라가 좌우로 흔들리며 피사체를 포착하는 장면에 있다. 카메라는 좌우로 흔들거리며 한 희생자의 방을 포착한다. 이어 인양된 세월호의 안과 밖을 같은 움직임으로 포착한다. 카메라는 왜 이렇게 움직일까.

이 같은 움직임의 정체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밝혀진다. 바로 세월호가 가라앉은 사고지점을 표시한 '노란 부표'의 움직임을 카메라가 체화한 것. 이 노란 부

표는 파도로 인해 끊임없이 흔들리지만,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다.

어쩌면 '바람의 세월'은 모진 풍파에 끊임없이 흔들릴지언정 절대로 가라앉지 않겠다는 유가족들의 의지가 투영된 영화일지도 모르겠다. 이 같은 움직임은 엔딩 크레디트가 올라가는 와중에도 지속한다.

“언젠가 아이들을 만나는 날, 진실을 밝히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열심을 다했노라 말할 수 있기를.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손을 잡아줄 수 있기를. 오늘도 같은 자리에서 바라보고 또 바라봅니다.” -

영화 '바람의 세월' 중.

다시 김 작가의 말을 빌려보자. 평범했던 아버지가 직접 카메라를 들었다면, 지금 그의 내면에서 불길이 일어났다는 뜻이다. 불은 결코 홀로 타오르는 법이 없다. 그러니 그 불은 바깥 어딘가에서 그의 내면으로 번졌으리라.

아버지의 내면에 불길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그 불은 왜 아버지의 내면으로 번졌을까. 참사로부터 1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아직도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 이런 가운데 세월호 참사 10주기 위원회는 27일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 독립조사 기구를 꾸릴 수 있는 법 제정을 호소했다.

모든 게 불투명하지만,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 알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다. 삶의 전부가 여겼던 것이 사라져도 세상은 지속한다는 것. 흔들릴지언정 절대로 가라앉지 않겠다는 생의 의지는 송고하다는 것. 결국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위로받는다는 것.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을 기다리는 부모들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바람의 세월'은 내달 3일 국내 개봉한다.

송석주 기자 ssp@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창원 진해군항제와 통영국제음악제를 방문했다. 이어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창원국가산단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문화와 산업의 융합 방안에 대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나눴다.

28일 문체부에 따르면, 유 장관은 네 번째 '로컬로 캠페인'으로 진해군항제와 통영국제음악제를 방문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10월 지역의 문화콘텐츠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명소·명인 등 100곳을 선정해 '로컬100'으로 명명했다. 로컬로는 '로컬100 보러 로컬로 가요'의 줄임말이다. 유 장관은 지난해 12월 밀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창원·통영 찾은 유인촌 “지역관광, 세계화 지원”

전국 명소·명인 '로컬100' 선정된
진해군항제·통영국제음악제 방문

을 시작으로 강릉, 수원 등 매월 로컬100 현장을 직접 찾고 있다. 창원의 로컬100인 진해군항제는 군항(軍港)이 위치한 지역적 특성과 충무공 이순신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추모제(祭)를 결합한 행사다. 36만여 그루의 빛나무가 장식하는 빛꽃으로 더

욱 유명한 지역 대표 축제다.

이번 제62회 진해군항제의 표어는 '봄의 알츠, 우리 빛꽃사랑 할래요?'이다. 공식행사존(진해운동장), 참여·축제존(북원·중원 로터리), 힐링·워킹존(여좌천·경화역), 바다감성존(진해루), 군항도시존(해사·진기사) 등 총 5개 구역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통영의 '로컬100'인 통영국제음악제는 올해로 22주년을 맞이한 클래식 음악제다.

올해는 29일부터 내달 7일까지 열린다. '순간 속의 영원(Eternity in Moments)'을 주제로 페테르 외트비시의 '시크릿 키스' 한국 초연, '오로라' 아시아 초연 등 세계의 여러 초연 작품들을 소개한다.

유 장관은 통영페스티벌오케스트라가 펼치는 베를리오즈 '이탈리아의 해럴드'(양투안타메스티 협연)와 린스키코르사코프 '세헤라자드' 등 개막공연을 관람하고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한편 유 장관은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조성된 문화복합시설에서 청년기업인과 근로자, 지역 문화예술인을 만났다. 청년들이 살고 싶은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를 위해서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등이 함께했다.

유 장관은 “앞으로도 매월 로컬로 캠페인을 통해 지역이 지닌 매력을 국내외로 알려 우리 지역관광이 세계적인 문화콘텐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내외국인의 지역 방문이 활성화되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송석주 기자 ssp@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나는 또다시 '돌파'의 전선에 설 것이다.”

모두를 위한 돌파

정의와 진실을 위해 불의에 맞서온 어느 역사학자의 고군분투

우리에게 '세계전략'은 있는가?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면 국가전략이 곧 세계전략이어야 한다. 중국 전문가 서상문 박사가 정의와 진실을 추구해온 자신의 생애를 걸고 제안하는 '글로벌 코리아'의 가까운 미래. 기득권을 위한 법과 제도를 혁신하고, 동북아와 환태평양-형제국과 혈맹국을 새롭게 연결하는 '2원-2망 세계전략' 비전을 실현하는 것이 '홍익인간, 재세이화'를 구현하고 진정한 선진국으로 거듭나는 길이다. 이 회고록에서 저자는 그간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는 한편, 향후 대한민국의 동북아 입지를 변혁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한다.



모두를 위한 돌파 | 서상문 지음 | 18,000원 | 312쪽 | 문학의숲

문학의숲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7길 84 영화빌딩 | 전화 02-325-5676 | 팩스 02-333-5980 | 전국 모든 서점에서 구매가능합니다.



낮인데도 바다 위에 띄워진 고깃배는 정지화면처럼 가만히 멈춰 있다. 바위섬 저편으로 낚싯대를 드리우고 시선을 고정한 채 바다를 향한 낚시꾼의 뒷모습이 한가롭다. 물때에 맞춰 바닷길이 열리면 그 사이로 난 길을 따라 걸어서 당도하는 작은 섬의 기적을 날마다 마주한다.

바다를 앞에 두고 있는 그저 적요하기만 한 카페는 감성을 품었다. 섬이라는 음절이 전하는 서정성은 쓸쓸함과 평온함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이런 섬 안으로 찾아드는 자발적 고립이 주는 진정한 휴식, 더 볼 것 없다. 섬의 군락 고군산군도로 떠난다.

바다 위의 점

마음속의 섬

신시도,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 대장도. 다섯 개의 섬이 내륙과 다리로 연결된 고군산군도는 새만금방조제를 관통하며 섬으로 향한다. 시원하게 뚫린 30km가 넘는 방조제 도로가 바다를 가로질렀다. 길목마다 전망대와 쉼터가 마련돼 있고, 그중에 해넘이 휴게소는 신비로운 일출과 일몰을 보여주는 곳이다. 고군산군도의 관문 역할을 하는 고즈넉한 섬마을 야미도의 평온함도 스쳐 지나간다. 고군산군도에 닿기 전부터 가슴 확 뚫리는 풍광이 반기는 새만금방조제는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이기도 하다.



다도해 절경을 한눈에, 신시도

전북 군산시 남서쪽에 위치한 고군산군도는 60여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옛 군산의 섬 무리'라는 뜻의 고군산군도는 그 옛날 중국 사신 서궁이 고려 방문기를 남긴 견문록 '고려도경'에서 무리 지어 있는 섬을 보며 '바다위의 성'이라고 표현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특히 천혜의 경관과 생태자원으로 고군산 8경으로 불리며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그중에서 가장 먼저 신시도에 닿는다. 새만금방조제와 곧바로 연결된 고군산군도의 관문이며, 군도 중에서 큰 규모에 속하는 섬이다. 섬을 둘러싼 199봉에서 월령봉과 대각산으로 이어지는 신시도 산행은 산과 바다를 동시에 만끽할 수 있는 코스라서 찾는 사람이 제법 많다. 계절이 무르익을 때면 고운 단풍이 달빛 그림자와 함께 바다에 비친다는 월영단풍은 고군산 8경에 속한다.

섬 속의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은 우리나라 최초로 바닷가에 지어진 친환경 휴양림으로 매월 예약 경쟁이 치열하다. 숙박과 상관없이 입장료만 내면 휴양림 주변 탐방이 가능해서 평소에도 산책이나 트레킹을 위한 방문객들이 찾아든다. 산책로를 걸으며 만나는 달맞이화원이나 전망대를 지나면서 마주하는 숲과 탁 트인 바다는 복잡한 도시를 떠난 이들에게 해방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상쾌한 공기 속에서 내다보는 저 멀리 고군산대교의 주탑과 섬들이 눈앞에 시원하게 펼쳐진다.

원시적 풍광과 SNS 감성 품은 무녀도

신시도에서 곧바로 무녀도로 건너오면 따스한 섬마을 풍광이 맞아준다. 섬에 들면서 무녀

도라는 지명이 흑시 김동리 소설 '무녀도'와 관련 있을까 생각했지만 섬 이름의 유래는 따로 있었다. 섬의 형태가 마치 장구와 술잔을 놓고 춤을 추는 무당의 모습처럼 보여 무녀도라 불렀다고 한다.

무녀도에서는 단연 쥐똥섬이 볼거리다. 섬마을 앞바다 저편으로 몇 걸음도 안 된다. 물때에 따라 바닷길이 열리면 질퍽한 갯벌 사이로 섬까지 걸어가는 풍경은 그림처럼 아련하다. 쥐똥섬 해안길을 따라 조금만 더 걸으면 나타나는 똥섬 역시 독특하다. 약 9000만 년 전의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무녀도의 똥섬은 시간이 만들어낸 지질구조를 보여준다. 똥섬을 옆에 두고 자리 잡은 펜션 아래로 연결된 데크를 따라 걸어가면 가까이서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다.

근래 들어 사람들이 무녀도를 찾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섬 앞에 시선을 끄는 노란 버스 때문이다. 마을 주민들이 스쿨버스를 개조한 것이다. 무녀 2구 마을버스라는 버스 카페는 서해 오선부가 끝내준다. 청량한 바다와 푸른 하늘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이 만들어내는 섬 풍광은 비길 데 없게 아름답다. 이뿐 아니라 젊은 층에게 무녀도가 핫플로 소문난 데는 이국적인 버스 옆에 자리한 방탄소년단의 RM 벽화도 한몫한다. 오래된 바닷가 마을의 원시적 풍광과 함께하는 무녀도는 지금 SNS 감성이 풀풀 나는 매력 또한 품고 있다.

군도의 중심, 선유도

무녀도에서 다리 하나만 건너면 선유도다. 예전부터 고군산군도의 섬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섬이다. 섬 북단의 봉우리 형태가 마치 두 신선이 마주 앉아 바둑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 선유도다. 이름조차 신선이 놀던 섬이라는 선유도(仙遊島)는 군도의 중심 섬이다.



겨울 끝자락인데도 해변엔 제법 많은 사람들이 오간다. 선유 8경 중 하나로 고운 모래가 10리나 깔려 있어서 명사십리해수욕장으로 불리는 해변 너머로 망주봉이 등적하다. 그 옛날 역을하게 유배된 충신이 북쪽을 바라보며 임금을 그리워했다는 유래가 깃든,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113호인 망주봉이 물이 빠져나간 갯벌을 내려다보고 있다. 여름철엔 망주봉에서

떨어지는 빗줄기가 폭포수가 되어 시원한 불거리를 선사한다. 석양이 지는 바다가 붉게 물들어 장관을 이루는 선유낙조(仙遊落照)는 선유 8경의 으뜸이다. 요즘은 액티비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바다 위에서 즐기는 줌라인이나 전기 스쿠터와 자전거, 섬 투어를 위한 유람선, 도보 산책이나 갯벌 체험 등의 재미거리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주변에 옥돌해수욕장의 선유봉 등산길과 명품 데크길도 찾아볼 만하다.

아니 온 듯 다녀가시오, 장자도와 대장봉

이제 선유도 맞은편의 장자도를 가기 위해 장자대교 위를 달려간다. 장자도는 대장도를 가기 위한 길목인데 장자도의 호떡마을이 유명해서 오가는 여행자들의 손에 호떡 하나씩 들린 걸 쉽게 본다. 장자도에 딸린 대장도는 선유도나 무녀도에 비해 작은 섬이지만 오밀조밀한 섬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섬 깊숙이에서 맛보는 자발적 고립의 행복을 누려볼 만한 포인트다.



고군산군도에 들어섰다면 대장도의 대장봉을 빼놓을 수 없다. 오르는 코스는 두 군데 길이 있는데, 우측 장자할머니 바위 쪽 계단길이 수월한 편이다. 비밀의 정원처럼 좁은 숲속을 걷는 듯하다가 정자 쉼터에 앉아 잠깐씩 숨을 고르고 올라야

한다. 해발 140m 정도지만 절대 만만치 않다. 정자 쉼터 기둥에 쓰인 '아니 온 듯 다녀가시오' 글귀를 보면서 잠시 쉬었다가 구불길과 무섭게 경사진 계단을 다시 올라야 한다.

숲길 옆으로 바다를 향한 할머니바위는 아기를 업은 여자가 밥상을 든 모습이라고 한다. 한양으로 과거 보러 간 남편이 급제하여 돌아오자 아내의 정성을 다해 상을 차려 내왔건만 남편이 데려온 소식을 보게 되었고, 서운한 마음에 그대로 굳어서 바위가 되었다는 전설이 서려 있다. 숨차게 가파른 길을 오르고 섬에 담긴 이야기를 마주한다. 아시아의 숨은 명소로 CNN에서도 소개했던 고군산군도의 대장봉이다. 이윽고 마주하는 잔잔한 서해의 아스라한 섬 무리들이 자아내는 기운을 선사받는다. 땀을 식히면서 일몰 속에 잠긴 신비로운 섬 무리를 바라볼 수 있다면 더없는 행운이다. 크고 작은 섬들이 어우러진 다도해의 평화로운 풍광에 차분하게 압도당하는 순간이다.

글/ 이현숙 여행작가 bravo@ 사진/ 브라보 마이 라이프

산과 바다 동시에 만끽 '신시도' 휴양림 산책길 걸으며 유유자적 춤추는 무당 모습 담은 '무녀도' 바닷길 열리는 '쥐똥섬'서 인생샷 신선들이 노닐던 섬 '선유도' 하트모양 '명사십리 해변' 힐링 '장자도' 명물 호떡에 마음 든든 숨은 명소 '대장봉' 놓치면 아쉬워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청년의 꿈 하나증권이 응원합니다

내일의 도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증권이 '청년케어'로
청년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합니다.


하나증권 '청년케어'

하나증권은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에 등록된 약 20만명의 청년 중에서 건강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에게 종합검진 수준의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CC브랜드240108-0086

하나증권



수출 효자·상생 일꾼 '유통' 별처럼 빛났다

'K콘텐츠'가 세계 각국에서 주목받으면서 대한민국 유통·식품 기업들도 차별화된 상품을 무기로 해외 진출에 앞장서고 있다. 국내에선 소비자와 가장 가깝게 소통하고, 지역사회·사회적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한편 중소기업·소상공인과의 상생 행보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다양한 혁신을 통해 유통산업 발전과 소비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핵심 기업을 '2024 소비자 유통대상' 주인공으로 선정했다.

2024 소비자 유통대상 수상 기업

구분	시상	기업명
대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씨제이올리브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농심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장상	이랜드월드
	동반성장위원장상	롯데홈쇼핑, BAT로스만스,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	한국콜마
	한국유통학회회장상	쿠방, 롯데백화점
	한국소비자학회회장상	hy, 하이트진로
최우수상	소비자만족부문	오뚜기, 동서식품, 서울우유협동조합
	혁신경영부문	롯데칠성음료, 매일유업, 제주삼다수(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상생협력부문	파리바게뜨,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 KGC인삼공사
	사회공헌부문	오비맥주, 롯데지알에스, 애경산업

“불황·소비심리 위축 속 트렌드 선도... 성공 방정식 모범 보였다”

‘2024 소비자 유통대상’은 해마다 진화하는 한국 유통산업을 선도하고 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한 기업 및 혁신 브랜드를 발굴·시상하고 깊이 있게 소통하는 자리였다.

28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행사에서는 경기 불황과 소비심리 위축 상황에서도 꾸준한 혁신과 트렌드를 선도하는 경쟁력으로 성공 방정식을 쓰고 있는 많은 유통·식품·패션 기업들이 수상했다.

종합대상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은 차별화된 MD 경쟁력을 바탕으로 K-뷰티 생태계를 대표하는 플랫폼으로 거듭난 CJ올리브영이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CJ올리브영은 취급 브랜드의 80% 이상이 국내 중소기업, 인디 브랜드일 정도로 경쟁력 있는 국

내 중소 화장품 브랜드를 발굴·육성하는 한편, 이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마중물 역할을 한 것이 특히 높이 평가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은 맥태깡 신드롬을 일으키며 스낵시장을 선도한 농심이 수상했다. 올해 신설된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장상은 뉴발란스와 스파오를 앞세워 중국 시장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 이랜드월드가 받았다. 중소기업과의 상생 및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한 롯데홈쇼핑과 BAT로스만스, 대상은 동반성장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전 세계 최초로 친환경 패키징인 종이 튜브 상용화에 앞장서는 등 탄소 중립 경영에 앞장서온 한국콜마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

국유통학회회장상은 쿠방과 롯데백화점이, 한국소비자학회 회장상은 hy와 하이트진로가 각각 선정됐다.

최우수상 4개 부문 중 소비자만족 부문은 오뚜기, 동서식품, 서울우유협동조합이 받았고, 혁신경영 부문에서는 롯데칠성음료, 매일유업, 제주개발공사가 수상했다. 상생협력 부문은 파리바게뜨,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 KGC인삼공사가, 사회공헌 부문은 오비맥주, 롯데GRS, 애경산업이 각각 수상 기업으로 선정됐다.

김덕현 이투데이 대표이사는 “식품과 음료, 화장품, 패션 등 제조업은 물론 백화점과 마트, 편의점까지 이제 국내를 넘어 세계에 진출하는 유통 기업이 매년 계속 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표는 “그 어느 때보

다 혁신을 거듭하고 신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는 기업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며 “언제나 ‘고객이 가장 옳다’는 신념으로 소비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기업들을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동반성장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사)한국유통학회, (사)한국소비자학회 등이 후원했다. 김덕현 대표와 박종원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 전한영 농식품부 대변인, 한창훈 동반위 동반성장평가부장, 유현정 식약처 소비자위해예방국장, 이동일 한국유통학회 회장, 이우석 한국소비자학회 총무이사 등을 비롯한 유통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행사를 빛냈다. 김유연 기자 kyy0907@

종합대상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 씨제이올리브영

중소 신진 브랜드 키우는 K뷰티 대표 플랫폼

CJ올리브영(올리브영)은 차별화된 ‘MD 경쟁력’을 바탕으로 K뷰티 생태계를 대표하는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다.

올리브영은 현재 취급 브랜드 80% 이상이 국내 중소기업, 인디 브랜드로 수많은 뷰티 스타트업의 성장 발판이 되고 있다. 올리브영에 따르면 지난해 100억 원 이상의 연 매출을 기록한 ‘100억 클럽’ 브랜드의 절반 이상이 국내 중소기업 브랜드로 나타났다.

지난해 처음으로 올리브영에서 연 매출 1000억 원을 기록한 중소기업 브랜드도 등장했다. 색조 브랜드 △클리오와 섰크림으로 유명한 △라운드랩이 그 주인공들이다. 중소 브랜드들이 올리브영에서 유통하는 매출 규모 자체도 커졌다. 지난해 매출 상위 10대 브랜드 중 7개가 신진·중소 K뷰티 브랜드로 나타났다. △남버즈인 △닥터지 △라운 드랩 △롭 앤 △메디힐 △클리오 △토리든(이상 가나다순) 등이 국내외 대기업 브랜드들을 제치고 올리브영 판매 상위를 차지했다. 이같은 성과는 올리브영의 신생 브랜드 발굴 노력이 있기에 가능했다. 특히 올리브영이 팬데믹(2020년~2022년) 기간 발굴한 중소기업 브랜드 수가 300개에 달한다.

올리브영은 경쟁력 있는 국내 중소 화장품 브랜드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한편, 이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올리브영은 국내 오프라인 매장 중 외국인 고객 비중이 높은 60개 매장을 ‘글로벌 관광상권’으로 관리하고 있다. 해당 매장에는 외국어가 가능한 직원을 우선 배치하고 다국어 안내문을 비치하는 한편, 해외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주목도 높게 진열했다.



CJ올리브영 매장 전경. 사진제공 CJ올리브영

올리브영이 2019년 6월 론칭한 ‘올리브영 글로벌몰’은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한국 화장품을 편리하게 주문할 수 있도록 도입한 온라인 역지구 플랫폼이다. 유망 중소 브랜드의 해외 판로를 지원하며 K뷰티 수출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 K콘텐츠의 전 세계적인 인기가 K뷰티로 확산되면서 올리브영 글로벌몰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최근 3년(2020년~2022년) 올리브영 글로벌몰 취급고는 연 평균 84% 증가율을 기록했다. 취급 상품 수는 1만 5000여 개, 회원 수는 100만 명에 육박한다. 지난해에는 K뷰티 큐레이션 서비스인 ‘뷰티박스’를 새롭게 출시, 80개 중소기업 브랜드의 상품을 모은 체험형 상품을 글로벌 고객에게 선보였다.

올리브영이 육성하는 기초 및 색조 화장품 브랜드의 해외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리브영은 올해에도 각종 해외 마케팅과 물류 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돕는 한편, 올리브영이 브랜드링하는 상품의 해외 현지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입점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김유연 기자 kyy0907@

심사평 / 이동일 한국유통학회장

“유통기업의 다양한 혁신으로 사회 발전 기대”

이투데이가 주최하는 ‘2024 소비자 유통대상’은 올해 열네 번째 열리는 행사로,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유통학회, 한국소비자학회가 후원하고 있다. 지난해 대내외 약재 속에서도 유통산업을 이끌고 혁신적 사업방식의 재구성과 새로운 공급망의 구성, 서비스의 고도화를 이뤄낸 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심사위원회는 응모 기업들을 엄격한 심사기준으로 평가해 1개의 종합대상과 각 부처 장관상 등 대상 8개, 최우수상 등 총 23개 기업을 수상 기업으로 택했다.

종합대상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은 CJ올리브영이 수상했다. 올리브영이 중소 제조 브랜드의 시장 개척에 대한 플랫폼으로서 기여해 시장에서 유통 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례를 만들어 냈다는 점을 인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에는 농심이 선정됐다. 2023년에는 히트상품인 ‘새우깡’을 확대해 새로운 제품라인을 구축함에 따라 소비자의 스낵 소비에 대한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장상에는 이랜드월드를 선정했다. 소비자 선호를 파악해 한국 내수시장은 물론 중국 현지 시장을 재할성화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동반성장위원장상에는 롯데홈쇼핑, BAT로스만스, 대상이 선정됐다. 롯데홈쇼핑의 경우 ‘대외 브랜드 엑스포’를 통해 중소기업 브랜드의 해외 진출사업을 지원했다. BAT로스만스는 상품포장의 친환경 관리, 친환경 에너지원 활용 등을 통해 환경 경영에 힘쓰고 있다. 대상은 김치 브랜드 ‘중가’를 중심으로 우리 먹거리



의 품질 개선 및 국제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평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에는 한국콜마를 선정했다. 콜마는 친환경 소재의 개발을 통해 포장용기의 개선을 이루고 있는 노력에 주목했다. 한국유통학회회장상에는 쿠방과 롯데홈쇼핑이 선정됐다. 쿠방은 유통 물류 네트워크를 재구성해 신선식품, 음식배달 및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의 결합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홈쇼핑의 경우 베트남 하노이에서 신도심 상권 형성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유통 산업의 해외 진출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다. 한국소비자학회회장상에는 hy와 하이트진로를 선정했다. hy는 기능성 발효유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라인의 개발을 통해 국민건강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하이트진로는 새로운 맥아의 탐색과 개발을 통해 라거맥주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해 소비자 여가생활에 기여한 점이 인정됐다.

소비자만족부문 최우수상 수상 기업은 오뚜기, 동서식품, 서울우유 등 세 곳이다. 혁신경영부문에는 롯데칠성음료, 매일유업, 제주삼다수가, 상생협력부문에는 파리바게뜨, 코오롱FnC, KGC인삼공사가 이름을 올렸다. 사회공헌부문에는 오비맥주, 롯데GRS 애경산업이 선정됐다.

유통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활동의 혁신적 개선을 통해 우리 사회에 부여된 다양한 도전 과제에 대한 사회적 해결책이 더 쉽고 빠르게 제시되고, 발전하는 사회가 되기를 기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 농심

출시 9개월 만에 1500만봉 팔린 메가히트 스낵 ‘떡태강’

농심은 작년 스낵 시장에 메가히트 제품을 출시하며 큰 화제를 모았다. 출시 직후부터 품귀 현상을 빚으며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떡태강’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기존의 익숙한 제품만 즐겨 찾는 경향이 강한 식품 시장에서, 2023년 농심 떡태강은 뚜렷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최고 인기 스낵으로 등극했다.

지난해 6월 말 출시된 떡태강은 현재 누적 판매량 1500만 봉을 돌파했다. 실제로 떡태강은 출시 직후부터 ‘떡주 안주로 어울리는 스낵’, ‘진정한 어른용 과자’로 평가받으며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이후

미투 제품이 속속 출시되면서 이전에 없던 어른용 안주 스낵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 형성과 있다.

떡태강은 맥주 안주로 인기가 많은 떡태의 맛을 스낵에 접목한 제품이다. 떡태 특유의 풍부한 감칠맛이 특징이며, 떡태와 함께 소스로 곁들이는 청양마요맛을 첨가해 짭짤하면서 알싸한 맛을 살렸다.

떡태강은 농심이 매년 연구원과 마케터를 대상으로 신제품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챌린지페어’에서 2021년 대상을 받은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으로 선보인 것이다. 떡태강을 제안한 연구원은 어른들의 안주라고 생각했던 떡태를 MZ세대가 노포 맥주집에서

즐거 먹는 모습에서 힌트를 얻었다.

농심 관계자는 “떡태의 감칠맛과 청양마요 소스에 짝어 먹는 듯한 알싸한 맛을 구현한 점이 특히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인 것 같다”며 “연말연시 모임이 많은 시점에 가벼운 술자리 모임에서는 떡태강을 안주로 즐겨보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매출에도 날개를 달았다. 2023년 매출 3조4106억원, 영업이익 2121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9.0%, 영업이익은 89.1% 증가한 사상 최대 실적이다.

해외법인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25% 늘어 전체 이익 개선을 이끌었다. 특히 미국법인은 제2공장 가



농심 ‘떡태강’. 사진제공 농심

동 효과로 현지 유통업체 매출이 확대되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0.4%, 131.4% 늘었다.

김지영 기자 kiy42@

동반성장위원장상 / 대상

사람·사회·자연 지속가능 건강 추구 ‘제로캠페인’

대상은 ‘사람과 자연 모두가 건강한 세상’이라는 미션 아래 ‘사람, 사회, 자연의 지속 가능한 건강 추구’를 사회공헌비전으로 선정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경영이념인 ‘존중’을 반영해 건강한 먹거리 나눔(사람 존중)과 지역사회 복지 증진(사회 존중), 온실가스 감축 활동(자연 존중)을 꾸준히 추진 중이다. 이는 지역사회에 대한 진정성 있는 기여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공헌 성과 관리를 위한 것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연계해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전략과 체계를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다.

사람, 사회, 환경의 모든 위해 요소를 제거한다는 의미에서 사회공헌 사업을 ‘제로(ZERO) 캠페인’으로 이름 짓고 △청정원 봉사단 △푸드뱅크 사업 △온실가스감축 사업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 다양한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나눔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임직원들로 구성된 청정원봉사단은 평일 근무시간을 이용해 자율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휴일이 아닌 평일 근무시간의 봉사활동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봉사활동의 능력을 높일 수 있다. 이와 별도로 2013년 청정원 주부봉사단을 창단하여 현재 11기를 운영 중이다.

저소득 가정을 위한 대상의 대표적인 활동은 연말마다 개최되는 ‘나눔수룩 맛있는 행복’ 행사와 사랑나눔 바자회, 종가봄 김장 나눔 행사 등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한부모 가족캠프’, 매년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안정적인 혈액수급과 범국민 헌혈문화 확산을 위한 ‘대상그룹 전국민동참 헌혈캠페인 레드챌린지’ 등 1회성 활동이 아닌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 중이다.

김지영 기자 kiy42@



종가 ‘포기김치’. 사진제공 대상

한국유통학회회장상 / 쿠팡

수백만 상품을 몇시간 만에 집앞까지 ‘물류혁신’

쿠팡은 신선식품을 포함한 수백만 개의 상품을 1년 365일, 단 몇 시간 내에 전국으로 배송하는 혁신을 실현 중이다. 로켓배송을 통해 수백만 개의 상품 선택권을 평균 12시간 내 배송한다. 또 온라인 장비 서비스인 로켓프레시를 통해 고객이 필요한 모든 식품을 친환경 프레시백으로 배송한다.

특히 엔드투엔드(end-to-end) 물류 네트워크, 고객 중심 문화를 통해 빠른 서비스, 넓은 선택의 폭,

낮은 가격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모두 이뤄내면서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쇼핑 앱에 이름을 올렸다. 쿠팡에 따르면 최근 3개월 간 쿠팡을 이용한 활성 고객은 2040만 명이다. 이 가운데 유료 멤버십인 와우 회원은 약 1100만 명이다.

쿠팡은 고용, 근무환경 개선 등에도 적극 뛰어든다. 쿠팡은 물류센터 직원과 배송 직원을 직고용 중이다. 쿠팡의 인공지능(AI) 배송 시스템은 매일

배송캠프로 들어오는 물량과 그날 출근인원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직원마다 적합한 물량을 배정한다.

또 쿠팡 물류센터에 도입된 자율운반로봇(AGV)과 자동포장기(오토베거) 등 자동화 시스템은 직원들의 업무강도를 크게 낮췄다.

쿠팡은 중소상공인과 상생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쿠팡에서 거래하는 판매자 10명 중 7명이 중소상공인이다. 연간 중소상공인 판매자 수 증가율은 20%에 달한다.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쿠팡 입점 중소상공인 매출은 120% 성장했다. 쿠팡은 중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조5000억 원 이상을 투자했다.

유승호 기자 peter@



쿠팡 물류센터에 도입된 자율운반로봇(AGV). 사진제공 쿠팡

최우수상 / 오뚜기

식품소재서 주식산업까지 질주 26년만에 라면부문 NCSI 선두

오뚜기는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 있다. ‘2023년 국가고객만족도(NCSI)’ 라면 부문에서 26년만에 처음으로 단독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창립 55주년을 맞은 오뚜기는 식품을 통해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추구한다는 비전으로 제품을 생산해 왔다.

끊임없는 기술 개발로 조미식품, 전통식품, 식품소재를 넘어 라면, 즉석밥, 컵밥, 만두, 냉동식품, 국산차, 냉동빵, 디저트 등 주식 산업으로의 확장을 통해 국내 식품 산업의 선진화에도 기여했다. 국내 식품사 중 가장 많은 1등 제품도 보유 중이다.

제품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 중이다. 기계 이력 관리 시스템을 전산 데이터베이스(DB)화해 관리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임직원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 지속적인 품질보증을 위해 매년 1월 품질 기획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11월은 원료 총점검의 달로 지정, 원부자재의 기준, 규격, 표시사항을 검증하고 있다.

김지영 기자 kiy42@



오뚜기 카레 생산 공장. 사진제공 오뚜기

최우수상 / 동서식품

국내 커피믹스 시장 ‘부동의 1위’ 한국인 입맛에 맞는 캡슐 신제품

1968년 창립한 동서식품은 커피믹스, 인스턴트 커피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며 국내 커피 시장을 선도해 왔다. 특히 1980년 커피의 대중화를 이끈 ‘맥심’을 탄생시킨 후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제품 혁신으로 ‘국민커피’로 불리는 맥심 모카골드와 카누를 차별로 탄생시켰다.

국내 커피업계 1위를 차지하던 동서식품은 2023년 소비자들이 캡슐커피를 마시며 느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최상의 커피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프리미엄 캡슐커피 브랜드 ‘카누 바리스타(KANU BARISTA)’를 출시했다. 카누 바리스타는 동서식품의 50여 년 커피 제조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커피인 아메리카노에 특화된 맛과 용량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올해 초에는 신제품 캡슐커피 머신 ‘카누 바리스타 펄블’ (KANU BARISTA PEBBLE)을 출시했다. 기존 머신 대비 작은 사이즈와 슬림한 디자인으로 좁은 공간에서도 활용도가 뛰어나 소비자들의 다양한 취향에 맞춰 선택의 폭을 넓혔다.

김지영 기자 kiy42@



‘카누 바리스타 캡슐’ 제품. 사진제공 동서식품

최우수상 / 서울우유협동조합

87년간 우유로 세상을 건강하게 혁신적 품질향상 ‘나100%’ 출시

서울우유협동조합은 1937년부터 87년간 고객의 건강을 생각하며 우유 품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는 혁신과 노력을 계속했다. ‘우유로 세상을 건강하게’라는 경영이념 아래 건강하고 품질 좋은 유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비자에게 가장 신선한 우유를 전달한다는 사명 아래 1984년 국내 최초로 목장에서 생산한 우유를 소비자가 마실 때까지 유통 전 과정을 냉장 상태로 이뤄지도록 하는 ‘롤드체인 시스템’을 도입했다. 2005년 국내 최초 세균수 ‘1A등급’ 우유를 출시해 우유 품질을 낚는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렸고 2009년에는 ‘제조일자 병행 표기제’를 도입해 신선도 높은 우유를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객관적 기준을 제시했다.

우유 품질 향상을 위한 혁신적인 시도를 거듭한 결과 대표 제품 ‘나100%’ 우유를 출시했다. 나100% 우유는 세균수 1A등급에서 체세포수까지 1등급 원유만을 사용한 두 개의 1등급 프리미엄 우유다. 서울우유는 체세포수 1등급 원유를 생산하기 위해 전용목장에서 생산한 원유만을 등급에 따라 분리 집유하고 있다.

김지영 기자 kiy42@



서울우유 ‘나100%’ 우유. 사진제공 서울우유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이랜드월드

이랜드월드, 매출 3조 눈앞... 한국 이어 중국서도 '성공신화'

국내 패션 기업 중 매출 1위 이랜드월드(이랜드)의 성장세는 최근 패션업계에서 단연 화제다. 지난해 한국과 중국 패션매출을 합치면 3조 원에 육박한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고배를 마시고 떠난 중국 시장에서도 이랜드의 성장 신화는 현재 진행형이다. 패션유통기업 중 중국에 본사를 두고 직접 브랜드와 매장을 운영하는 이랜드는 올해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것을 자신한다.

이랜드의 모든 주요 브랜드가 역대 최고 실적 경신을 자신하고 있는데, 특히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뉴발란스는 연이어 최고 실적 행진을 하고 있다. 2008

년 이랜드가 한국 뉴발란스 전개를 시작할 때만 해도 연 매출 250억 원 규모의 중 소형 스포츠 브랜드였다. 이후 2019년 4700억 원, 2020년 연 매출 5000억 원을 돌파하고 2021년 6000억 원, 2022년 7000억 원의 매출을 냈다. 올해는 국내 9000억 원, 중국에서 28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또 단일 브랜드로 한국과 중국에서 1조18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게 된다. 15년 만에 48배 성장한 것.

뉴발란스의 성장에는 세대를 막론하고 큰 인기를 끄는 스니커즈의 흥행이 주효했다. 국내 소비자의 요구와 트렌드에 맞춰 새로운 색상과 디자인의 스니커

즈를 선보였고, 예전에 흥행했던 모델을 복각해 출시하는 전략이 MZ 세대의 지갑을 열었다. 대표적으로 530과 2002 시리즈는 이랜드 신발 기획 MD가 국내 트렌드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글로벌 본사에 출시를 제안해 히트한 상품이다. 530 시리즈는 2022년에만 누적적으로 100만 켤레 이상 판매됐고, 지난해에도 70만 켤레 넘게 판매됐다.

한국 이랜드 뉴발란스가 직접 디자인하고 출시하는 의류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 패션업계가 모태인 이랜드의 디자인 및 상품기획 역량과 글로벌 헤리티지 스포츠 브랜드가 만나 기존 스포츠 브랜드에서 찾아



'뉴발란스' 스타필드 수원점 전경. 사진제공 이랜드월드

볼 수 없는 파스텔 톤의 패셔너블한 의류가 탄생했다. 2013년부터는 글로벌 최초로 키즈라인을 론칭하고 성인 뉴발란스의 성공원리를 그대로 이식해 아동복 시장 1등 지위를 지키고 있다. 김유연 기자 kyy0907@



롯데백화점 본점 외관 전경. 사진제공 롯데쇼핑

한국유통학회회장 / 롯데백화점

200개가 넘는 팝업 스토어... 'MZ 쇼핑성지'로

고물가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는 상황에도 롯데백화점은 주요 점포를 중심으로 매출이 날개를 달고 있다. 신규 브랜드 발굴은 물론 이색 콘텐츠를 적용한 팝업에 공들이며 젊은 소비자 공략에 힘을 쏟고 있다. 이같은 노력에 국내에선 유일하게 2조 이상 백화점 점포 2개를 보유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본점은 2023년 2조 매출을 돌파했다. 특히 명동과 가까운 본점은 외국인 관광객들도 사로잡고 있다. 상권과 연계한 대형 이벤트를 비롯 마명

킴, 앤더슨벨과 같은 글로벌 인기의 'K패션 유티' 등으로 본점의 작년 외국인 관광객 매출이 2022년 대비 4배가량 크게 증가했다.

잠실점은 지난해 2조5982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특히, 잠실 롯데월드몰은 MZ세대를 타깃으로 하는 국내 최초의 플래그십 매장들과 F&B 매장의 입점, 아트리움 광장에서 펼쳐지는 체험형 초대형 팝업 등으로 MZ들의 성지로 인기를 끌고 있다.

에비뉴얼 잠실점의 경우 3대 럭셔리 브랜드인 에

르메스, 루이비통, 샤넬이 모두 입점해 명품백화점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신규 콘텐츠들을 연이어 선보이며 국내외 고객을 모두 사로잡는 데 성공했다. 대표적으로 잠실점은 롯데월드몰을 중심으로 '노티드 월드', '런던 베이글 뮤지엄' 등 브랜드 100여개와 200개가 넘는 팝업으로 고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해외 사업 확대에도 힘을 주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베트남 하노이에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를 성공적으로 오픈했다. 이곳은 올해 1월 21일 그랜드 오픈 122일 만에 누적 매출 1억 원을 달성하며 하노이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잡았다.

문현호 기자 m2h@

한국소비자학회회장 / 하이트진로

6개월 만에 2억병... 대세맥주 자리잡은 '켈리'

하이트진로의 '켈리(Kelly)'는 기존 라거 맥주와는 차별화된 원료와 공법을 적용한 맥주다. 지난해 4월 출시 후 약 6개월 만에 2억 병 판매를 돌파하며 새로운 대세 맥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켈리(KELLY)는 'KEEP NATURALLY'의 줄임말로 인위적인 것을 최소화하고 자연주의적 원료, 공법, 맛을 추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켈리는 덴마크에서 북대서양의 해풍을 맞으며 자란 프리미엄

맥아만을 100% 사용하고 두 번의 숙성 과정을 거친 것이 특징이다. '더블 임팩트 라거'라는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을 공개하며 기존 맥주에서 공존하기 힘든 두 가지 맛인 부드러운 첫 맛과 강렬한 끝 맛을 강조했다. 상반된 두 가지 맛의 조화를 위해, 지난 3년간 부드러운 맥아를 찾고 완벽한 균형의 주질을 만들어내는 공법을 연구, 개발했다. 또한 7°C에서 1차 숙성한 뒤, 영하 1.5°C에서 한번 더 숙성시켜 강렬한 탄

산감을 더한 '더블 숙성 공법'을 통해 최적의 온도에서 만들어지는 완벽한 맛의 균형을 찾았다.

패키지 역시 기존 제품과 차별화했다. 국내 레귤러 맥주 최초로 '앰버(Amber)' 컬러 병을 개발해 적용했다. 병 모양 또한 장인이 정성껏 깎아낸 것처럼 디자인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국내 주류회사 최초로 100주년을 앞둔 대한민국 대표 종합주류기업으로서 맥주 본질에 집중한 결과물"이라며 "원료, 공법, 패키지까지 기존 라거에 대한 모든 편견을 파괴하는 '라거의 반전'이라는 콘셉트로 탄생한 만큼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kij42@



출시 6개월 만에 2억 병 넘게 팔린 하이트진로 '켈리'. 사진제공 하이트진로

최우수상 / 롯데칠성음료

"칠성사이다처럼 맑은 세상" 이웃돕기·환경캠페인 앞장

롯데칠성음료는 '맑고 깨끗한 세상을 만든다'는 비전 실현을 위해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실천해 나가고 있다.



롯데칠성음료 안성공장 전경. 사진제공 롯데칠성음료

먼저 소외된 이웃과의 소중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국 푸드뱅크 제품 기탁 △취약계층 시설 및 단체 제품 후원 △칠성사이다 나눔 저금통·플랫폼 무료급식 후원 △노바스기념병원 환자 재활 프로그램 정기 후원 △세상 하나뿐인 내 신발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환경 오염을 줄이는 차원을 넘어, 사업의 근원인 물을 보호하고 환경캠페인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용수의 재활용을 통한 자발적 감량 달성과 국제 연안정화의 날 행사 참여 및 공식 후원을 도모하고 있다.

미래사회의 필요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사회와 고객·파트너와 함께 하는 '상생'도 실천하고 있다. 이 일환으로 칠성사이다 미술영재 장학 캠페인과 지역 인재 육성 장학금 전달을 통해 영재 학생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후원하고 있다. 김유연 기자 kyy0907@

최우수상 / 매일유업

고객 10만명 체험 마케팅 오트 음료 '어메이징 오트'

매일유업은 2021년 오트(귀리) 음료 브랜드인 '어메이징 오트'를 론칭한 이래로 소비자에게 브랜드 경험을 전달하는 체험 마케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매일유업 오트 음료 '어메이징 오트'. 사진제공 매일유업

출시 첫해에는 MZ세대를 공략하기 위해 서울 성수동에 비건 카페 콘셉트로 어메이징 오트 팝업스토어를 열었다. 어메이징 오트를 활용해 만든 다양한 음료들과 디저트를 판매하고, 귀리로 꾸민 인테리어와 포토존을 만들어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브랜드를 경험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난해 11월에는 신제품 어메이징 오트 '커피'와 '초콜릿' 2종도 출시했다. 부드러운 풍미로 어떤 식품과도 잘 어울리는 오트의 장점을 살려 RTD(Ready To Drink) 음료로 바로 마실 수 있는 오트 커피와 오트 초콜릿 음료를 선보인 것이다.

신제품 출시와 함께 10만 명 이상 대규모 고객들이 제품 체험을 할 수 있는 '어메이징 오트, 어메이징 초이스' 캠페인도 열었다. 이벤트를 시작한 첫날, 1차 물량에만 약 2만 명 이상 신청자가 몰리면서 조기 품절을 일으키기도 했다. 김유연 기자 kyy0907@

최우수상 / 제주삼다수(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연간 2만회 이상 수질검사 26년째 최고 물맛 '삼다수'

제주삼다수는 국내 유일 한라산 단일수원지의 뛰어난 수질을 바탕으로 1998년 출시 이후 꾸준히 소비자에게 사랑받고 있다. 제주삼다수는 한라산 해발 1450m 높이에 스며든 강수가 천연 필터인 화산송이층에 의해 18년 동안 걸러진 결정체다. 원수의 수질이 매우 순하고 깨끗해 고도의 정수 처리 과정 없이 여과 및 자외선 살균과 정만 거쳐 천연 미네랄 그대로 제주삼다수가 생산된다.



제주삼다수. 사진제공 제주삼다수

제주삼다수는 우수한 수질과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수원지부터 취수원 주변 환경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환경부가 정한 법적 기준의 10배 많은 연간 2만 회 이상의 수질검사를 진행해 수질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수질 보호를 위해 취수원 주변의 잠재 오염원 모니터링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제주삼다수를 생산·판매하는 제주개발공사는 2021년 업계 최초로 환경부가 지정하는 국가 공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되며 삼다수의 수질 신뢰도 제고 및 자체 검사의 공신력을 입증했다. 김유연 기자 kyy0907@

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 / 한국콜마

세계 최초 '종이튜브' 상용화 앞장... 탄소중립 경영 속도

화장품 및 의약품 연구개발·제조 전문 기업 한국콜마는 환경 경영을 추구하기 위해 제품 및 서비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환경오염 사고 예방과 개선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한국콜마는 폐기물 발생량, 수질오염,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저감을 위해 지속 노력하는 한편 전 임직원이 환경 방침을 이행하고 협력회사, 관계사 등도 환경친화적 경영을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한국콜마는 전 세계 최초로 친환경 패키징인 '종이튜브' 상용화에 앞장서며 탄소 중립 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종이튜브는 플라스틱 사용이 불가피한 캡(뚜껑)을 제외한 본체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80% 줄인 친환경 화장품 용기다. 종이튜브

는 튜브 모양을 원형, 하트형, 원통형 등 다양하게 만들어 낼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또 종이재질 선택이 자유로워 최근 유행인 레트로 감성부터 고급 화장품 느낌까지 표현할 수 있다. 종이튜브 패키지는 미국 IDEA, 독일 IF·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등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의 본상을 모두 받으며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기도 했다.

또한, 한국콜마는 비(非)목재 종이로 만든 스틱형 화장품 용기인 '종이스티크'도 개발했다.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종이튜브에 이어 약 3년 만에 이뤄낸 친환경 패키징 연구개발 성과를 낸 것. 종이스티크는 립밤, 멀티밤, 선스틱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용기를 종이로 대체한 친환경 화장품 용기

다. 제품을 고정하는 뒷마개를 제외하면 전부 종이로 구성됐다. 뒷마개도 종이 성분을 51% 포함한 HDC현대EP의 친환경 제품을 사용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최대한 줄였다. 이를 통해 기존 스틱형 용기 대비 플라스틱 사용량을 86%가량 감소시켰다. 핵심이 되는 몸체는 비목재 종이 미네랄 페이퍼(Stone Paper)를 활용했다. 폐기 시 빛에 의해 자연분해 되어 원래의 형태인 돌가루로 돌아가는 친환경 소재다. 내구성과 내수성이 높아 쉽게 찌어지지 않고 방수·방습에 강하다. 일반 종이 1톤(t)을 미네랄 페이퍼로 대체하면 나무 20그루, 물 2만 8000리터(l)를 절약할 수 있다.

한국콜마는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응하고자 온실



한국콜마가 개발한 '종이튜브'(왼쪽)와 '종이스티크' 사진제공 한국콜마

가스 저감방안을 환경 경영에 반영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대상인 전기, 가스, 용수, 유류의 절감을 위해 형광등은 LED 전등으로 교체하고 용수를 재활용하는 등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 사업장마다 에너지 소비량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저감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김유연 기자 kyy0907@

동반성장위원장상 / 롯데홈쇼핑

중소 해외수출 판로 개척 지원... 동반 성장 노력

롯데홈쇼핑이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해외수출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등 동반 성장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롯데홈쇼핑의 상생 프로그램 '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를 2016년부터 열고 있다. 2022년부터는 롯데그룹 계열사와 연계해 행사 규모를 확대했다.

지난해 5월과 9월에 호주 시드니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 수출상담회를 진행했다. 두 나라는 최근 한류 콘텐츠로 K-Food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역으로 한국 소비재 수요가 높은 곳들이다.

또한 경력단절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인재를 대상으로 취업 교육부터 파트너사 면접 기회를 제공하는 '상생일자리'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했다. 작년부터 청년 전체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미디어 콘텐츠 전문가 취업을 지원하고, 싱가포르 해외연수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수료자들을 대상으로 모바일TV '엘라이브'에서 상품 판매 경험을 제공



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 수출상담회 포스터. 사진제공 롯데홈쇼핑

하는 특집 방송 '크크쇼핑'도 운영하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향후 동반 성장을 비롯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11월 ESG 경영 슬로건 '오늘 실천하면 달라지는 내일'을 발표했다. 롯데홈쇼핑은 ESG 경영의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임직원의 관심과 공감을 강화하기 위해 슬로건을 제정했다. 슬로건에는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경영 실천에 대한 의지와 보다 나은 내일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메시지를 담았다. 문현호 기자 m2h@

최우수상 / 파리바게뜨

청년 농가 농산물 수매... 상생 행보 '베리 굿'

SPC그룹이 운영하는 파리바게뜨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철학을 강조하며 가맹점, 지역 농가와 상생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동반 성장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먼저 어려움을 겪는 국내 농가나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 농가의 농산물을 수매하고 이를 활용한 제품을 출시하는 '행복상생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2020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5년 차를 맞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대표적으로 논산 청년 농부들이 키운 '비타베리' 품종 베이커리 제품 최적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참여하고, 판로와 수익 확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신제품을 선보였다.

파리바게뜨는 청년 농부 지원을 통해 농가의 신제품 재배 확대, 품질 개선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지도록 힘을 지속해서 보태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강원 평창 감자, 제주 구과 당근, 전남 무안 양파 등을 활용한 제품을 선보이며 상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가맹점과의 상생협약 등 공정거래 확립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가맹점과의 상생 실천을 통해 가맹점 경쟁력을 강화하고,



SPC의 베이커리 브랜드 파리바게뜨가 '행복상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충청남도 천안의 청년 농부들이 키운 블루베리를 수매하고, '햇블루베리 케이크' 2종을 한정판으로 선보였다. 사진제공 파리바게뜨

가맹점주의 경영 여건 안정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해 3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장기 점포 상생협약 선포식'을 진행하고 가맹점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에 힘을 쏟았다.

2009년부터 자율 분쟁 조정 시스템인 '상생위원회'를 운영, 2021년 초 공정거래위원회와 '장기점포 상생협약 선포식'을 통해 10년 이상 운영 점포의 안정적인 재계약을 허용하는 등 가맹점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문현호 기자 m2h@

최우수상 /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

소도시 동행... 특산물 홍보·지역색 상품화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코오롱FnC)은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국내 소도시와 상생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코오롱FnC가 전개하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에피그램'은 우리나라 소도시를 돕기 위해 로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에피그램은 매 시즌 인구 소멸 지역 군 단위의 소도시 1곳을 선정, 그 지역만의 자랑거리를 에피그램의 상품에 적용해 제작한다. 또 특산물을 직접 에피그램 매장에서 소개하거나 현지에서 마케팅을 진행하는 등 시즌마다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에피그램의 로컬 프로젝트는 2017년 봄·여름(SS) 시즌 제주도에서 시작했다.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제주에 머물다'를 주제로 한 캠페인을 시작으로 경주, 광주, 하동 등을 차례로 소개했다.

소도시를 대표하는 특산물의 컬러를 에피그램의 시즌 컬러로 선정해 의류도 만든다. 고창의 복분자, 옥천의 복숭아와 청포도, 청송의 백자, 고성 of 표고 버섯, 논산의 시목인 느티나무의 컬러들이 에피그램의 옷으로 탄생했다.

해당 도시의 특산물도 에피그램의 매장으로 옮겨



코오롱FnC가 전개하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에피그램'이 경북 울진군과 함께 진행한 14번째 로컬 프로젝트. 사진제공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

왔다. 판매처가 많지 않은 지방의 상품들을 에피그램 매장에서 소개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다. 하동의 벚꽃차, 서천의 갈꽃비(빗자루), 고성의 유기농 쌀과자, 강진 다산명차 등 상품들은 에피그램 매장을 방문한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단순 여행을 넘어 해당 지역에서 '살아보기'를 체험을 제공하는 올모스트홈 스테이 바이 에피그램도 진행했다. 고창과 청송, 하동을 거쳐 2022년 연말 올모스트홈 스테이 강진이 문을 열었다.

문현호 기자 m2h@

최우수상 / KGC인삼공사

가맹점 매출 확대 위해 광고·프로그램비 지원

KGC인삼공사는 마케팅 비용, 매출 확대 프로그램 지원 등 가맹점사업자와 상생에 나서고 있다.

2004년부터 정관장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한 KGC인삼공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련한 '표준가맹계약서'를 전면 도입해 공정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 가맹점사업자와 공정한 사업관계가 유지되도록 법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 또 프로모션 분담에 대한 '사전 동의 제도' 시행으로 개정된 가맹사업법도 성실히 준수하고 있다.

KGC인삼공사는 가맹점사업자 단체와의 매월 정기 미팅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상생을 위한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협의를 통해 판촉행사 전 프로모션 내용 및 비용 분담을 결정하고, 매출확대를 위해 각종 광고비, 가맹점사업자 단골고객 유치를 위한 '우수고객 CRM 프로그램(생일서비스 등)'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또 다른 가맹점사업자와의 대표 상생 사례로 KGC인삼공사가 운영중인 온라인몰 '정관장몰'과 가맹점 매출 연계가 가능한 O4O(Online for offline)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이 이프로그래를 통해 정관장몰에서 고객이 정관장 제품을 구



하철호 KGC인삼공사 대표이사가 지난해 7월 서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정관장 우수 가맹점 시상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KGC인삼공사

매시 고객과 가맹점을 1:1 매칭해 온라인 판매가 가맹점 매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했다.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상품진열 코칭, 세일즈 방법 등 가맹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코칭이 이루어진다. 반기 1회 분사 100% 비용부담으로 간판 청소도 지원한다.

KGC인삼공사는 지난해 7월 '2023 정관장 우수 가맹점 시상식'도 진행했다. 정관장 우수 가맹점 시상식은 매년 공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 가맹점을 선정해 시상한다. 문현호 기자 m2h@

동반성장위원장상 / BAT로스만스

“더 깨끗한 내일 위해”... 패키지 30% 축소·오페수 1.8만톤 재활용

BAT로스만스는 탄소 배출량 감축, 지역사회 환경 개선 등 ‘더 깨끗한 내일(Clean Tomorrow)’을 위한 기업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 사회적으로는 청년 인재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내일의 한국 인재(Tomorrow’s Korean)’를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BAT로스만스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친환경 3대 원칙(Reduce, Replace, Recycle)을 지키고 있다. 글로 제품의 패키지 크기를 기존 대비 30% 축소하는 ‘에코 패키지’를 도입, 제품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 및 자원 사용을 줄이고 있다. 2021년 하반기부터는 친환경 기기 반납

프로그램 함께 운영하며 기기 생산부터 폐기까지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 중이다.

특히 경남 사천에 있는 생산공장을 중심으로는 다양한 환경 관련 시설에 적극 투자 중이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비 등을 통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설비 운영에 쓰이는 오페수 역시 정화해 재활용한다. 현재 태양광발전시설은 연간 최대 1435kW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총 781톤(t)의 이산화탄소 발생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소나무 5만5784그루를 이식하거나 화력발전소 석유 1930드럼을 절감할 수 있는 수준이다. BAT로스만스는 주차장을

포함한 시설 전반으로 이를 확장해 총 1만6000㎡에 달하는 태양광 발전 모듈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오페수 정화장치를 설치해 설비 운영에 소요되는 연간 1만8000여 톤 오페수를 정화해 재활용하고 있다. 이는 올림픽 규격 수영장 7개를 채울 수 있는 규모다. 현재 수자원 재활용률은 51%로 사천 공장은BAT 글로벌에서 1위로 가장 높은 재활용률을 기록하고 있다. 2021년에는 국제수자원 관리동맹(International Alliance for Water Stewardship, AWS) 인증을 획득했다.

이밖에 공장이 위치한 사천 지역에선 인재 육성 프로그램과 지역 사회 지원 사업도 적극 펼치고 있다. 2018년부터 사천문화재단과 상호 협약을 바탕



BAT로스만스의 ‘꽃밭(꽃BAT) 캠페인’에서 자원봉사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BAT로스만스

으로 지역 예술인들과 청년 인재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펼쳐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지방에 있는 지역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해에는 사천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연말 콘서트를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유승호 기자 peter@

한국소비자학회장상 / hy

비피더스균 첫 국산화... 위·장·간 라인업 완성

hy(옛 한국아쿠르트)는 ‘건강사회건설’이라는 창업이념을 바탕으로 1969년 유산균발효유를 국내에 처음 선보였으며 현재의 보편적인 건강음료로 자리잡기까지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해 왔다.

1976년 식품업계 최초로 중앙연구소를 설립,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연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hy에 따르면 현재 80명 가까운 전문 인력이 유산균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1995년 10여 년의 연구 끝에 국내 최초로 한국형 비피더스 균주 개발에 성공, 비피더스균의 국산화를 이뤄내기도 했다.

2000년대 초반부터는 기능성을 강화한 발효유 제품을 잇달아 개발, 장(腸) 중심의 발효유 시장에서 기능성 발효유 산업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2000년 9월 위건강 발효유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을 출시하며 발효유 산업 성장을 이끌었다. 2004년 쿠팡, 2019년 MPRO3를 출시하며 위·장·간 라인업을 완성했다. 이어 작년에는 ‘스트레스케어 씬’을 선보이며 멘탈헬스케어로 영역을 확장했다.

프로바이오틱스 연구 기술력은 hy의 경쟁력이 다.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개발하는 hy 중앙연구



hy 중앙연구소 연구원이 프로바이오틱스 균주를 검사하고 있다. 사진제공 hy

소에는 균주를 냉동 보관하고 있는 균주라이브러리가 있다. 균주라이브러리에 보관되고 있는 균주는 5019종으로 전국 최대 규모다.

중앙연구소는 수집한 균주의 기능성 연구를 통해 신제품을 개발한다. 2020년부터는 B2B 브랜드 ‘hyLabs’를 론칭하고 소재도 다른 기업에 판매하고 있다. 프로바이오틱스 활용 영역이 확장 되면서 hyLabs 스킨케어(프로바이오틱스 HY7714), hyLabs 팻슬림과 같은 기능성 원료를 기반으로 한 제품들도 출시하고 있다. 유승호 기자 peter@

최우수상 / 오비맥주

맥주 부산물 ‘랄라베어 핸드크림’으로 재탄생

오비맥주는 국내 맥주 시장 1위 기업인 만큼 맥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맥주박(Barley Spent Grain)’ 업사이클링을 통한 탄소 절감에 집중하고 있다.

맥주박은 단백질과 섬유질, 비타민 등 영양분이 풍부하지만 일부만 가족의 사료로 사용되거나 폐기돼 왔다. 오비맥주는 버려지던 맥주박을 업사이클링해 식품, 화장품 등으로 선보이며 탄소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다.

오비맥주는 4월 22일 지구의 날을 기념해 그린 바이오 벤처기업 라피그와 함께 맥주박으로 만든 ‘랄라베어 맥주박 핸드크림’을 출시했다. 라피그는 오비맥주가 제공한 맥주박을 원료화해 100% 활용하는 제로 웨이스트 업사이클링에 성공, 영양소가 풍부한 맥주박의 브라이언트 효과와 보습 특허 성분을 그대로 화장품에 담았다.



오비맥주가 지구의 날을 기념해 내놓은 랄라베어 맥주박 핸드크림. 사진제공 오비맥주

맥주박 업사이클링 원료를 활용한 첫 정식 화장품 ‘맥주박 핸드크림’은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를 통해 소개돼 목표액의 2000%가 넘는 펀딩률을 기록하며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앞서 오비맥주는 2020년부터 국내 최초 푸드 업사이클 전문기업 리하베스트와 상생 협약을 맺고 맥주박을 이용한 다양한 식품을 공동개발하고 있다.

리하베스트는카스의맥주박을활용해 대체 밀가루 ‘리너지 가루’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한 다양한 식품들을 선보인다. 리너지 가루는 일반 밀가루보다 단백질은 2.4배, 식이섬유는 20배 더 많고 칼로리는 30% 이상 낮다.

2021년 오비맥주와 리하베스트는 리너지 가루로 만든 고단백 에너지바 리너지바(Re:nergy Bar)를 선보였다. 유승호 기자 peter@

최우수상 / 롯데지알에스

“디지털 격차 해소”... 시니어에 키오스크 교육

롯데GRS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니어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등 지역사회와 상생에 나서고 있다.

롯데GRS는 작년 4월부터 디지털 마실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디지털 시대 변화에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인 디지털 약자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마실은 서울시의 디지털 배움터에서 무인 주문 기기 이용법을 교육한 뒤 실제 영업 매장에서 주문 체험을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위해 롯데GRS는 2월 서울시와 디지털 약자와 동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롯데GRS에 따르면 현재까지 마실 교육을 통해 약 800명의 시니어가 디지털 교육을 받았다. 프로그램 연장 요청에 따라 올해는 약 1000명 교육 이수를 목표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롯데GRS는 올해 2월 롯데리아 구로디지털역 매장을 복합 외식 매장으로 바꾸면서 시니어를 위한 키오스크도 설치했다. 저시력자 및 고령층을 위한 고대비·음성안내 기능 등이 탑재됐다.

롯데GRS는 시니어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외 계층을 위한 기부금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2022년부터 지자체와 손잡고 결식아동을 위한 ‘희망 온(ON



롯데리아의 고령층 무인 주문 기기 교육 프로그램 ‘디지털 마실’ 현장 체험에서 고객이 키오스크로 음식을 주문하고 있다. 사진제공 롯데GRS

)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게 대표 사례다. 희망 온 프로젝트는 ‘아동들의 희망에 불을 켜다’라는 슬로건으로 롯데GRS, 지자체, 고객이 함께 만들어 가는 기부 프로젝트다.

롯데GRS의 주문 앱 서비스 롯데이츠 주문 건수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지자체에 전달하고 후속 지자체로 이어가는 릴레이 캠페인이다.

롯데GRS는 2022년 희망 온 프로젝트를 시작한 뒤 금천구에 기금을 첫 번째로 전달한 뒤 관악구, 성북구, 중랑구, 구로구 등 약 2년 동안 5개의 자치구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유승호 기자 peter@

최우수상 / 애경산업

저소득층 지원... 환경보전 ‘치성천 가꾸기’도

애경산업은 사명이자 기업 이념인 사랑과 존경을 실천하고 나눔과 배려의 문화를 선도하는 경영 철학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상생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애경산업은 2012년부터 서울시·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서울시의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따뜻한 동행, 아름다운 나눔’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12년째 서울시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누적으로 약 407억 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했다.

애경산업은 환경 보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도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충청남도 청양군 지역 주민들과 함께 ‘치성천 가꾸기 행사’를 진행했다. 치성천 가꾸기 행사는 애경산업과 충청남도, 도량가꾸기공동체가 공동으로 협약한 충청남도 도량가꾸기 사업의 일환이다.

애경산업의 공장·물류서비스센터가 위치한 청양군의 하천인 치성천의 친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올해 진행된 치성천 가꾸기 행사에서는 2020년부터 490m로 조성된 ‘애경리일락길’에 리일락 420주를 식재하고 치성천 유역하천을 정비하는 활동이 진행됐다. 또한 애경산업 청양공



애경산업 임직원들이 서울시의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따뜻한 동행, 아름다운 나눔’ 사업 일환으로 희망꾸러미 나눔 행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애경산업

장 인근 후동천변 200미터 구간에 별개미취 및 수수꽃다리 등을 3500주 식재했다.

또 애경산업은 작년 6월 은평구, 은평시니어클럽과 함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자원순환 사업인 ‘세계 정거장 어스’ 후원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세계 정거장 어스는 은평구 관내에 리필 스테이션을 설치하고 노인 일자리 참여자를 배치해 재활용 용기를 가져온 취약계층에게 탄소중립 교육과 세계 소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애경산업은 2024년까지 세탁세제, 주방세제 등 5억원 상당의 생활용품 후원한다. 유승호 기자 peter@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증권사
PB

한 명쯤은

알면
종장아요

이제, 내 투자에도 믿는 구석이 생겼다



비대면 프라이빗
자산관리 서비스

KB증권
PRIME CLUB

- ☑ 자산관리 규모 제한 없이!
- ☑ 누구나 전화나톡으로 똑딱!



PRIME 센터
무료 자산관리 상담
1566-0055

투자를 똑딱! **개비증권**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3-03627호(2023.09.26~2024.09.25) *투자자는 이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당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자산 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 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일부 또는 전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국내 주식 거래 시 수수료(비대면 계좌) HTS/홈페이지 0.015%/모바일 0.12%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 거래 이자율은 비대면 계좌(또는 위탁수수료 혜택계좌)가 영업점 개설 계좌보다 더 높게 적용됩니다.(비대면 계좌 최대 연 9.1%~최소 연 5.5%, 일반 계좌 최대 연 9.1%~최소 연 4.9%) *PRIME CLUB 1만 원 결제 유형(자동이체)으로 가입 시 월 1만 원 이용 요금 출금되며, '프라임클럽 매월 1종목 증정 이벤트'에 참여 가능합니다.(자세한 내용은 '프라임클럽 매월 1종목 증정 이벤트' 공지 참조) *PRIME CLUB 무료 회원 가입 시 별도 비용 없이 계속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시장 위기 속 수익구조 편중 탈피… IPO 1위 목표”

서정학 IBK증권 대표 취임 1년
계열 금융사 및 일반 기업들과
시너지 통해 수익원 발굴 노력
S&T 큰폭 흑자전환·WM 성장
증기펀드 1조 규모로 확대할 것

“지난해 비우호적 업황과 시장의 여러 위기로 국내 증권사들이 힘든 시기를 보냈다. IBK투자증권도 전년 대비 실적은 감소했지만, 회사의 지속 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새 성장 동력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29일 서정학(사진) IBK투자증권 대표가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지난해 여의도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홍콩H지수주거연계증권(ELS) 사태 등을 거치며 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다. 업계를 휩쓴 위기 속 첫 진두지휘에 나선 서대표는 취임 후 1년을 회사가 지속 성장할 발판을 마련하는 데 주력한 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서대표는 이날 취임 1주년 서면인터뷰에서 “지난 1년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기업은행 재직 시절 30년처럼 열정적

로 보냈다”며 “IBK금융그룹 가치경영 기반 위에 영업 기반 강화와 시너지 활성화 기반 마련, 디지털전환(DT) 추진, 내부 통제 정교화를 위해 힘썼다”고 밝혔다.

서 대표는 “지난해 자산규모와 계좌 수, 채권 공급 등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성장했다”며 “지난해 총자산은 7조8000억원으로 2022년보다 23.8% 늘었고, 계좌 수는 9.2% 확대됐다”고 말했다. 리테일 채권 공급과 증금채 증개도 각각 7.4%, 77.7% 상승하며 양호한 실적을 거뒀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실적에 대해서는 “IBK금융그룹 내 시너지와 타 금융사, 무궁화금융그룹·웰컴저축은행·오케이캐피탈·무신사 등 일반기업과의 시너지 창출로 수익원 발굴에 노력했다”면서도 “부동산 시장 약화 영향으로 총당금 적립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부문별로 골고루 성장한 덕에 편중된 수익구조를 탈피하고, 지속가능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점에서는 자신감을 나타냈다. 서 대표는 “자산관리(WM)와 홀세일(Wholesale) 부문은 전년 대비 각각 15%, 57% 성장했다”며 “2021~2022년 부진한 성적을 냈던 자기매매(S&T) 부문은 큰 폭으로 흑자전환했다”고



부연했다.

서 대표는 지난해 닦은 기틀을 바탕으로 ‘정도경영과 혁신성장을 통한 초우량 증권사’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이를 위해 △경쟁우위 산업 육성 △중기특화사업 초격차 △DT혁신 △소비자 보호·내부통제 등 4가지 중점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채권과 기업공개(IPO), 프라이빗에쿼티(PE) 등의 육성과 전략적 제휴·마케팅에 집중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사업부문별 전략에 관해서는 “WM의 경우 복합점포와 MTS를 통해 중위험·중

수익 자산배분형 상품 개발과 자산진단·배분 솔루션, 중기 오너 대상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등을 통해 고객 성향별 투자 전략을 제시할 것”이라며 “채권 인수 분야에서는 대기업계열 인수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김지본드 등 틈새시장 공략으로 리그테이블 5단계 상향하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했다.

IBK투자증권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IPO 사업에 대해서도 “IPO 청구 건수 배가로 시장 입지를 강화해 업계 1위를 달성하겠다”며 “코넥스·코스닥에서 17건의 IPO를 맡고, 다양한 규모의 스팩(SPAC) 운영으로 실적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IBK투자증권의 SPAC 분야 상장청구 승인율은 100%, 합병 성공률은 85%로 업계 평균(50%)을 크게 상회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IBK투자증권 주요 컬러 중 하나인 중소기업 사업과 관련해 “4기 연속 중기특화증권사로 지정되며 업계 선두를 유지 중인 만큼 올해 5기 선정에 도전할 계획”이라며 “신기술조합과 사모펀드(PEF) 등 신규펀드 결성으로 투자 여력을 확보해 중기 지원 PEF 규모를 1조 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윤혜원 기자 hwyoon@·사진제공 IBK투자증권

김남정 동원그룹 부회장, 회장 승진

동원그룹 창업주 김재철 명예회장의 차남 김남정(사진) 동원그룹 부회장이 회장에 오른다. 2014년 부회장에 선임된 지 10년 만이다.



동원그룹은 28일 이사회를 열고 김남정 부회장의 회장 승진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동원그룹 회장직은 2019년 김재철 명예회장이 창립 50주년을 맞아 경영 일선에서 은퇴한 뒤 5년간 공석이었다. 김신임 회장은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한 뒤 1998년 동원산업 영업사원으로 입사했다.

김지영 기자 kijy42@

코스맥스 한·중법인 대표 상호교체



코스맥스그룹은 심상배(왼쪽 사진) 코스맥스 대표이사(부회장)와 최경 코스맥스 차이나 대표이사(부회장)의 직책을 상호 교체하는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심상배 부회장은 1980년 태평양으로 입사해 아모레퍼시픽에서 생산부터 물류, 연구·개발 분야까지 두루 경험한 화장품 산업 전문가다. 2020년 코스맥스그룹에 합류해 2021년 코스맥스 대표에 선임됐다. 최경 부회장은 코스맥스의 국내 제조업자개발생산(ODM) 업계 최초 중국 진출의 1등 공신으로 꼽힌다. 2004년 법인 설립과 동시에 코스맥스 차이나 총경리로 20여년간 중국 사업을 진두지휘했다.

김지영 기자 kijy42@

하나은행, hy와 금융지원 업무협약



하나은행은 hy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hy ‘프레시 매니저(Fresh Manager)’를 위한 행복동행 금융 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이승열(오른쪽) 하나은행장과 변경구 hy 대표이사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사진제공 하나은행

<고대역폭메모리>

“차세대 HBM, 고객 맞춤·전문화로 진화할 것”

권언오 SK하이닉스 부사장
AI 시대, 변화 예측·대응 중요
고객·외부파트너와 소통·협업

권언오(사진) SK하이닉스 부사장이 향후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 전망에 대해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담은 제품으로 전문화되고, 맞춤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사장은 28일 SK하이닉스 뉴스룸에 공개된 인터뷰에서 “차세대 HBM은 기능적으로 우수함은 기본이고, 고객별로 차별화한 스페셜티 역량과 메모리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진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HBM은 D램 여러 개를 수직으로 연결해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

올린 고성능 메모리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글로벌 HBM 시장에서 점유율 53%를 기록하면서 업계 1위를 달리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말 조직개편에서 ‘AI 인프라’ 조직을 신설하고 그 산하에 HBM PI 담당 신입임원으로 권 부사장을 선임했다. 그는 HBM의 기술 로드맵을 완성하는 역할을 맡았다.

권 부사장은 “SK하이닉스의 HBM 제품에 대한 모두의 기대가 큰 시점에 중책을 맡게 돼 자부심과 동시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세계 최고의 HBM을 개발한 우리 구성원들의 경험과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차세대 기술 혁신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지난 연말 HBM 개발부터 제품화, 사업화까지 전 과정에 걸쳐 효율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부문별로

흩어져 있던 기능을 한데 모아 ‘HBM 비즈니스’ 조직을 신설했다. 권 부사장은 이 조직의 강점으로 높은 효율성을 꼽았다.

그는 “HBM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공유하는 조직이 구성된 덕분에 기술 역량을 집중해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고, 구성원들도 목표 지향적인 시야를 가질 수 있게 됐다”며 “사업 관점에서 기술에 필요한 흐름을 읽을 수 있게 됐고, 이를 통해 더 많은 부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권 부사장은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시대에 들어서며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수준의 빠른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변화를 예측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며 “HBM PI 조직은 기술의 혁신과 빠른 제



품화를 위한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고객 및 외부 파트너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권 부사장은 “그동안 수많은 기술 변곡점이 있었지만, AI가 만드는 변화는 그 어느 때보다 크고 거세다”며 “모든 구성원이 AI 시대의 주역이다. 저 역시 그러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HBM 기술력을 높여 가겠다”고 했다.

박민용 기자 pmw7001@·사진제공 SK하이닉스

폴란드 방문 김주현 금융위원장, K-금융 수출 발판

금융위원장으로서는 처음으로 폴란드를 방문한 김주현 위원장이 K-금융 수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4일부터 27일까지 폴란드와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를 방문했다. 지난해 7월 한-폴란드 정상회담 등으로 양국간 금융협력 수요가 확대됨에 따른 것이다. 김 위원장은 한국 은행연합회와 폴란드 은행협회가 공동주최한 상호협력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과 공동 세미나에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25일 야척 야스트로제브스키 폴란드 금융감독청장과 회담도 가졌다. 양국 금융당국 수장 간의 첫 회담이다. 두 사람은 방산·원전 등 양국간 경제 협력이 심화되고 한국의 은행들이 폴란드 진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번 회담이



김주현(왼쪽) 금융위원장이 25일(현지시간) 야척 야스트로제브스키 폴란드 금융감독청장과 회담 후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금융당국 간 협력관계 구축에 큰 의미를 지닌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우리은행·IBK기업은행 등 한국 은행에 대한 인허가 심사가 시작 또는 예정된 만큼, 현재 협의 중인 감독협력 MOU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재영 기자 ijy0403@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 취임 “올해 연간 흑자 달성할 것”

“2024년을 토스뱅크 첫 연간 흑자 달성의 원년으로 만들겠다.”

이은미(사진) 신입 토스뱅크 대표가 28일 임직원들과 타운홀 미팅을 열고 “토스뱅크의 혁신 DNA를 이어가며 고객들에게 새로운 은행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혁신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이를 증명해 나갈 것”이라며 “1000만 고객은행으로서 고객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재무적 안전성과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해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토스뱅크는 이날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이 대표이사 선임의 건을 승인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토스뱅크의

성장과 혁신, 안정감을 부여할 수 있는 후보군을 발굴 및 검증한 뒤 지난달 이 후보를 차기 대표 후보로 단수 추천한 바 있다.

이 대표는 DGB대구은행의 최고재무책임자(CFO)이자 경영기획그룹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DGB금융지주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주도하는 등 태스크포스팀(TFT) 공동 의장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또 HSBC 홍콩 상업은행 CFO(아시아-태평양 지역 16개국 총괄), HSBC 서울지점 부대표, 도이치은행 서울지점 CFO 등을 맡으며 20여개 국적의 다양한 팀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국내외 금융산업에 대한 경험과 통찰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2026년 3월 31일까지다. 김법근 기자 nova@

인사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 김정주
- ◆DB금융투자 △보임 △고객지원실장 김병직 △감사실장 김성수 △Capital Market 본부장 안중철 △고객자산운용 Center장 김추수 △기획관리 본부장 최문석 △금융소비자보호본부장 김부생 △기업금융5팀장 류용동 △상품심사감리팀장 강원석 △Wrap 운용팀장 오상진 △경영기획팀장 이한별 △전보 △준법감시인 김찬구 △신탁팀장 고종현 △Capital Market 팀장 조병일
- ◆신영부동산신탁 △상무 승진 △경영지원부문장 임성식 △이사대우 승진 △정비사업팀장 김원태 △부장 승진 △리스크관리부장 김성구 △본부장 전보 △정비사업본부장 김원태 △부서장 전보 △법무지원부장 김문근

부음

▲박말도 씨 별세, 박규섭(재영솔루텍 상무) 씨 부친상 = 28일, 대구의료원국회원장례식장 203호, 발인 30일 오전 6시 30분, 053-560-9551

문학의 쫓

남쪽에서는 봄꽃 소식이 한창인데 며칠 전 고향 강원도에는 눈이 많이 내렸다. 사람들은 그것을 다 신기하게 여겼다. 꽃이 필 계절이지는 이 내릴 계절이 아닌데 눈이 오니 더 그랬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런 모습이야말로 내게는 정말 익숙했다.



이순원 소설가

그러나 강릉은 해양성 기후로 겨울에는 서울보다 평균 5도 정도 따뜻하고, 여름에는 또 5도 정도 시원한 곳이다. 갑작스럽게 눈이 내려도 대관령 구간을 제외한 지역은 하루이틀만에 다 녹아버린다.

어릴 때 연초에 어른들이 받아와서 벽에 걸어놓은 풍경 달력 중에 인상적인 봄 풍경 하나가 있다. 아마도 알프스를 배경으로 찍은 듯 면산에는 하얗게 눈이 쌓여 있고, 마을에는 봄꽃이 가득 피어있다.

도시에서 자란 친구들은 눈과 꽃이 함께 하는 봄 풍경이 늘 이국적으로 느껴졌다고 한다. 그러나 대관령 동쪽 아래에서 살았던 우리에게 눈과 꽃이 함께 하는 풍경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일상적이었다. 대관령 동쪽 면에 쌓인 눈은 사월 말이나 오월 초가 되어야 녹는다.

고등학교 때와 바다야스나리의 '설국'을 읽었다. 원문을 그대로 번역한 책이라 제일 앞부분이 이랬다. '국경의 터널을 빠져 나오자 설국이었다. 밤의 밑바닥이 하얗졌다.'

나중에 다른 작가들은 이 부분이 너무 이국적이고 상징적이어서 오래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나 역시 그 명문의 문장은 오래 기억에 남아도 그 부분을 이국적으로도 상징적으로도 느끼지 못했다. 한 지역의 눈 풍경을 설명하는 장면으로 너무도 당연하고 사실적으로 받아들였다.

눈과 꽃과 보리밭 어우러진 봄

당시엔 대관령과 강릉 사이에 터널도 없고, 기차도 없었지만 대관령과 강릉의 눈 풍경이 꼭 이랬기 때문이다. 불빛이 없는 곳의 밤의 밑바닥은 어디서나 가까야 하는데, 눈이 많이 내리고 겨우 내 쌓여 있는 곳의 밤 풍경은 밑바닥이 하얗다.

대관령 고향마을엔 아직도 형제들이 살고 오랜 친구들이 산다. 내가 살던 옛 집도 그대로 있고, 오남매 중에 한 형제가 최근 서울살이를 마감한 다음 옛집 바로 옆에 새집을 지어 살고 있다. 거실의 통창을 통하여 대관령 동쪽면의 전체 모습이 병풍처럼 보인다. 강릉에는 눈이 내리지 않아도 대관령에는 눈이 내리는 날도 많고, 그렇게 내린 눈들은 차곡차곡 쌓여 봄이 되어야 녹는다.

특히나 강릉은 초겨울 한겨울보다 늦겨울과 초봄에 눈이 많이 내린다. 그런 기후 때문인지 외지 사람들은 강릉하면 그곳의 관문과 같은 대관령을 먼저 떠올리고 그곳의 겨울풍경과 눈풍경을 떠올려 강릉이 무척이나 추운 곳인 줄 안다.

몇 해 전 어버이날에 어머니께 드릴 선물을 사 들고 대관령을 넘은 적이 있다. 그해 대관령 정상과 풍력발전기가 서 있는 선자령 쪽엔 아직도 하얗게 눈이 남아 있었다. 늘 그때까지 눈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눈 오지 않는 사월보다 눈 내리는 사월이 더 많은 곳, 때로는 5월에도 붉게 핀 철쭉꽃 위에 눈이 쌓인다.

고향마을에 내려가 가는 형제는 일년 내내 거의 시시각각으로 고향의 풍경을 형제들이 함께 하는 단체 카톡방에 올려 준다. 바빠서 미처 올리지 못할 때는 서울에 사는 형제들이 열른 찍어 올리라고 재촉한다. 며칠 전처럼 다른 곳은 전부 꽃소식인데 그곳에만 눈이 내릴 때면 더욱 그렇다.

지금은 보리농사를 짓는 땅이 드물지만, 눈속에 파란 색이 드러나는 보리밭도 아름답고, 그 보리밭이 이내 자라 올라 대관령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푸르게 물결치는 모습도 아름답다. 내 추억 속의 봄은 늘 이렇게 눈과 꽃과 보리밭이 함께 한다.

이투데이, 밑투데이

☆ 로버트 실러 명언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능의 결정적인 특징이다."

미국 경제학자. 경제학에 심리학을 접목한 행동경제학의 대가다. 2013년 자산가격의 경험적 분석에 기여한 공로로 유진 파마, 라스피터 헨슨과 함께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오늘은 그의 생일. 1946~.

☆ 고사성어 / 언과기실(言過其實)

'말이 실제보다 지나치다'라는 말이다. 말만 과장되게 부풀려서 해 놓는 실행이 부족함을 비유한다. 촉(蜀)나라 마속(馬騶)의 재주가 남달랐고, 특히 군사 계략을 세우는 데 뛰어나 제갈량(諸葛亮)이 총애했다. 그러나 유비(劉備)는 마속을 탐탁치 않게 여겼다. 죽음을 앞둔 유비는 제갈량에게 뒷일을 부탁하며 한 말.

"마속은 말이 실제보다 지나치니 크게 쓰지 말도록 하고, 그대가 잘 살피시오(馬謖言

過其實不可大用君其察之)." 위(魏)나라가 가정(街亭)을 공격할 때 마속이 방어하겠다고 자청하자 제갈량은 그에게 수비만 하라는 군령을 내렸다. 마속은 적의 꼬임에 넘어가 공격에 나섰다. 역습당해 패주했다. 제갈량은 군령을 어긴 죄를 물어 그를 참형에 처했다.

☆ 시사상식 / 스칸디맘·스칸디대디 (Scandi mom·Scandi daddy)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자녀 양육 방식이다. 2011년 영국 '더 타임스'에 보도된 '타이거맘은 있어라, 스칸디대디가 온다'에서 유래했다. 스칸디맘은 엄격한 자녀 훈육 방법을 특징으로 하는 타이거맘과는 반대다. 이들은 자율과 조력을 내세워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고 자녀에게 많은 자유를 주는 특징을 지닌다. 스칸디대디는 육아휴직을 내고 자연 속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아이를 존중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이슈&인물

취임 한 달 '대체투자 전문가' 최승재 우리자산운용 대표

"7%의 매직... 장기투자 유도할 것"

"연간 7% 안팎에서 꾸준한 수익률을 거두는 안정적인 금융투자 상품을 선보이는 게 경영전략이자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고객과 수익을 함께 나눠 신뢰받는 자산운용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최승재(48) 우리자산운용 대표는 28일 서울 여의도 파크원 타워1 대표이사(CEO)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장기 투자는 변동성이 크지 않은 투자자산을 기초로 할 때 가능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부동산 실물 투자 펀드, 선박 인프라 펀드, 기후위기 대응 펀드, 글로벌 대체투자 펀드 등 경쟁력 있는 신상품 출시로 수익성 제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리금융그룹은 지난달 29일 자회사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고 우리자산운용 신임 대표이사에 최승재 당시 멀티에셋자산운용 대표를 최종 후보로 추천했다. 1976년생 젊은 피를 수혈한 우리금융은 최대표가 보유한 대체투자 전문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우리금융, 올해 '非은행 경쟁력 강화 원년' 선포= 최 대표는 대표적인 '대체투자 전문가'로 손꼽힌다. 한국에 없던 대우증권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 1호제도에 처음 참여했다.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며 민간 최초로 자본시장법 규정을 개정·도입했다.

2016년부터 멀티에셋자산운용을 맡아 중견 대체자산운용사로 성장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 대체투자란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전통적인 투자 상품이 아닌 사모펀드, 헤지펀드, 부동산, 원자재, 선박 등 다른 대상에 투자하는 방식을 뜻한다.

올해를 '비(非)은행 경쟁력 강화 원년'으로 삼은 우리금융은 우리자산운용과 우리글로벌자산운용 합병을 완료, 순자산총액(AUM) 43조원을 달성하며 업계 10위 자산운용사로 거듭났다. 지난달 말 기준 총 운용 자산은 43조7000억 원으로 순위를 10등까지 끌어올리며 '톱 10'에 진입했다.

우리자산운용은 기존 머니마켓펀드(MMF)·채권 등 전통 자산 중심의 포트폴리오에서 대체투자로 사업영역을 넓히고 있다.

◇우리글로벌자산운용과 합병... 지배구조 안정이 과제= 우리글로벌자산운용과 합병 초기인 우리자산운용 지배구조를 안정시키고 속도감 있게 영업망을 확장할 수 있는 '세대교체'형 인재로 영입된 최 대표는 지난 5일 자회사 주주총회에서 대표로 선임된 직후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최 대표는 "공모 펀드를 론칭하고 결과적으로 균형 잡힌 '밸런스드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이후 이를



최승재 우리자산운용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파크원 타워1 대표이사(CEO)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면서 최근 부동산 가격 추이 등 자산변동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기반으로 연금 상품까지 출시할 예정"이라고 방향을 공개했다.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 성격을 지닌 연금은 금융투자시장이 다소 빠져도 저가 매수하면서 단가를 낮추는 식으로 4~5%대 수익률을 유지하도록 설계할 수 있는 유리한 금융상품이라는 설명이다.

최대표는 내부수익률(IRR) 7%에 의미를 부여했다. 해마다 "7% 수익률"이 10년 동안 쌓일 경우 자산은 원금의 약 2배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그는 "30~40년 뒤에 10억 원보다 더 모으고 싶거나, 10억 원이란 목돈을 만드는 시기를 앞당기고 싶다면 월간 투자금액을 늘리면 된다"며 "이처럼 미래 재산 형성 계획이 설계 가능

통합법인 출범, 업계 10위에 올라 전통자산·대체투자 결합 역량 강화 투자효율 높은 ETF시장 전망 좋아

해야 고객들 사이에서 장기 투자가 일상이 된다"라고 진단했다.

우리자산운용 주요 펀드들은 20년 가까이 장기적으로 탄탄하게 운용되고 있어 중위험·중수익 상품 개발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것이 최 대표 분석이다. 2005년 3월 설정된 중소형 고배당 주식형 펀드의 18년간 누적수익률은 605.7%로 연 32.2%에 달한다.

2005년 7월 첫선을 보인 하이플러스 채권형 펀드 역시 같은 기간 누적수익률 102.98%, 연 5.51%를 기록 중이다. 이에 앞선 2004년 10월 지속가능 ESG 펀드 19년 누적수익률은 216.89%로 연 11.27%에 이른다.

최 대표는 "펀드 개수를 줄여 운용 효율성을 높여겠다"면서 "효율성 극대화를 통한 수익률 상승분을 고객

과 나누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모(母) 펀드 하나에 자(子) 펀드가 여러 개 존재하는 소위 비빔밥을 만드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대표 펀드 운용성과를 제고하고자 연금 펀드 수익률을 개선하는 한편 리모델링을 단행한다.

◇장기투자·배당·채권형 상품 출시해 ETF 라인업= "비빔밥 안에 다양한 식재료를 개인 기호에 맞춰 양을 조절하고 간을 맞춰 비벼 먹듯이 투자자 성향에 따라 채권, 금, 외화, 부동산, 주식, 심지어 미술품까지 모든 자산 군에 투자하면서 각 섹터별 비율을 조절하면 변동성은 낮추고 수익은 일정 수준 가져가게 포트폴리오를 짜게 된다"고 부연했다. 이는 기관투자자, 즉 연기금 운용 방식이다.

최대표는 "결국은 기관 중심 고객 체제에서 벗어나 개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공모 상품을 론칭하겠다"며 "현재 상품군은 다양화돼 있으나 이제는 여러 자산이 섞여 있는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추구하는 펀드를 내놓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 대표가 거듭 강조하는 '밸런스드 포트폴리오'인 셈이다.

이어 "장기투자형·배당형·채권형 상품 출시로 상장지수펀드(ETF) 상품들을 라인업하고 있다"며 "ETF 쪽을 확장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동일한 투자라도 효율성 높은 투자를 해야 하는데, 비용 절감 측면에 해당하는 상품이 'ETF'라는 입장이다. 최 대표는 "우리 펀드가 ETF를 담을 것"이라며 "ETF는 지금까지 발명한 금융상품 가운데 혁신적인 상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ETF 시장 성장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손민지 기자 handmin@

우주안보 역량 강화 시급하다

우주는 경제와 안보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지배권을 놓고 경쟁하는 이익이 점점 더 증가하는 경쟁의장이기도 하다. 우주 영역은 국경과 영토가 없다는 점, 비정상적이거나 적대적인 활동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기 어려운 점, 우주 활동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규제 메커니즘, 새로운 행위자의 등장 등의 특징을 가진다. 우주는 엄청난 패러다임의 변화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육상, 해상, 항공과 사이버 환경에 이어 다섯 번째 분쟁 환경으로 간주되며 수많은 위협과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1990년대 초 시작한 단일 부처(과기부) 주도의 한국 우주개발과 우주정책은 국방과 안보에의 활용을 배제한 채 수행되어 우주산업과 우주 기술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었다. 국방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안보 및 국방에 우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 우주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작전적 필요성도 제한적이었다.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는 우주의 군사적 활용에 미국의 눈치를 보고 우주안보라는 도구의 필요성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우주개발이 산업화에 이르지 못하고 우주경제를 위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있는 주체로 나가지도 못했다.

현재는 GPS, 위성통신 및 우주감시정찰 등의 우주인프라 없이는 더 이상 무기 운용이나 지휘 통제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안보기술이 발전했다. 대부분의 첨단 군사 자산이 점점 더 우주 기술에 의존하고 있고 미래 전쟁은 우주에서 승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한국도 우주 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북한의 적대적인 우주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효율적인 우주능력은 절대적 요구조건이다. 이제 우주안보 강화는 한국군사 고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중국은 2007년 탄도미사일을 이용하여 궤도를 선회하고 있는 수평이 다된 기상위성을 요격하는 시험을 단행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대 군사 작전은 우주시스템이 지원하는 무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위성 무기의 시험은 큰 이슈가 되었다. 특히 위성은 정해진 궤도를 따라 운용되기 때문에 외부의 물리적 공격에 매우 취약하다.

장영근의 우주 속으로

국가전략연구원 미사일센터장
前 한국항공대학교수



최근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 고각발사 및 위성기술 능력의 증진은 “우주에 대한 공격, 우주로부터의 공격, 우주 내에서의 공격”이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등 우방의 우주 자산에 대한 공격을 통해 우방의 군사 작전 수행능력을 마비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우주안보 전략은 이러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을 전제하는 맥락에서 고려해야 한다.

현 정부에서는 작년 6월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하였지만 우주안보 관련 내용은 ‘북한 핵·WMD 위협’ 대응능력의 획기적 보장에서 독자적 정보 감시정찰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정찰위성, 초소형위성체계 등 정찰 위성 자산을 확충해 나간다는 것이 전부다. 안보대책으로 우주자산의 획득을 언급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우주안보전략은 없었다. 급변하는 동북아 안보지형에서 국가우주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우주안보의 전략 방향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주는 국경을 초월하여 민간 및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글로벌 공공재이다. 우주 공간의 규범과 질서 있는 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우주안보전략은 다음과 같은 과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첫째,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를 확립하고 우주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용을 촉진해야 한다. 둘째, 우주안보 역량을 보장하기 위한 비용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우주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천문학적 비용과 우주기술 역량을 요구하기 때문에 미국 및 우호적인 국가와 협력하여 추진할 필요성도 고려해야 한다. 셋째, 미국 유럽 등과 다자간 우주안보포럼에의 참여를 강화하고, 실용적인 조치를 통해 우주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이룰 규범 및 규칙 정립을 위해 우주안보대화를 추진할 필요도 있다.

미래 경제·안보 결정할 경쟁의場 우주 규범·인프라 구축 서두르고 우주안보포럼 등 국제대화 필요해

형위성체계 등 정찰 위성 자산을 확충해 나간다는 것이 전부다. 안보대책으로 우주자산의 획득을 언급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우주안보전략은

한 컷



직박구리가 물어온 봄소식

직박구리가 대구 수성구 만촌공원에서 벚꽃의 꿀을 먹으며 봄소식을 전하고 있다. 꽃샘추위가 물러난 서울에도 봄꽃들이 꽃망울을 터뜨리며 축제 준비를 하고 있다.

영등포구는 다음 달 2일까지 여의서로 국회 뒤편에서 ‘봄 소풍(Picnic Under the Cherry Blossom)’을 주제로 ‘여의도봄꽃축제’를 개최한다. 운중로에 펼쳐지는 거리예술, 푸드존, 피

크닉존 등 다양한 볼거리를 만날 수 있다. 송파구는 31일까지 ‘석촌호수 벚꽃축제’를 연다. 석촌호수 2.6km 일대에서는 왕벚나무 812그루, 수양벚나무·산벚나무 320그루 등 다양한 벚꽃을 볼 수 있다. 서초구는 양재천 일대에서 ‘양재천 벚꽃 등(燈) 축제’, 도봉구도 우이천에서 ‘도봉 벚꽃축제’를 31일까지 진행한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사설

상속세 없앤 스웨덴, ‘최악 세제’ 고수하는 한국

대한상공회의소가 어제 과도한 상속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기업은 국가의 최대 납세자이자 국민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천”이라며 “투자자와 국민소득 증대를 뒷받침하는 조세제도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에서 2000년 50%로 상승한 후 24년째 그대로다. 최대 주주 할증 과세에 따라 실제 최고 세율은 60%에 달한다. 세계 최악이다. 이 약탈적 세제의 그물망에 걸리면 안전지대는 없다. 국내 굴지의 삼성 일가도 마찬가지다.

고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이 남긴 유산에 부과된 12조 원 규모 상속세를 내기 위해 삼성가 세 모녀(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는 계열사 주식을 처분하고 있다. 경영권 방어에 뒷전일 지경이다. 그래도 삼성 체급이 되니 이 힘겨운 싸움이라도 벌이는 것이다. 저항할 방도도 없이 밀려오는 기업이 공중분해되거나, 주인이 바뀌거나, 남은 가족 간에 큰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한미약품 내분도 5400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 해법을 찾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 신바람을 내는 것은 투기자본뿐이다.

상속세율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것이 시대적 조류다. 미국은 1977년 77%에서 단계적으로 조정해 2012년부터 40%를 유지 중이다. 장수기업이 많은 독일은 2000년 35%에서 30%로 내렸다. 상속세 원조 국가인 영국은 최근 최고세율을 40%에서 20%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캐

나다, 호주 등은 상속세를 폐지했다. 한국은 과세 방식도 후진적이다. 상속세 제도가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 회원국 중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을 적용하는 나라는 한국 포함 4개국 뿐이다. 대다수(24개국 중 20개국)는 상속인이 물려받는 각각의 재산에 매기는 유산취득세를 통해 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부자 나라들은 상속세를 조자용 현 칼처럼 휘두르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칙을 통해 체득했다. 한때 70%에 달하는 최고세율을 견디지 못한 대기업들이 았다뒹 해외로 떠나자 2005년 상속세를 폐지한 스웨덴이 좋은 예다.

한국은 상속세 역사와 경험칙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최악의 세제를 고수하고 있다. 그렇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자초했다. 일선 기업들은 죽을 맛이다. “기업 승계를 앞둔 오너들은 기업의 주가가 오히려 떨어지길 바란다”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의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상속세제 개편을 ‘부자 감세’로 모는 정치적 편향이 엄존한다. 시대착오적이다. 자산가격이 크게 상승해 과세 범위가 어느덧 중산층까지 확대됐다. 2000년 1400명 정도였던 상속세 과세 인원이 2022년 11배 증가했다는 통계도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0억 원을 넘었다. 평생 피뎀 흘려 장만한 아파트 한 채를 자녀에 물려주면 역대 상속세 고지서가 나온다는 뜻이다.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명석 말을 하고, 매를 후려치는지 모를 일이다.

밸류업의 역설... 이탈 개미 잡아야

개인의 증시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이탈 27일까지 개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11조1303억 원 순매도했다. 특히, 21일 개인은 코스피 시장에서만 2조9098억 원을 순매도하며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경신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날은 코스피 지수가 2022년 4월 이후 2년 만에 2750선을 돌파한 날이었다.

개인 이탈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증시가 미진한 때 일본 증시, 미국 엔비디아, 가상화폐, 금, 채권 등 다양한 투자처가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탈세에 기름을 부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 차원에서 기업 밸류업을 띄우자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종목들이 일제히 오름세를 나타냈다. 과열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드디어 국내 시장에서도 ‘가치투자’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부풀었다. 막상 지난달 26일 공개된 ‘밸류업 프로그램’은 반향을 주지 못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속빈 강장’이라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이후 개인 이탈은 탄력을 받았다. 올해 초부터 2월 말까지 약 5조5000억 원을 순매도했던 개인은 이달에만 5조5000억 원을 추가로 순매도했다.

공교롭게도 이즈음 인터넷상에서는 ‘빈 찬합’ 밈이 인기를 얻었다. 조조가 순옥에게 빈찬합을 보내자 ‘더 살아 무엇하겠느냐’라고 말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삼국지연의의 일화를 들어 기대보다 알맹이가 부실한 상황을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이 밈은 순옥을 살리기 위한 조조의 노력에도 순옥

노트북 너머

박민규
자본시장부 기자



이 죽음을 택하는 내용으로 패러디되며 유행을 이어갔다. 가령, 찬합에 진수성찬이 담겨있어도 순옥은 “승상께서 이거나 먹고 떨어지라는 뜻이구나”라고 반응한다. 찬합에 금은보화나 민트초코, 혹은 대놓고 죽지 말라는 쪽지가 담겨있어도 순옥은 어떻게든 자신이라는 필요 없어졌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순옥이 죽음을 택했듯이 개인도 밸류업 프로그램이 어찌 됐든 이탈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올 수 있겠다. 어떻게 개인을 만족하게 할 수 있겠느냐는 푸념이다. 돈이 들고 도는 만큼 개인이 파는 시기도 있을 것이라는 해석도 일면 타당하다.

다만, ‘밸류업’ 조차 테마가 되는 국내 증시 환경을 두고 ‘국내 증시 가치투자는 허상이며 물려도 해외 증시에 물리는 게 낫다’는 인식이 더욱 자리를 공고히 잡게 되는 것은 아닐까 우려가 된다.

가상의 창작이지만 ‘빈 찬합’ 시리즈 속 조조는 순옥을 살리기 위해 갖가지 방식을 동원한다. 순옥이 ‘더 살아볼까...’라며 생존을 택하는 결론으로 끝나는 경우도 종종 보인다. 개인의 이탈을 순옥을 보는 조조의 마음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언젠가 ‘더 사볼까...’라는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pmk8989@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쇄인 김덕현	주필 이승현	편집국장 박성호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주소 우편번호 06044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68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20,000원 1부 1,000원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40th

1984. 아날로그(AMPS) 차량전화 서비스 개시
 1996. CDMA 디지털 이동전화 상용화
 1997. '스피드 011' 출시
 1999. '스무 살의 011' TTL 출시

1984 - 2001



2002 - 2010

2002. 신세기통신 합병
 2002. 3G 상용화(CDMA2000 1x EV-DO)
 2002. 'Be The Reds' 공동 캠페인 전개
 2006. T 브랜드 출시

2011. 4G LTE 상용화
 2012. 'SK하이닉스' 인수

2011 - 2018



2019 - 2024

2019. 5G 상용화
 2023. 나만의 AI 개인버서 'A.(에이닷)' 출시
 2024. Global Telco AI Alliance 창립총회 개최

A

CDMA 상용화라는 커다란 성과보다
 통신 강국이라는 자부심이 더 기뻛습니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으로 불리는 것보다
 반도체의 나라로 불리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지난 40년
 우리는 늘 SK텔레콤이라는 이름보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빛나길 바랐습니다

앞으로 40년도
 글로벌 AI 컴퍼니 SK텔레콤으로서
 AI 강국 대한민국의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AI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는 힘
SK telecom